

HUMANITAS COLLEGE 2023



후마니타스는 누구인가?

‘스스로를 발명하고 문명을 혁신하는 인간’

후마니타스(humanitas)는 로마 철학자 키케로가 인간의 인간다움을 의미하기 위해 사용한 말이다. 이 말 속에는 ‘무엇이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이 들어 있다.

경희대학교는 교양교육을 혁신하면서 후마니타스의 의미를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의했다. 경희의 후마니타스는 자신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부단히 자신을 변모시키고 재발명해나가는 인간이자,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문명을 성찰하고 더 나은 문명을 모색하는 인간이다.

후마니타스는 스스로를 발명하는 탁월한 개인이자, 타자와 더불어 문명을 혁신하는 지구적 실천인이다.



1

Welcome to Humanitas 2023

- 04 총장 입학 환영사
- 08 후마니타스칼리지 확장 인사말

2

후마니타스,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배우는가

- 14 후마니타스칼리지 소개
- 16 문명 전개의 지구적 문맥
- 17 세계시민교육
- 18 글쓰기
- 19 독립연구
- 20 예술·체육 교과
- 21 배분이수·자유이수 교과
- 22 고전읽기
- 23 특강 프로그램
- 24 마이크로디그리
- 25 교육과정 기본 구조와 이수 학점

3

너와 나, 우리는 후마니타스

- 28 세계시민교육 우수 사례
- 36 독립연구 우수 사례
- 44 글쓰기 우수 사례
- 48 독서공동체 아레테
- 49 대학생위원회
- 50 예술축전
- 51 후마니타스 세계평화주간
- 52 후마 홈페이지
- 53 교양교육연구소·실천교육센터
- 54 글로벌봉사팀
- 56 꿈도전장학·전환21
- 58 미래혁신원

4

후마니타스가 말하는 후마니타스

- 62 후마니타스에 바란다
- 70 후마가 후마에게
- 78 후마니타스 포럼

5

경이로운 경희, 대학의 미래, 인류의 미래

- 84 경희의 도전과 성취
- 92 경희를 빛낸 경희인
- 96 기부문화

6

1949~2023 학문과 평화의 74년

- 100 경희 창학정신
- 102 경희의 역사
- 108 세계평화운동
- 112 Campus Map



Welcome to Humanitas 2023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인간이 되고자 하는가?

우리는 어떤 미래를 원하는가?

후마니타스는 자기 자신을 발명하면서 타자와 더불어 문명 전환을 이끌어가는 지구적 실천인이다.

코로나 팬데믹이 불확실성을 더해가는 이때, 대학의 역할과 책무는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이제 대학생이자 성인으로서 여러분은 보다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질문을 붙잡아야 한다. 그 질문에서 미래가 탄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계를 뛰어넘어 미래를 창조하자

신입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제가 총장으로 취임한 이래 처음으로 이렇게 여러분과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보니 감격스럽습니다.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대학에 보내느라 애쓰신 학부모님과 선생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특별하고도 자랑스러운 신입생입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을 꼬박 코로나19 사태에서 공부한 학생들은 여러분이 처음입니다. 입시 준비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매우 견디기 힘든 일인데 ‘코로나 패닉’마저 이겨낸 여러분께 다시 한번 힘찬 격려와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저는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몇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대학에서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무엇보다도 공부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온 공부는 하나의 정답을 찾아야 하고 점수로 환산되어 서열을 가리는 시험공부였습니다. 그런 공부는 진정한 의미의 공부가 아닙니다. 진짜 공부에는 답이 여러 개일 수가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답보다 질문이 더 중요할 수 있고, 질문을 만들어내지 못해 벽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공부는 나 자신뿐 아니라 타인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경쟁과 배제는 구시대의 산물입니다. 승자독식은 반문명적 힘의 논리입니다. 특히 팬데믹을 경험한 여러분은 공감과 배려, 연대와 상생을 보편가치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과 다른 더 나은 세상으로 가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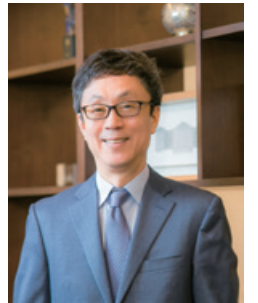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대학에서 갖춰야 할 핵심 역량으로 크게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질문하는 능력입니다. 요즘같이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를 통해 누구나 답을 쉽게 얻을 수 있는 디지털문명 시대에는 질문 능력이 상대적으로 중요해집니다. 오만함을 버리고, 기존 지식에 대한 겸손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물음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진정한 공부란, 의미 있는 질문을 계속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여는 열쇠는 바로 새로운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것입니다.

둘째는 창의성입니다. 창의성은 다름 아닌 관찰력에서 나옵니다. 제대로 된 관찰은 성찰과 상상을 거쳐 통찰에 도달합니다. 높은 수준의 관찰은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사색일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것을 연결하면서 인식의 지평을 넓혀갈 수 있습니다. 대학생활에서 이러한 소중한 관찰경험을 쌓다 보면 낮익은 것에서 낯선 의미를 발견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법고창신(法古創新)’의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와 같은 창의력을 통해 우리는 인류 문명의 진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황금률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황금률이란 공자, 맹자와 같은 인류의 스승이 남긴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한마디로,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는 태도와 능력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에게 의식 혁명이 절실하다면, 그 의식 혁명의 구체적 목표는 다름 아닌 황금률을 내면화, 일상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문명사적 대전환기를 맞은 지금 우리에게서는 보다 확대된 황금률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뿐 아니라 다른 생명과 사물, 기계의 입장까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한균태
경희대학교 총장

사람하고만 더불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명, 다른 존재와도 함께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는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이 조화를 이루는 지구공동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창학정신 '문화세계의 창조'와도 일맥상통합니다.

대학생활을 하는 동안 적어도 앞의 3가지 핵심 역량을 갖춘다면,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대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대학의 창학정신과 미래비전을 자기 것으로 소화하고 우리 경희가 갖고 닦아온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여러분은 기존의 인간과 세계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함께 스스로를 발명하는 인간, 즉 후마니타스로 재탄생하는 것은 물론 더 나은 인류사회를 건설하는 데 적극 기여하는 지구적 실천인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친애하는 새내기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으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입생 여러분, 기성세대가 만들어놓은 한계에 갇힌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주어진 한계를 인정하고 거기에 적응한다면 여러분은 질문할 수도 없고 창조는 더욱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멕시코의 어떤 부족은 무려 320km를 쉬지 않고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쉬지 않고 엄청난 거리를 달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는 여러분을 가로막는 벽이 아니라 여러분이 힘껏 열고 나가는 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좋은 삶, 더 나은 미래는 우리를 둘러싼 한계 너머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경희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미래를 제시할 때 자신의 삶은 물론 인류사회가 새로워지고 지속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수님과 교직원, 그리고 여러분의 선배와 동문 모두가 여러분을 힘껏 지원하고 응원할 것입니다.

'학문과 평화의 전당' 경희 공동체 안에서 마음껏 공부하고, 마음껏 질문하고, 마음껏 꿈꾸시기 바랍니다. 경희와 더불어 온 인류의 염원인 '문화세계'를 창조하는 멋진 주역으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학에 거듭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후마니타스칼리지에서 생각하는 능력은 기우십시오”

23학번 신입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경희인이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환영합니다.

신입생 여러분! 대학 교육에서 ‘교양교육’은 무엇을 목표로 하는 것일까요?

입학하기 전부터 대학에서의 교육이 ‘전공교육’과 ‘교양교육’으로 나뉜다는 것 정도는 익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마도 경희대학교 진학을 희망하면서 홈페이지 등 여러 자료를 통해 경희대학교의 많은 강점 중에서 후마니타스칼리지가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도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2011년 경희대학교는 대학 교육의 본질을 되찾고 학부 교양교육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해 ‘후마니타스칼리지’를 설립하고 국내 어떤 대학도 일찍이 시도해보지 못한 획기적인 교양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다소 모험적이라는 염려 속에서도 거교적 지원 하에 시작된 후마니타스칼리지의 교양교육 프로그램은 12년이 지난 현재, 국내 거의 모든 대학들이 희망하는 교양교육의 전범(典範)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국내 대학의 평가에 앞서 이미 2015년 <포브스(Forbes)>지가 ‘아시아 10대 교양 대학’으로 우리 대학의 후마니타스칼리지를 선정한 점은 신입생 여러분들이 입학 후 받게 될 교양교육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를 설명해주는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후마니타스칼리지의 국내외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 대학에 입학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다면 아마 본인이 속한 학과의 전공교육과 교양교육은 서로 어떤 관계인가 하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해 후마니타스칼리지 설립 10주년을 기념하여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육 성과를 정리하여 소개하는 영상 자료를 제작하였습니다. 총 4편으로 편성된 내용 중에는 여러분들보다 앞서 후마니타스의 교양교육을 접하고 졸업한 선배들의 생생한 소감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 중 한 선배가 ‘전공이 새의 몸통이라면 교양은 새의 날개’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전공과 교양교육의 역할을 심플하면서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말이라 생각합니다. 새의 몸통과 날개 중 어느 부분이 더 중요하냐고 묻는 것처럼 전공교육과 교양교육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를 나누는 것은 대학 교육 본질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되었다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지식은 빠르게 바뀌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으로 대체되지만 교양이라는 이름의 능력은 전 생애에 걸쳐 한 인간의 삶과 사회



활동의 모든 측면을 지원한다고 하겠습니다. 즉 어떤 분야에서 무슨 일을 하게 되건 간에 최종적으로 한결같이 필요한 것은 '생각하는 능력의 함양'입니다. AI와 같은 하이테크도 인간의 생각하는 능력을 대체하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이는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일과 생각하는 능력은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이기 때문이겠지요.

후마니타스칼리지의 교양교육은 미래의 실천인, 직업인, 전문가에게 반드시 필요한 지성과 감성의 토대를 마련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은 교양교육을 통해 스스로 도구적·기능적 이성만이 지배하는 닫힌 사회의 '영혼없는 전문가'가 아닌 '더 나은 인간, 더 성숙한 공동체 구성원, 더 나은 직업인·전문가가 되기를 지향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선택과 전환의 순간이 올 때마다 미래의 여러분에게 능동적 적응력과 창의적 상상력의 토대를 만들어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후마니타스칼리지의 교양교육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가이드 북'은 여러분들이 어떤 교육을 받을 것이며 그 교육을 통해 여러분 자신은 무엇을 지향하게 될 것인가를 알려주는 지침서이자 방향서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강과 함께 강의에 앞서 꼭 섭렵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새내기 여러분의 입학에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마음껏 공부하고 가열차게 토론하며 당당하게 자기 삶의 주체자로서 미래의 설계자가 되는 연습을 게을리하지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태
후마니타스칼리지
국제캠퍼스 학장





후마니타스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배우는가

‘미래는 교육과 재난 중
누가 승리하느냐에 달려 있다.’
한 세기 전 영국의 작가가 남긴 격언이다.
각종 재난이 일상화하는 ‘뉴노멀’ 시대,
교육과 학습은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
학생들이 삶과 세계의 불확실성 앞에서도
꾸밈있게 자기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내적 견고성’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후마니타스칼리지의 목표다.

‘교육에서 학습으로’ 거듭나는 후마니타스칼리지

글로벌 교양교육 재정립, 필수교과 학생 수 25명
국내 최초 ‘세계시민교육’ 개설, ‘주제연구’ 신설
지구적 난제 직시하며 ‘지속가능성’ 탐구해야

2011년 출범 이래 대학 교양교육을 획기적으로 쇠퇴한 후마니타스칼리지가 미래비전을 새로 정립하고 재도약에 나섰다. ‘지속가능한 미래사회 건설에 기여하는 글로벌 교양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교육 목표, 교과 구조, 수강생 수, 강의 방식 등을 새로 설계, 운영하고 있다.

후마니타스칼리지는 2020년 이후 ‘교육에서 학습으로’의 전환에 초점을 맞춰왔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협하는 기후 위기와 4차 산업시대가 몰고 오는 불확실성이 겹쳐져 지구적 복합위기가 가중되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 팬데믹이 ‘뉴노멀 시대’를 앞당기고 있다. 후마니타스칼리지는 이와 같은 격변기 속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를 주체적으로 열어나갈 수 있도록 ‘학습권’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새로운 나’를 발명하고 시대 전환에 기여하는 인간

‘교수는 가르치고 학생은 배우는’ 기존의 일방향이 권위적인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교수와 학생이 더불어 성장하는 교학상장(敎學相長)의 대학 문화를 정립하는 것이 후마니타스칼리지 재도약의 핵심이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비판적 사유를 넘어 대안적·실천적 사유 능력을 키워 자신을 발견하고, 더 나은 미래를 모색하는 능력을 키워나간다.

인재상도 구체화했다. ‘탁월한 인간, 책임 있는 시민, 성숙한 공동체의 성원’에서 한 걸음 나아갔다. △개인의 행복과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창조하는 ‘전환 디자이너’ △자기 성찰을 바탕으로 창의력, 상상력, 협동력을 결합하는 ‘실천인’ △우주적 인식을 기반으로 문화세계를 창조하는 ‘세계시민’. 이것이 미래를 열어나갈 새로운 인간, 후마니타스다.

후마니타스(humanitas)란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가 인간의 인간다움을 의미하기 위해 사용한 말이다. 후마니타스에는 ‘무엇이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이 들어 있다. 경희대는 교양교육을 혁신하면서 후마니타스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재정의했다. “자신을 더 높은 수준으로 들어 올리기 위해 부단히 자기를 재발명하는 인간,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문명의 현재를 성찰하고 더 나은 문명을 모색하는 인간.” 이처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인간이 후마니타스다.

후마니타스는 인간 그 자신을 발명하고 문명을 쇠퇴함으로써 미래 문명을 발명해나간다. 교양교육이 ‘교육의 최고 수준’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교양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지적 장식품이 아니다. 나를 ‘더 나은 나’로 변모시키고 형성해나가는 성찰과 창조의 능력, 인간과 세계를 깊이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통합적·비판적·윤리적 사고 능력, ‘더 나은 세계’를 만들어나가는 실천적 역량이 곧 교양이다. 그러므로 교양교육은 ‘대학교육이 도달하고자 하는 최고의 높이’이다.

후마니타스 교양교육의 특징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학문 간 경계를 가로지르는 융합적 교육,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교육, 그리고 △구체적 현장과 연계되는 실천 교육이다. 미래사회가 요청하는 융복합적 사유는 다양성, 상호의존성, 복잡성 등을 아울러야 한다. 이를 통해 인간과 세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공감과 소통, 배려와 존중, 상상과 창조의 가치를 육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이상과 현실을 통합하는 실천 능력을 갖춰야 한다.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교육은 두 가지 큰 질문, 즉 ‘나는 어떤 인간이 되고자 하는가’ ‘우리는 어떤 사회에 살고 싶은가’라는 근본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도록 안내하는 교육이다. 학생들은 평생 이 두 개의 본질적 질문을 붙잡고 있어야만 자기를 성찰하고 사회에 대해 책임을 질 줄 아는 지식인·세계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다.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성찰은 연대와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후마니타스는 국내 대학 최초로 ‘시민교육’을 실시해왔다. 이 교과 수강자들은 매 학기 500개가 넘는 모둠을 만들어 강의실과 사회, 배움과 실천, 지식과 문제 해결을 연결하는 현장 활동을 전개한다. 후마니타스 시민교육은 사회봉사, 참여학습, 현실 개선을 통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실천 교육이다. 가장 중요한 교육적 소득은 이런 실천을 통해 학생들이 ‘자기 변화’를 경험한다는 것이다. 시민교육은 2019년부터 ‘세계와 시민’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교학상장’, 불확실성 시대에 더욱 절실

대학은 기계가 아니라 인간을 길러내야 한다. ‘영혼 없는 탁월성’은 무의미하다. 학부생의 지적·정서적·영적 성숙을 돕는 것이 교양교육의 기본 목표라면, 교양교육의 최종 목표는 한 인간이 삶의 불확실성 앞에서 의미 있고 행복한 방식으로 자신의 생애를 이끌어나가는 ‘내적 균형과 견고성’의 토대를 길러주는 데 있다. 삶과 사회가 개인에게 안겨주는 온갖 영욕의 순간에도 한 인간의 삶을 지탱해주고 의미와 가치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주는 것이 내적 견고성이다.

후마니타스칼리지는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정 기본 틀을 재조정했다. 인문·사회·과학을 아우르는 융합 교과 ‘문명 전개의 지구적 문맥’(인간의 가치 탐색, ‘빅뱅에서 문명까지’, ‘세계시민교육’), 사유와 표현 능력을 키우는 ‘글쓰기’, 소통 역량으로서의 외국어 등 5개 교과를 공통 필수교과로 정했다. 생명과 우주, 분석과 추론, 사회와 평화, 자연기술, 인문사회, 예술창작 등 7개 주제 영역별 배분 이수교과, 독립연구·예술·체육, 고전읽기 분야를 아우르는 자유이수교과가 개설돼 균형과 조화를 도모한다.

‘문명 전개의 지구적 문맥’은 인간, 세계, 문명, 우주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자신의 삶의 문제는 물론 개인과 전방위적으로 연결된 문명사적·지구적 난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지난해 신설된 ‘세계와 시민’



교과에서 그 목표가 뚜렷이 드러난다. ‘세계와 시민’은 대학 및 지역사회의 당면 문제를 넘어 기후 위기, 생태·환경 붕괴, 불평등과 양극화, 신종 질병 등 글로벌 난제를 포괄하는 교과로, 전교생을 대상으로 세계시민 교육을 실시하는 대학은 국내외에서 경희대가 처음이다.

후마니타스칼리지가 재도약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개선한 것이 강의실 규모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인간의 가치 탐색’ 등 필수교과의 강의당 학생 수를 기존 40명 내외에서 25명으로 대폭 축소한 것이다. 그렇다고 대형 강의를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온·오프라인상에서 대형 강의의 장점을 살려나가고, ‘역진행(거꾸로) 학습’ 등 새로운 교육·학습법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영준 전 서울 후마니타스칼리지 학장은 “후마 재도약은 교육의 미래, 미래의 교육을 제시하고자 한다”라며 “학생들에게는 지식을 교수로부터 전달받는 시대는 지났다. ‘뉴노멀 시대’는 스스로 문제를 설정하고 해결하는 시대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후마니타스칼리지 재도약의 핵심 목표 중 하나는 대학의 공공성을 심화, 확대하는 것이다. 대학은 학술기관이기도 하지만 지역, 국가, 지구사회와 긴밀하게 호흡하는 사회기관이기도 하다.

‘대학이 달라져야 미래가 달라진다.’ 후마니타스칼리지는 기후 위기, 특히 코로나 팬데믹이 앞당긴 ‘뉴노멀 시대’에 대응하면서 대학의 존재 이유를 새롭게 정립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교학상장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사회 건설에 기여하는 글로벌 교양교육’을 구현하는 것이다.

필수교과 ‘황금의 삼각형’ 인간, 과학, 세계의 종합적 이해

기존 ‘시민교육’을 ‘세계와 시민’으로 확대 개편
‘인간의 가치 탐색’, ‘빅뱅에서 문명까지’와 유기적 연계



후마니타스 교양교육의 주축인 필수교과는 ‘황금의 삼각형’이다. 기존의 <문명 전개의 지구적 문맥: 인간의 가치 탐색>과 최근 신설된 <문명 전개의 지구적 문맥II: 세계와 시민>, 그리고 2017년 개설된 <문명 전개의 지구적 문맥III: 빅뱅에서 문명까지>가 서로 유기적 연관을 맺으면서 인간과 문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돕는다.

<인간의 가치 탐색>은 교수자와 학습자가 함께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간다. 인간은 지금까지 어떤 가치들을 추구하고 또 구성해왔는가? 인간은 어떻게 인간 자신을 발명해왔는가? 인간은 자기 삶에 어떤 의미와 목적을 어떻게 부여해왔는가?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스스로 생각해야 하는 교과’, 발표와 토론 중심

<인간의 가치 탐색>이 인간이 어떤 가치를 추구해왔는지를 동서양 문명을 가로지르며 탐사한다면, 2019년 신설된 <세계와 시민>(세계시민교육)은 기존의 <우리가 사는 세계>와 <시민교육>을 통합한 것으로, 근대성의 성취에 주목하면서 세계시민이 갖춰야 할 요건을 미래의 관점에서 제시한다.

<세계와 시민>에서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붙잡는다. 근대문명은 어떻게 그 이전 문명의 정치·경제·사회적 딜레마를 돌파할 수 있었는가? 일국의 시민을 넘어 세계시민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할 핵심역량은 무엇인가?

지난 몇 년 간 교육 내용과 강의 방식을 조정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빅뱅에서 문명까지>는 다음 질문을 공유한다. 과학의 기원은 무엇이며 과학은 지금까지 무엇을 발명해왔는가? 우주에 대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시간과 공간이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인가? 생명과 생명체의 본질은 무엇인가? 인류의 미래와 과학의 미래는 어떤 연관성을 갖는가?

위 세 필수교과로 구성된 ‘문명전개의 지구적 문맥’은 강의당 학생 수가 25명 내외로 소형화함에 따라 읽기와 발표,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엄선된 텍스트를 함께 읽고 토론하면서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나간다. 가치와 의미에 대한 동서양의 사유, 문명의 방향을 바꾼 사상과 이론을 만나면서 자신의 삶의 문제는 물론 개인의 삶과 전방위적으로 연결된 지구적 난제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교과다.

인간은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발견하고 발명해온 동물이다. 인간은 ‘진리’라는 가치를 추구하다 철학자를 발명했고 ‘사실’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다가 과학자를 발명했으며 ‘의미’라는 가치를 추구하다가 시인을 발명했다. ‘정의’라는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목숨까지 내던지는 인간을 발명했다. 인간이라는 동물이 오랜 기간에 펼쳐온 ‘가치 추구’의 중요한 장면들과 만나는 동안 학생들은 삶의 가치, 의미, 목적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전환시킨다.

민주주의, 인권, 사상과 표현의 자유, 정교 분리, 과학기술 등 근대의 성취와 한계에 대한 균형 있는 이해는 ‘지금·여기의 나’를 재발견하는 것은 물론 나의 미래, 사회의 미래, 문명의 미래를 시야에 넣는 넓은 사유 지평으로 확대된다. ‘문명 전개의 지구적 문맥’ 교과의 최종 목표는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양교육을 수료한 학생들이 ‘나와 세계’에 대한 근본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안내하는 데 있다.

전세계 대학 최초로 개설 글로벌 난제를 ‘우리의 문제’로

기존 ‘시민교육’을 지구적 차원으로 확대
학생들 스스로 과제 설정, 현장에서 모둠 활동



2011년 출범과 함께 후마니타스칼리지가 국내 대학 최초로 실시해온 ‘시민교육’이 2019년 ‘세계시민교육’ 교과로 거듭났다. 세계시민교육은 기존의 중핵교과 <우리가 사는 세계>와 <시민교육>을 통합, 확대한 것으로, 전 세계 대학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세계시민교육을 개설, 운영하는 것은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가 처음이다.

기존 ‘시민교육’이 일국 시민성, 즉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소양과 역량을 강조했다면 신설된 세계시민교육 <세계와 시민>은 말 그대로 세계시민을 지향한다. 세계시민은 근·현대 문명의 성취와 한계를 비판적으로 조명하는 각성된 주체이자, 지구적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문명을 건설해나가는 실천적 주체다.

경희대가 국내 대학 최초로 시행한 시민교육은 학생들 스스로 문제를 설정하고, 문제와 관련된 현장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면서 해결책을 모색했다. 더 나은 세계에 대한 모색이 대학 강의실은 물론 캠퍼스 밖 세상 속에서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기획에 개입하고 참여하는 것은 고등교육기관이 자임해야 할 책임이자 권리이기도 하다.

매 학기 500여 개 모둠이 ‘세상 속으로’

대학이 길러내야 할 ‘더 나은 인간’은 다음 아닌 ‘책임 있는 시민’이다. 책임 있는 시민은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민주사회를 발전시킬 역량을 가진 합리적·비판적 민주시민, 공동체적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뢰·선·공감·배려·봉사·연대의 덕목을 가진 따뜻한 공동체 성원, 한 나라의 시민임

과 동시에 지구사회를 생각하는 ‘세계시민’이 그것이다.

세계시민교육은 단순한 실험이 아니고 실습도 아니다. ‘실천’이다. 시민교육은 이론과 현장 경험을 고루 갖춘 교수진이 진행한다. 교재 <세계와 시민>을 통해 시민의 역사, 시민의 현대적 의미 등 이론을 공부한 다음, 강의실 밖으로 나가 현장 활동을 수행한다. 현장 활동의 주제, 활동 방식은 모두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시나리오가 없는 현장에서 이뤄지는 활동이므로 학생들이 온몸으로 경험하는 ‘산 공부’의 폭과 깊이는 각별하다.

그간 학생들은 3~5명이 팀을 이뤄 대학과 관련된 작은 주제를 선택하거나, 지역사회의 여건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가 하면, 사회적·지구적 이슈를 탐색하기도 했다. 서울과 국제 캠퍼스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수강하는 학생은 매 학기 2,500명에 이른다. 이들이 500개 안팎의 팀(주제)을 구성해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간 마을 벽화 그리기, 스마트폰 사용 실태, 그린 캠퍼스 만들기, 독거노인 돌보기, 학교 폭력, 청년실업, 외국인과의 소통, 생태·환경 문제, 사회적 소수자 배려 등 사회 곳곳에 잠복해 있는 문제점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파고들었다.

새로 나온 세계시민교육 교재 <세계와 시민>은 크게 시민과 세계시민의 역사적 특성을 살펴본 다음, 세계시민성의 정치경제적 기반, 즉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특징과 현재 상태, 그리고 지구적 차원의 문제와 그 해결방식을 조망한다. 교재편찬위원들은 이렇게 당부한다.

“교재는 ‘교과서’가 아니다. 교재를 문제 해결을 위한 ‘영감의 지렛대’로 활용하기 바란다.”

‘나의 삶과 대면하기’가 학술에세이 쓰기 역량으로

<나를 위한 글쓰기>에서 <성찰과 표현>으로
<주제연구> 신설, 다학문적 사유 능력 강조



대학 신입생에게 글쓰기는 대부분 ‘생애 최초의 글쓰기’다. 초·중등교육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글쓰기를 배울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글쓰기와 처음 마주하는 학생들은 그래서 글쓰기가 두렵고 불편하다. 후마니타스 글쓰기 교과는 글쓰기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바로잡고, 자신감과 흥미를 불어넣어주는 데서 출발한다.

글쓰기 교과도 2020년 후마니타스칼리지 재도약에 발맞춰 교과명을 바꾸고 교재를 개편했다. 기존의 <나를 위한 글쓰기>(글쓰기 1)가 <성찰과 표현>으로, <대학글쓰기: 세계와 나>(글쓰기 2)는 <주제연구>로 바뀌었다. 개편된 <성찰과 표현>은 신입생을 위한 기초 글쓰기이고, <주제연구>는 2학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심화 글쓰기다.

인간과 세계의 ‘위기’를 성찰하고 ‘전환’ 모색

신입생을 위한 기초 글쓰기 <성찰과 표현>은 ‘내가 나를 쓰는 글쓰기’에 중점을 둔다. 자신의 삶을 다양한 주제로 성찰하면서 자기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글쓰기를 통해 학생 스스로 자존감을 회복,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관계를 (재)발견하는 과정에서 자존감과 자신감을 되찾는 기초 글쓰기는 대학 생활과 사회진출에 대한 자신감으로 확장된다.

기초 글쓰기는 ‘다시 가고 싶은 그곳’ ‘잊을 수 없는 음식’과 같은 주제별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한 다음 ‘내가 원하는 삶과 사회’와 같은 보다 큰 주제를 소화하며 시계(視界)를 넓혀간다. 이 과정에서 발상과 관찰, 비교와 대조, 서술과 비유 등 글쓰기에 필요한 기본 전략과 기술을 습득한다. 기초 글쓰기는 ‘5단락 글쓰기’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구체

적 목표로 삼는다. 자신의 경험과 감정, 사유를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방식이 5단락 글쓰기다.

기초 글쓰기를 수강한 박민지(국문과 11학번) 학생은 “글쓰기 강의를 들으면서 비로소 자신과 만날 수 있었다. 어느 때는 나도 모르게 울음이 터져, 한참을 울다가 글을 마저 써 내려간 적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것이 ‘내가 나를 쓰는 글쓰기’만이 갖고 있는 강점이다. 19세 청소년은 자신의 상처와 직면하는 글을 쓰면서 진정한 성년으로 거듭난다.

<주제연구>는 학술에세이 한 편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성찰과 표현>에서 익힌 기본기를 바탕으로 학술적 글쓰기의 세계로 진입하는데, 교과명이 말해주듯 ‘주제’ 선택에 비중을 뒀다. ‘위기와 전환’이란 대주제 아래 인간, 세계, 지구 세 영역에서 소주제를 선택하되 최소 3개 학문 분야의 관점을 동원하고 전문성과 대중성을 조화시키는 것에 비중을 둔다.

후마니타스 글쓰기의 또 다른 특징은 강좌당 학생 수가 최적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수강생 수가 <성찰과 표현>, <주제연구> 각 25명 내외인데, 이는 국내 최고 수준일 뿐만 아니라 외국 우수대학의 글쓰기 강좌와 같은 수준이다. 수강생 수가 적을수록 교수의 첨삭 지도와 발표와 토론, 모둠 수업이 가능하다. 기초 글쓰기에서는 개별 체험 활동 ‘나만의 장소 찾기’와 모둠 활동 ‘음식과 산업문명: 우리는 무엇을 먹는가’도 진행된다.

온라인 강의실도 개설해 오프라인 강의와 병행한다. 학생들이 자신의 글을 온라인 카페에 올리고 학생들끼리 평평과 토론을 진행하면서 글쓰기 역량을 키워간다.

‘원하는 강의, 내가 만들어 자율성, 탐구력, 창의성, 협동력 키운다’

학생 스스로 과제 설정, 지도교수와 함께 수행
'총장과의 대화'에서 학생 제안으로 신설



“전공교육이 새의 몸통이라면 전공지식이 올바른 방향으로 날아갈 수 있게 하는 두 날개가 필요합니다. 한 날개는 후마니타스칼리지에서 배운 가치들이고 다른 날개는 그 가치들을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해외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미국 브라운대학의 경우인데요, ‘독립연구’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우리 대학도 이런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학업에 대한 남다른 열정이 없었다면, 그리고 ‘총장과의 대화’가 마련되지 않았다면 ‘독립연구(independent study)’ 교과 신설은 많이 늦춰졌을 것이다. 지난 2015년 7월 24일, 국제캠퍼스에 이어 서울캠퍼스에서 총장과 학생들이 마주 앉아 ‘미래대학리포트 심층토론’이 열렸다. 주제는 ‘문명의 미래, 대학의 미래’. 이 자리에서 정치외교학과 박예지 학생이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

연구, 창작, 봉사, 창업 등 모든 분야에 열려 있어

이에 대해 조인원 총장은 “독립연구 도입을 적극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리고 2016년 봄 학기부터 후마니타스칼리지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자율성, 창의성, 탐구력, 협동심을 복돋워주는 독립연구가 본격 시행되기 시작했다. 교양과 전공을 불문하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독립연구를 본격 시행한 것은 경희대가 처음이다.

독립연구는 학생들이 개인이나 모둠별로 자율적으로 교과를 설계하고 이를 담당 교수의 지도 아래 한 학기 동안 수행한다. 절차는 다음과 같다. 방향 중(개학 전) 개인 또는 모둠별로 연구 과제를 정하고 지도교수를 섭외한다. ‘신청서 및

계획서’를 작성하고 수강신청을 한 뒤, 개학 초기 수강신청 정정 기간에 지도교수에게 ‘신청서 및 계획서’를 최종 승인받아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에 제출하면 된다.

미리 제출한 계획에 따라 학기 중에 지도교수의 지도 아래 독립연구를 수행하고, 학기 말에 지도교수에게 ‘활동 보고서’ 및 ‘활동 결과 실적물’(논문, CD 등)을 제출한다. 지도교수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성적을 부여해 학생의 활동 보고서와 실적물을 행정실에 제출한다.

독립교과는 교과당 2학점이다. 독립연구 대상(영역)은 다양하다. 연구(학습), 실천, 창작, 참여, 창업 등 거의 모든 분야에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독립연구 교과 설계와 지도교수의 예다.

△에머슨의 초절주의 연구(개인·모둠), 지도교수 유정완(영문과) △한국비교철학사 연구(개인·모둠), 지도교수 전호근(후마니타스) △구술 생애사(노인 자서전) 활동(2~3명 모둠)·시창작 고급과정·미디어글쓰기, 지도교수 이문재(후마니타스) △창업 및 시민사회 활동 관련(NGO/NPO 만들기·협동조합·소셜벤처·농업 운동·사회활동가·글로벌 활동가 등)·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 조사 연구 및 세계 참여(개인·모둠), 지도교수 우기동(GSC) △전공 연계 사회공헌 프로그램(친환경 도시재생·사회적 다큐멘터리 제작·거리공연 기획 등)(개인·모둠), 지도교수 우대식(후마니타스).

교양 과정의 독립연구는 2018년부터 대학 내 모든 전공 학과로 확대돼, 후마니타스칼리지를 넘어 ‘경희 교육’의 새로운 특성이자 학풍으로 뿌리내리고 있다.

‘억눌렸던 감수성’ 되살려 ‘온전한 청년’으로 태어난다

입시지옥에 갇혀 있던 감성과 체력 일깨워
‘지성과 몸의 조화’ 추구하는 후마니타스



산업혁명 시대의 인간을 주도한 것이 ‘이성과 과학’이었다면 탈산업사회의 새로운 인간은 ‘지성과 감성이 몸과 조화를 이루는 인간’이다. 후마니타스칼리지의 예술·체육교과는 인간과 세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추구하는 것 못지않게 온전한 감성의 회복을 추구한다. 숨 가쁜 성장기에 입시에 몰두하면서 신체의 성장과 감수성을 억제해온 청년들이 감성을 일깨우고 몸을 재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연 및 전시 교과, ‘후마니타스 예술제’ 개최

예술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자기 안의 창의성을 개발해 자기만의 예술성을 표현할 수 있으며, 체육을 경험하지 못했더라도 몸과 정신이 하나 되는 ‘인문체육’을 경험할 수 있다. 예술교과는 합창, 악기 연주, 무용, 스포츠댄스, 판소리 등 공연 예술 외에 회화, 사진, 디자인, 영화 등 시각 장르에서도 다양한 과목이 개설돼 있다. 공연예술 및 전시 과목 수강생들은 매년 가을 열리는 후마니타스 예술제 무대에서 그간 갈고 닦은 기량을 관객들에게 선보인다.

체육교과 역시 학생들의 관심이 많다. 특히 주말과 방학 기간을 이용해 집중적으로 배우는 요트·승마·스키 등 교과가 인기가 높다. 요트는 강의실 이론 수업을 마치고 주말에 한강으로 나가 3일간 현장실습을 실시한다. 승마 수업도 주말 또는 종강 직후 2박 3일간 집중 교육을 진행한다. 여름철에는 수상스키와 윈드서핑, 겨울에는 스키장에서 합숙을 하며 설상 스포츠를 연마한다.

대형 사건사고, 신종 전염병, 태풍과 지진, 기상이변 등 생명을 위협하는 각종 사고를 직·간접으로 경험한 까닭에서인

지 ‘응급처치 및 전문 관리론’ 과목에 대한 관심도 크게 높아졌다. 응급 상황 3단계에 대처하는 요령을 배우고, 심폐소생술(CPR) 및 자동제세동기(AED) 시행 방법을 익히는 데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대한적십자사와 연계해 안전교육(수상안전법·산악안전법)을 수강한 학생에 한해 응급처치법 교육 이수를 인정한다.

체육교과 중 최근 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진 과목은 ‘토탈 컨디셔닝’이다.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육체적·정신적 조화를 통해 삶의 질을 추구하는 생활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이 교과는 대학 입학 후 변화된 일상을 맞이한 학생들에게 건강한 삶을 되찾아주는 효과를 가져다준다. 기초체력을 높이고, 자신의 신체에 맞는 올바른 운동법을 배우며, 나아가 자신만을 위한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설계한다. 토탈 컨디셔닝은 졸업한 이후에도 각자 지속해야 하는 ‘평생 과목’ 중 하나다.

예술교과 ‘다시 시작하는 피아노 레슨’은 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타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피아노와 새롭게 대면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기 말에는 수강생들이 모두 무대에 오르는 ‘종강 콘서트’를 연다. 서울시향 연주자가 직접 강의실을 찾아 공동으로 진행하는 음악교과, 국립현대무용단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또한 학생들의 예술적 감성을 일깨우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미적 체험을 통한 교양예술 프로그램은 지성, 감성, 영성이 조화를 이뤄 자신과 세계를 새롭게 만나도록 하는 동시에 타인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능력을 키워준다.

생명, 우주, 문명 탐색에서 자연기술, 예술창작 영역까지

필수교과와 긴밀하게 연계되는 ‘배분이수교과’
예술·체육 분야 아우르는 자유이수교과도 풍성



배분이수교과: 12학점 필수적으로 선택해야

배분이수교과는 ‘문명 전개의 지구적 문맥’(<인간의 가치 탐색>, <세계와 시민>, <빅뱅에서 문명까지>)과 글쓰기 등 필수교과와 내용적으로 깊은 연관성을 가지면서 후마니타스 교양교육 프로그램의 한 축을 이룬다. 배분이수교과의 7개 주제 영역은 4개 창의 영역과 3개 토대 영역으로 나뉘어 인간, 사회, 자연, 문화, 예술, 세계, 윤리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표 참조), 총 190여 개의 강좌가 개설된다. 각 과목은 3시간 3학점이며, 졸업하기 전까지 7개 영역 중 4개 영역(12학점)을 필수로 선택해야 한다.

배분이수교과는 단순히 많은 수의 교양과목을 산만하게 나열하는 차원을 넘어, 여러 학문 분야를 넘나드는 학제 연계의 원칙에 따라 접근한다. 필수교과에서 거론된 핵심 주제가 의미, 상징, 공감, 역사, 공동체, 비폭력, 논리, 분석, 수량세계 등으로 심화, 확장되는 것이다.

최근에는 ‘공감, 배려, 안전’(김윤철 교수), ‘창의적 사고를 위한 소프트웨어코딩’(정화영 교수), ‘종교문화와 여성’(최화

선 교수), ‘미래학과 전환 설계’(김민용 교수) 등의 교과가 추가됐다. 이 중 ‘공감, 배려, 안전’ 교과는 서울시와 함께하는 관·학 연계 안전교육 프로그램으로 인간 가치와 문명혁신의 기반을 다지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자유이수교과: 210여 개 강좌 개설

후마니타스칼리지는 학생들이 자신의 다양한 관심과 욕구를 충족하고, 전공 또는 취미생활과 관계된 주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이수교과를 운영하고 있다. 210여 개의 강좌가 개설된 이 교과는 외국어, 체육, 예술 분야의 특강, 창작 및 실기, 기타 선택과목으로 이뤄져 있다. 콘텐츠 제작, 디자인을 포함한 다수의 실용과목도 제공된다.

이외에도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원하는 강좌를 요청해 개설하는 배움학점제가 있다. 대표적으로 ‘도시농부학교’, ‘놀이하는 인간: 대안문화 기획학교’ 등이 큰 호응을 얻었다. 학생들의 자율적·창의적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함양하는 ‘독립연구 1·2’도 자유이수교과에 포함된다.

배분이수교과: 7개의 학제적 주제 영역 Distributional Requirement Courses: Cross-disciplinary Thematic Categories

- 1 생명과 우주 영역 | ‘생명의 그물망’, ‘생명, 영원한 블루오션’, ‘몸과 생명’ 등
- 2 분석과 추론 영역 | ‘수와 문명’, ‘제논의 역설에서 카오스 이론까지’, ‘미국드라마로 보는 초강대국의 정치’ 등
- 3 상징과 문화 영역 | ‘호모무지크스: 음악으로 경계 넘기’, ‘대학의 역사, 미래의 대학’, ‘종교문화와 여성’ 등
- 4 사회와 평화 영역 | ‘십자가와 초승달: 기독교와 이슬람’, ‘젠더, 섹슈얼리티, 문학’, ‘공감, 배려, 안전’ 등
- 5 자연기술 토대 영역 | ‘모두를 위한 물리학’, ‘인간과 생활 속의 로봇’, ‘디지털 세계의 신인류’ 등
- 6 인문사회 토대 영역 | ‘고전읽기: 김수영’, ‘고전읽기: 인도신화’, ‘고전읽기: 자본론’ 등
- 7 예술창작 토대 영역 | ‘움직임과 소통’, ‘현대미술 라운드테이블’, ‘오케스트라의 오늘’ 등

공맹에서 다윈, 황순원까지 동서양 ‘지혜의 샘’과 만난다

후마니타스 교양교육의 또 다른 핵심교과
지성의 최고봉과 대화하며 ‘더 나은 미래’ 모색



고전은 마르지 않는 지혜의 샘이며 상상력과 창조성의 샘 없는 자극제다. 인간을 키우고 인류문명을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해온 동서양 주요 고전을 집중적으로 읽어내가며 새로운 해석을 내리고 그것을 구체적 삶과 연결시키는 것은 고등교육의 책무 가운데 하나이자 교양교육의 존재 이유다.

전 학년에 개방, 강좌당 수강생은 30명 이내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양교육은 ‘고전읽기’를 통해 사유의 깊이를 더하고 인식과 실천의 지평을 넓히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중핵교과와 배분이수교과 수강생들은 청소년기에 접하지 못했던 수많은 고전 텍스트를 읽어야 한다. ‘고전읽기’ 교과는 그 연장선에서 보다 심도 있고 다양한 고전 연구를 시도한다. 고전읽기는 개인이나 모둠이 독립연구 교과로 업그레이드할 수도 있다.

‘고전읽기’는 문학, 철학, 역사, 사회과학 네 분야에서 엄선한 고전을 교재로 한다. 30명 이내 소수의 수강자를 대상으로 강좌가 개설되며, 전 학년에 개방돼 있다. 한 학기 동안

인류 지성사의 최고봉과 집중적으로 만나면서 ‘나’와 ‘세계’를 재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고전읽기’는 고대에서 현대까지, 동서고금을 가로질러 인류문명의 진전에 큰 영향을 준 저작물 중심으로 교과가 구성된다. 그리스 비극, 대학·논어·맹자·중용, 성서, 셰익스피어, 자본론, 퇴계, 정약용, 박지원, 황순원, 김수영, 박경리의 대화소설 <토지> 등 40여 개 교과 과목이 개설돼 있으며 앞으로 계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과목당 3시간 3학점이다.

수강생들은 그리스 비극을 읽으며 서양문화의 기원을 살펴볼 수 있고, 대학, 논어, 맹자, 중용, 노자, 장자 등을 통해 동양사상의 정수를 만날 수 있다. 자본주의 체제의 구조와 내부 모순을 지적한 마르크스의 <자본론>은 현실 사회주의 몰락 이후에도 여전히 전환의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경제철학의 고전이다.

한국 현대문학의 거장 황순원은 1960년대부터 30여 년간 우리 대학 국문과에서 수많은 문인을 배출한 ‘경희문학’의 큰 스승이다.

고전읽기 개설 교과: 독립연구로 ‘깊이 읽기’ 심화 가능

삼국사기	치누아 아체베(아프리카)	카뮈	찰스 다윈	맹자
삼국유사	마르케스(라틴아메리카)	카프카	토마스 쿤	대학, 중용
한비자, 목자	프란츠 파농	프로이트	애덤 스미스	밀란 쿤데라
이규보	리처드 도킨스	오비디우스	톨스토이	무라카미 하루키
박지원	에드워드 사이드	불경	괴테	헤르만 헤세
막스 베버	염상섭	코란	보르헤스	초급고전한문
사르트르	김수영	인도신화	울곡	초급라틴어
아리스토텔레스	나쓰메 소세키	동양신화	퇴계	영어로 읽는 한국고전
장 자크 루소	단테	비트겐슈타인	논어	

‘전환 설계’의 최전위 경희의 ‘명품 특강’

‘후마니타스 특강’ 통해 각계 전문가와 만나
매년 9월 PBF 학술대회, 세계 석학 초청 강연



신입생들은 국내외 석학, 전문가, 활동가, 기업가와 마주함으로써 후마니타스로 성장하는 기회를 갖는다. 후마니타스칼리지는 정규 교육과정 내용을 심화하고, 학생들이 이론과 현실, ‘나’와 세계를 보다 폭넓고 깊이 있게 사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특강을 마련하고 있다.

후마니타스 특강은 한 학기 동안 2~3개 학문 분야의 주제에 집중하기도 하고, 어떤 학기에는 현장 중심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후마니타스 특강은 매년 시야를 학문 분야 밖으로 확대하고 특강 연사도 다채롭게 구성한다. 예컨대 ‘개인의 사회적 책임’, ‘대학생들이 오해하는 기업의 인재상’, ‘자기와의 연대’, ‘세계 시민교육의 역사와 전망’, ‘청년들이 알아야 할 한국경제의 현실과 미래’ 등을 주제로 설정한다.

‘6411의 목소리와 노동 존중 사회’

후마니타스 특강의 또 다른 특징은 학생들의 호응이 남다르다는 것. 강의가 끝나고 나서도 진지한 토론이 이어졌고, 연락처를 받아 이메일을 주고받는 등 일회성 특강이 갖는 한계를 벗어났다. 특강 시리즈를 담당하는 김윤철 교수는 “200명 넘게 수강하는 대형 강의인데도 학생들의 집중도가 높았다. 앞으로도 주제를 다양화해 학생들이 현실과 미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후마니타스 특강 외에도 다양한 학술행사가 열리고 있다. 2017년 세계평화의 날 기념 ‘Peace BAR Festival(PBF)’ 기간에는 체코의 벨벳혁명과 촛불혁명을 비교 분석하며 세계시민운동의 가능성을 타진한 원탁회의가 열렸다. 2018년에는 빙하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 피터 와담스 전 케임브리지대 교수를

초청, ‘얼음 없는 북극’이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경희는 매년 세계평화의 날(9.21)에 즈음해 개최되는 PBF 국제학술회의에 세계적 석학과 싱크탱크를 초청, 지구적 난제 해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

경희의 명품 특강을 대표하는 석학이 슬라보예 지젝 교수다. 2012년 국제캠퍼스에 석좌교수(ES)로 초빙된 이후 매년 특강을 이어오고 있다. 2016년 1월에는 경희대 석좌교수(ES)이자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인 존 아이켄베리, 램 크난 등 해외 석학이 ‘포스트자본주의 시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주제로 인문사회 포럼을 개최하기도 했다. 2016년에는 <호모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 로마클럽 회원인 어빈 라슬로 박사의 초청 특강이 진행됐고 2017년에는 장하석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미래지식 전환을 주제로 논의를 펼쳤다.

2023년 새로운 특강이 개설된다. 노회찬 재단과 함께 하는 ‘6411의 목소리와 노동 존중 사회’가 그것이다. ‘타투가 뭔지도 모르는 이데’, ‘당신 곁의 성소수자 노동자’, ‘특성화고 출신도 다 같은 노동자입니다’ 등 학생들의 관심 영역과 연계한 주제를 선정, 다양한 직업의 노동자 및 활동가를 초청해 주변의 6411 노동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목표는 학생들이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분배 정의를 실현하며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학생들은 특강을 통해 노동 관련 문제에 대한 해석이나 해결책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다. 매 수업 후 피드백 성격의 1분 보고서 및 에세이를 제출해 자신이 가진 고민과 현실 인식에 대한 실질적이고 대안적인 상상력을 펼친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학습 ‘마이크로디그리’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역량, 직무 반영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등 실무 능력 함양

경희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맞춰 신규 학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후마니타스칼리지는 2022학년도 2학기에 ‘마이크로디그리’ 제도를 신설했다. 마이크로디그리는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역량, 직무, 자격을 위한 최소 단위로 특화된 교육 과정이다. 기술혁신에 따라 급변하는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새로운 학사제도다. 학생들은 마이크로디그리를 이수하며 관심 있는 기술 분야의 이론적 배경과 실무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또한 전공 학과와 관계없이 이수할 수 있어 폭넓은 선택권이 보장된다.

2022학년도 2학기에 시범적으로 3개의 마이크로디그리를 신설했다.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AI/SW 기술 관련 전반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후마니타스 AI/SW 마이크로디그리,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공지능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코딩 교육을 제공하는 후마니타스 인공지능 마이크로디그리, 소프트웨어 기초 교육을 제공해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는 후마니타스 소프트웨어 마이크로디그리가 바로 그것이다. 2023학년도에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마이크로디그리를 통해 학생들은 관심 분야에 대한 역량을 쌓는다.

구분	소개	이수내역	진로와 전망
후마니타스 AI/SW 마이크로디그리	-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AI/SW 관련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 제공 - 학생들(특히, 비전공학생)의 AI/SW에 대한 이해를 높임	후마니타스칼리지의 SW 교양 강좌로 지정된 5강좌 중 3과목 이수	- AI/SW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활용해 전공 분야와의 융합 사례를 도출 - AI/SW에 대한 높아진 관심도에 따라 인공지능 또는 소프트웨어 마이크로디그리 이수
후마니타스 인공지능 마이크로디그리	-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AI 기초 교육 제공 - 인공지능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 AI 코딩 교육 제공	후마니타스칼리지의 인공지능 관련 교과목을 ‘AI 기초영역’, ‘AI 코딩영역’, ‘AI 심화영역’으로 구분해 각 영역에서 1과목씩 3과목 이수	- 데이터 분석 및 데이터마케팅 기초기술, 인공지능(기계학습) 기법을 전공에 적용, 더 나은 결과 도출 - 사회 진출 시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관련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후마니타스 소프트웨어 마이크로디그리	-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력을 높일 수 있는 SW 기초 교육 제공 - 소프트웨어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 SW 코딩 교육 제공 - SW 심화 교육을 통해 SW 기초 교육과 SW 코딩 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후마니타스칼리지의 소프트웨어 관련 교과목을 ‘SW 기초영역’, ‘SW 코딩영역’, ‘SW 심화영역’으로 구분해 각 영역에서 1과목씩 3과목 이수	- 소프트웨어적 사고방식과 프로그래밍 기술을 전공에 적용, 더 나은 결과 도출 - 사회 진출 후 소프트웨어 개발 및 네트워크 관리 등 관련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2023학년도 후마니타스 교육과정 기본 구조와 이수 학점

구분	영역	과목명	이수 학점	이수 학년	비고	
필수교과	문명 전개의 지구적 문맥	인간의 가치 탐색	3학점	1학년	1학년 필수	
		세계와 시민	3학점	1학년	1학년 필수	
		빅뱅에서 문명까지	3학점	전학년		
	글쓰기	성찰과 표현	3학점	1학년	1학년 필수, 1학년만 수강 가능	
		주제연구	3학점	2학년	2학년 필수, 2학년만 수강 가능	
영어	대학영어	2학점	1학년	1학년 필수 (3시간 2학점)		
필수교과 소계			17학점			
배분이수교과	창의교양	생명과 우주	-	12학점 (3학점씩 4개 영역)	전학년	7개 영역 중 4개 영역 필수 선택
		분석과 추론				
		상징과 문화				
		사회와 평화				
	토대교양	자연기술 토대				
		인문사회 토대				
예술창작 토대						
자유이수교과	체육	-	3학점	전학년	체육, 기타 중 선택	
	자유이수 기타					
	배분·자유 소계					15학점
교양 이수 학점			32학점 이상	최대 56학점까지 교양 학점 인정		

수강 신청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

- <인간의 가치 탐색>, <세계와 시민>, <성찰과 표현>, <대학영어>는 1학년 때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과이다.
- 글쓰기 교과 <주제연구>는 2학년 때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한다.
- 교양교육 과정은 필수교과 17학점, 배분이수 교과 12학점, 자유이수 교과 3학점 이상으로 구성된다. 각 영역의 기본 이수 학점을 모두 합한 32학점 이상을 졸업이수 학점으로 한다. 교양 학점은 최대 56학점까지 인정한다.
- 배분이수 교과는 4개 '창의 교양'과 3개 '토대 교양' 등 모두 7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재학 기간 내에 7개 영역 중 4개 영역에서 각 한 과목씩 1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 체육을 비롯한 자유이수 교과는, 학생들이 다양한 관심과 욕구를 충족하는 동시에 자기 계발과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양과정이다. 재학 기간 중 3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 <독립연구 1,2>(각 2학점) 과목은 자유이수 기타 영역에 포함된다.



너와 나 우리는 후마니타스

세계시민교육 현장 활동은 강의실보다
더 큰 강의실인 우리 사회 곳곳을 찾아간다.
‘독립연구’는 자율성과 창의성, 소통능력을 강화한다.
세계시민교육은 모둠 활동을 수행하며
타인에 대한 공감과 협동심을 키우고
시대 현실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독립연구는 학문 분야의 빈틈을 메울 뿐만 아니라
자기주도 학습을 경험하게 하는 동시에
사제관계도 돈독하게 한다.

히잡 벗어던지는 이란 여성들

인권 탄압에 반기를 들다

참여 학생

- 김현철 정보디스플레이학과 22학번
- 김민재 경제학과 22학번
- 오재영 사회학과 22학번
- 이다현 미술학부 22학번
- Tan Yuya 국어국문학과 22학번

이란 시위 참여자와의 심층 면담 '이란 시위 연대 성명서' 작성

여기, 마음대로 옷을 입고 외출할 수 없는 나라가 있다. 얼굴 일부와 머리를 검은 천으로 감싸지 않으면 끌려가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이란의 평범한 여성들이 겪는 일상이다. 세계 곳곳에서 민주정치와 여성 인권을 되찾기 위한 이란의 반정부 움직임에 진심 어린 공감과 연대를 표하고 있다.

이란 시위에 힘을 보태고자 22학번이 모였다. 김현철(정보디스플레이학과), 김민재(경제학과), 오재영(사회학과), 이다현(미술학부), Tan yuya(국어국문학과) 학생 다섯 명은 이란의 의복 탄압 역사와 혁명의 확산 배경을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한국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마흐사아마니' 사태, 이란의 의복 탄압과 여성 인권의 실상 드러내

지난해 9월, 이란의 쿠드로족 여성 마흐사아마니가 히잡을 규정에 맞게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끌려간 뒤 목숨을 잃었다. 이 사건은 그간 억눌려있었던 이란의 반정부 움직임에 불을 지폈고, 이란 전체의 격렬한 시위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팀원들은 사안의 문제를 법률의 비민주성 및 불공정성과 정부의 과도한 탄압, 여성 인권의 퇴보에서 찾았다. 이란 형법에는 히잡 의무 착용을 어길 시 벌금과 함께 74건의 태형을 선고받게 된다는 조항이 있다. 히잡을 썼더라도, 마흐사처럼 머리카락이라도 보이면 모진 고문을 당한다. 정부의 탄압이 문제적인 이유는 '악법'이 모두 용인되기 때문이다. 시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경찰은 체포와 감금은 물론 구타와 고문, 강간도 서슴지 않았다. 히잡 착용 의무화는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막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통계에 따르면 이란의 지난 4년간 취업 여성의 수도 450만 명에서 350만 명으로 격감했으며, 여성 대졸자의 실업률도 남성 대졸자 실업률의 2배에 달하는 수치인 22.3%를 기록했다.

팀원들은 일명 'Z세대'로 일컬어지는 청년 세대가 시위의 주축을 이루고 남녀노소 모두가 목숨을 걸고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슬람 학생들과 성직자, 그리고 작가는 시위 지지 성명서를 발표하며 정의와 인권, 사상의 자유를 외쳤고, 일부 여성들은 히잡을 불에 태우고 머리를 커트하는 파격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등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이란인 시위자들과 직접 면담 진행, '목소리 전달할 확성기 되어주고파'

팀원들은 시위 참여자와 지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이란의 현 상황을 널리 알리기 위해 나섰다. 하지만 유의미한 기사를 좀처럼 찾기 어려웠다. 고민 끝에, 대학생 신분으로 한국에서 유학 중이면서 한국 내 이란 시위에 활발히 참여 중인 사람들을 섭외해 보다 생생한 국내외 상황을 들어보기로 했다. 면담에 앞서, 팀원들은 조건에 부합하는 내담자 두 명(아이사, 사나즈)을 섭외했다. 보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한국어와 영어 2개국어로 질문지를 제작하여 미리 전달하기로 했고, 구글미트(Google Meet)를 통한 비대면 면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두 내담자 모두 이란에서 시위를 이어가는 것이 위험하고도 고된 일이라고 증언했다. 사나즈는 정부의 잔혹한 진압으로 인해 친구들을 잃었다고 했다. 시위하는 것이 발각되는 순간 죽거나 체포되고, 가까스로 도망간다 해도 정부에 의해 납치당하거나 강간당하는 일이 빈번하다고도 덧붙였다. 아이사는 미디어 통제로 인해 시위자 간 정보 교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에 반해 한국에서의 시위는 상황이 조금 나은 듯했다. 경찰과 공무원 모두 시위에 협조했고, 한국에 있는 이란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었다. 다만, 주한이란대사관의 반발로 인해 중단되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인에게 피해를 줄까 하는 우려도 있었다고 했다. 지금도 한국의 이란인들은 시위대로 인해 길이 막히거나 통행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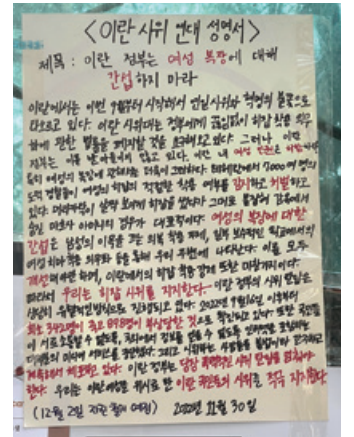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경험은 단순히 기사로 상황을 접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생생했다. 팀원들은 취재한 내용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한국인에게 전달하고, 관심과 도움을 촉구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시민연대란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

자료 조사 및 면담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을 바탕으로 카드뉴스를 제작했다. 단 한 명이라도 이란의 상황을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필수적인 정보만을 담아 간결하고도 알기 쉽게 만들었다. "Freedom For Iran (이란에 자유를)"과 같은 뜻을 들고 있는 사람들의 사진과 함께, 전세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란인들을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마지막에는 "이제, 당신이 그들과 연대할 차례입니다."라는 명료하고도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았다.

연대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이란 시위 연대 성명서'를 대자보 형식으로 작성하여,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게시판에 게재하였다. 접근성이 좋고 통행 인원이 많은 장소인 만큼 많은 사람의 눈에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비록 외국인의 입장에서 비교적 제한적인 활동만을 할 수 있었지만, 진심 어린 관심과 연대의 마음을 전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됐다.

김민재 학생은 "이란 여성이 겪고 있는 자유의 탄압에 대해 더 널리 알리고 싶었다"라며 "하나둘씩 관심을 가져주는 지인들을 보며 시민연대란 이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확산하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었다. 귀한 경험을 할 수 있어 기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팀원들은 이란 시위 연대를 촉구하는 성명서와 카드뉴스를 제작해 많은 이의 관심과 도움을 촉구했다.

잘 만든 '축제' 하나, 지역을 먹여 살린다

콘텐츠 획일화와 개최 남발 NO, 재미와 의미 잡는 축제 YES

지역의 고유한 매력 담은 축제 발굴에 나서 장단점 분석을 바탕으로 관할 시청에 의견 개진, 지역활성화 기대

참여 학생

송서준 건축공학과 22학번

유동하 한국어학과 22학번

유서연 골프산업학과 22학번

최상원 정보전자신소재공학과 22학번

하지수 체육학과 22학번

서울은 사람이 넘쳐나고, 지방은 사람이 없다. 가득 찬 물컵의 물을 빈 잔에 나눠줄 수는 없는 걸까? 지방은 이제 '바람의 인구' 늘리기로 눈을 돌리고 있다. '휴의 인구', 즉 정주 인구의 유입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니, 관광객들을 끌어모아 지역 경제를 살려보려는 움직임이다. 관광 개발을 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바로 지역축제를 만드는 것이다. 지역축제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저비용 고효율'에 있다. 축제 개최에 드는 비용은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이지만, 한번 입소문을 타고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수백억 원의 경제효과까지도 창출해낼 수 있다.

송서준(건축공학과), 유동하(한국어학과), 유서연(골프산업학과), 최상원(정보전자신소재공학과), 하지수(체육학과) 학생이 모인 축제법 팀은 축제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분석하고, 흥행에 어려움을 겪는 축제의 매력을 직접 발굴해 성공적 개최를 도모해보고자 했다.

축제 현장 직접 방문해 방문객 인터뷰, '킬러콘텐츠'의 필요성 확인

좋은 축제는 지역만의 고유한 특색을 담으면서도 방문객이 직접 참여하며 즐길 수 있는 요소가 많아야 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축제가 뚜렷한 정체성 없이 유사한 모티프로 찍어내듯 구성되곤 한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지역과 전혀 상관없는 주제로 축제를 구성하는 것이다. 인기 연예인의 공연으로 꾸러거나, '벤치마킹'을 구실로 베끼기에 급급한 경우도 많다.

축제법 팀원들은 축제 기획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살펴보고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보기로 했다. 먼저, 축제의 단기적 성과에 대한 압박감 문제가 있다. 당장의 경제적 이익 창출을 위해 축제를 여는 경우, 내실 있는 행사를 구축하기 어려웠다. 잦은 담당자 교체 문제도 심각하다. 2-3년마다 담당 업무가 교체되는 공무원 특성상 일관성 있는 운영이 어렵고, 전문지식도 부족해 많은 경우 축제 운영이 부실해진다. 팀원들은 현 실정에서 한 단계 나아가, 재미있고도 개성 있는 축제를 기획함으로써 관광객을 유치하고, 중장기적 지역 경제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해보기로 했다.

팀원들은 축제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전 조사를 거쳐 접

근성이 나쁘지 않은 '파주장단콩축제'를 선정했다. "웰빙명품! 파주장단콩 세상!"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이 축제는, 다양한 먹거리와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부스를 운영하고 파주장단콩요리 전국경연대회를 주최해 장단콩을 주제로 한 요리대회를 개최했다. 팀원들은 원활한 인터뷰 진행을 위해 구두 질문 대신 서면 인터뷰를 준비했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상품을 사전에 준비해 증정했다.

인터뷰 결과, 대중교통을 이용할 시 배차 간격이 넓고 관광버스 관련 정보를 얻기 어려워 접근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농산물을 구매하거나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방문하는 경우가 많았고, 농산물 가격이 시가와 비슷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콩 타작과 심폐소생술이 있었는데 만족도가 고루 높았다. 재방문 의사를 물었을 때 있다고 대답한 인원이 많았다. 재방문 의사가 없는 이유로는 응답자 대부분이 프로그램 및 공연의 재미요소 부족과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함을 원인으로 꼽았다.

경희대 관광학과 박예나 박사와의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콘텐츠 모방으로 인한 고유성 부족이 가장 큰 문제였다. 젊은 층의 유입을 늘리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킬러콘텐츠', 즉 사람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는 매력적이고 독자적인 기획이다.

지리적 이점 백분 활용하는 축제 성공 전략 수립

팀원들은 '파주장단콩축제'가 지금보다 더 흥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고자 했다. 한국축제문화진흥회장이자 파주시 축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인 김종원 회장과 인터뷰를 통해 파주장단콩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파주는 서울에서 한 시간 거리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다면 큰 흥행을 거둘 가능성이 충분하다. 지금의 프로그램 구성을 유지하되 가격을 지금보다 하향 조정함으로써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프로그램 참여비는 유료에서 무료로, 농산물은 지금보다 값싸게 판매했을 때 경쟁력이 생길 것이다.

더불어, 홍보에 대한 자원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현재는 예산안의 3-4%만을 홍보에 투자하고 있으나, 적어도 15%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접적인 광고보다는 축제 참여자에게 특산물을 나누어주며 자연스러운 입소문을 타게끔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판단했다.

팀원들은 파주장단콩축제의 장점과 개선점을 정리했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파주시청 홈페이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축제의 콘텐츠 다양화와 접근성 향상, 농산물 판매가 하향조정뿐 아니라 축제 장소 근처에 있는 임진각 공원과 평화랜드를 활용해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저는 축제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팀원들은 박예나 박사와의 인터뷰에서 이 말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고 한다.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 즐기는 것이 진정한 축제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었다고. 문제를 발견할 때면 막막함이 앞서지만, 결국 변화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 <세계와 시민> 수업의 핵심이다.



축제법 팀은 파주장단콩축제 현장을 찾아 관광객을 상대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린워싱’ 안돼!

진정한 친환경 경영을 위한 첫걸음

참여 학생

김서영 우주과학과 22학번

이찬영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21학번

황동규 식품생명공학과 22학번

국내 그린워싱 기업 앞에서 시위, 규제 법안 내용 담은 카드 뉴스 제작, 환경부와 환경단체, 언론에 관련 사안 관심 촉구

환경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친환경이 마케팅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소비자들도 단순히 상품의 가격과 품질만을 따지는 것이 아닌, 개인의 신념과 가치관을 소비로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점을 이용해 기업의 환경성과를 숨기거나 과장하여 마치 친환경적인 것처럼 포장함으로써 소비자를 현혹하는 위장환경주의, 이른바 그린워싱도 만만치 않다. 그린워싱은 친환경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눈을 가린다는 점에서 기만적인 경영 방식이다. 문제는, 그린워싱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어느 기업이 진짜 친환경적이고 아닌지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친환경 제품과 생산 과정을 지지하는 줄 알았던 소비자가 알고 보니 환경파괴를 조장하고 있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김서영(우주과학과 22학번), 이찬영(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과 21학번), 황동규(식품생명공학과 22학번) 학생이 결성한 표리부동 팀은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소비자들에게 그린워싱의 문제를 알림으로써 소비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올바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정부 차원의 규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종이 용기라면서 안쪽은 플라스틱?

팀원들은 먼저 국내 그린워싱의 사례를 조사했다. 아모레퍼시픽과 이니스프리 등 일부 화장품 업계에서는 코코넛 껍질이나 종이와 같이 재활용 가능한 물질을 소량 함유하거나 겉포장에만 활용하여 여전히 플라스틱 포장재를 사용하고 있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50주년 기념 리유저블컵 증정행사를 진행했지만 말이 리유저블이지, 플라스틱컵을 대량 생산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그린워싱의 근본적인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제대로 된 평가 지표가 없다는 것이다. 친환경제품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을 부여하고는 있지만 기준이 모호하다. 이를테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기업 활동의 사회·환경적 성과를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인 ESG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포스코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1위 기업이며, 약 8천만 톤까지 배출한 해도 있다.

국제 소비자보호 집행기구(ICPEN)에 따르면 국내 344개 기업 중 128건이 ‘친환경적인’, ‘지속가능한’과 같은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통계에 의하면 환경성 관련 부당 표시 광고와 관련해 조사한 1만 2,187건 중 2,900건은 자율시정 조치, 267건은 시정권고, 5건은 시정명령이 내려졌다고 한다. 환경성 관련 표시·광고로 적발된 건수는 2021년 기준 3만 3,532건에 이른다. 이렇게 위반 사례가 쏟아지지만, 정부에서는 이를 강력히 제재하지 않고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친환경인증마크 기준이 불분명한 데다가, ESG 평가지표가 일반 소비자에게 세세히 공개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이와 같은 문제를 널리 알리고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표리부동 팀이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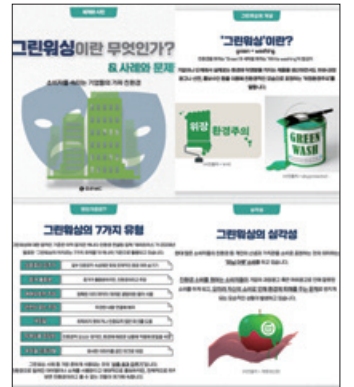
더 올바른 소비를 위해, 그린워싱 근절을 위해

가장 먼저, 팀원들은 그린워싱으로 도마에 오른 기업 포스코를 압박하여 소비자 인식 수준을 보여주기로 했다. 시위에 앞서 관할 경찰서에 찾아가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았다. 피켓은 총 세 가지로 제작했다. 하나는 그린워싱에 대해 아는지를 O, X로 표시할 수 있게 한 설문조사였고, 다른 하나는 포스코의 그린워싱 실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었으며, 마지막 하나는 아직 그린워싱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정의와 문제를 적은 것이었다. 포스코센터 횡단보도에서 조사를 진행했다. 포스코 주변임에도 불구하고 그린워싱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고 대답한 한국인은 단 한 명도 없었다. 표본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환경 인식 수준이 아직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 그린워싱의 심각성을 알리고 보다 현명한 소비를 권장하기 위해 카드뉴스를 제작했다. 그린워싱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일곱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사태의 심각성을 부각해 보여주었다. 국내 그린워싱 기업의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고, 그에 대한 단속과 제재가 미비한 상황이라는 것도 함께 다루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 국내에서도 녹색경제활동을 장려하고 그린워싱 기업을 규제하기 위해 여러 법적,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K-택소노미”라는 제목의 카드뉴스를 별도로 제작해 배급하기도 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국가에서 지정한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을 달성하고 심각한 환경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인권과 안전, 반부패 등 기본적인 원칙을 준수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친환경적 혹은 그에 준하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것이다. 장려책뿐 아니라 규제안들(표시광고법, 환경기술산업법)에 관한 소개도 덧붙였다.

이찬영 학생은 “팀원들과 매일 얼굴을 마주하며 의견을 교환하고, 기업 앞에서 시위를 해보며,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설문을 진행한 것, 세계시민으로서 실천하는 삶을 추구해본 것까지, 3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정말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비록 처음 계획했던 것을 모두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앞으로도 나부터 실천하며 그린워싱 없는 사회가 되는 그날까지 노력할 것”이라는 포부를 전하기도 했다.



표리부동 팀은 포스코 기업 건물 앞에서 그린워싱 실태를 알리는 집회를 진행했다. 카드뉴스를 제작해 그린워싱의 심각성을 알리기도 했다.

핫한 ‘O리단길’에서 낙후지역으로…

젠트리피케이션 해결 나서

참여 학생

김혜나 경영학과 22학번

양은철 생물학과 22학번

김영준 경제학과 22학번

송하연 간호학과 22학번

Liu Ziqing 의상학과 22학번

**피해 입은 골목 상권 현장 직접 찾아가 심층 취재 진행
법적·정책적 문제 없나 점검,
사라지는 골목 지켜내기 위한 직접 행동**

‘O리단길’은 핫플레이스 상권의 상징이다. ‘힙’하고 감성적인 카페와 음식점은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입소문이 난다. 해당 지역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자연스레 주변 상권도 살아난다. 소상공인과 로컬 주민은 난색을 표한다. 지역 가치가 오르면서 기존 소상공인들이 임대료 경쟁에서 밀려나는 것이다. 핫플레이스를 만든 장본인인 소규모 상인들이 역설적으로 지역에서 쫓겨나게 되는 기현상. ‘동지 내몰림’이라고도 불리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다.

2030 젊은층에게 사랑받는 핫플레이스의 어두운 이면에 주목하고,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위해 나선 학생들이 있다. 김혜나(경영학과), 양은철(생물학과), 김영준(경제학과), 송하연(간호학과), Liu Ziqing(의상학과) 학생 다섯 명으로 구성된 ‘하얀마스크쓰고모이조’이다. 인권이 삶의 기본적인 여건이듯, 주거와 사용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삶의 권리다. 팀원들은 골목 상권 현장을 찾아가 소상공인이 박탈당한 주거권과 건물사용권에 대해 조사하고, 이들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방안을 찾기로 했다.

10-20대 81%, 젠트리피케이션 ‘모른다’

팀원들은 사회 구성원들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해 얼마나 잘 인지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온라인 구글폼으로 질문지를 작성, 소셜미디어를 통해 10-20대 8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48.2%가 ‘들어본 적이 없으며 잘 모른다’고 답변했고, 32.9%가 ‘개념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들어본 적은 있다’고 답했다. 해당 개념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오직 18.8%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약 70%가 소위 핫플레이스라 불리는 곳을 한달에 3-4번 이상 방문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젠트리피케이션의 주요 발생 지역이 이러한 핫플레이스라는 사실에 대해서 과반수가 관심이 없으며, 지역과 현상의 연관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이들 역시 소수에 불과했다. 핫플레이스를 찾는 주고객층임에도 개념 자체를 생소해하거나 지역의 속사정 및 경제구조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시민과 10-20대 젊은층이 해당 사안에 관심을 갖게 하고, 사라지는 골목을 지켜내는 데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팀원들은 젠트리피케이

션의 이해당사자와 피해 구제를 위해 힘쓰는 지지자를 각각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정부 주도 젠트리피케이션의 타격을 입은 을지로 ‘노가리 골목’과 명동 중구에 찾아가 현장을 심층 취재하고, 세입자 대표 강성진 총무와 이들을 적극 지지하는 옥바라지 선교센터의 이종건 사무국장을 만나 각각의 입장을 들었다.

을지로 ‘노가리 골목’ 재개발 현장 직접 방문

을지로에서 처음 문을 열었던 ‘을지 OB 베어’는 해당 지역이 ‘힙지로’로 이름을 떨치며 젊은층의 사랑을 받기 훨씬 이전부터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서울시의 ‘백년가게’로도 인정받은 바 있는 로컬 가게였다. 노상 맥주집 ‘만선호프’가 골목 일대를 장악하며 ‘OB 베어’ 가게는 동원된 70명의 용역에 의해 철거됐다. 해당 사안을 안타깝게 지켜보던 옥바라지 선교센터의 이종건 사무국장은 이 사안이 단순히 한 가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님을 강조한다. 사무국장은 쫓겨남이 없는 세상이 올 때까지 끊임없이 골목의 다양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함께 투쟁해야 하며, 시민들도 많은 관심과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는 당부도 덧붙였다.

중구청의 젠트리피케이션을 조사하던 팀원들은 명동 2지구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명동 2지구는 재개발로 인해 기존 세입자들이 쫓겨나게 된 경우였다. 팀원들은 명동 2지구의 주민들을 만나 취재를 진행했다. 건물주와 재개발 업체가 명도소송을 거는 방식으로 세입자를 내보내고 있었다. 재계약을 약속했음에도 계약 기간이 만료된 즉시 퇴거명령을 내리고, 이에 응하지 않자 명도소송을 통해 강제로 세입자를 쫓아내는 방식이다.

더 무서운 건 강제집행이다. 소송 도중 건물주가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세입자는 장사를 할 수 없고, 소송이 끝나갈 즈음에는 계약기간도 끝나버린다. 그럼에도 법은 극심한 피해를 입은 세입자가 아닌 건물주와 재개발 업체의 손을 들어준다.

명동 2지구의 슬로건은 “가게는 삶이다”이다. 하루 대부분 시간을 가게에서 보내고, 가게에서 난 수익으로 먹고 살아야만 하는 소상공인들을 가게에서 쫓아내는 것은 결국 삶을 박탈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팀원들은 힘을 보태기로 했다.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 시위 성격을 띤 현장예배를 진행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공교롭게도 참석 예정일이 마지막 예배일이었고, 그날을 마지막으로 을지 OB 베어의 가게를 철수하고 노가리 골목을 떠날 예정이었다.

간절한 마음이 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이어가던 예배시위는 끝났고, 을지 OB 베어는 철거했으며, 만선호프는 점점 더 입지를 넓어가고 있다. 하지만 문제의식을 지닌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강제퇴거의 부당함에 다수가 동의한다는 사실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 그리하여 일반 시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더 많은 이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변화의 작은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양은철 학생은 “젠트리피케이션 현장을 직접 맞닥뜨리며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며, “세계시민이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나서는 존재임을 깨달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하얀마스크쓰고모이조 팀은 을지OB베어 현장예배에 참여해 상생을 위한 마음을 보냈다. 옥바라지 선교센터 이종건 사무국장도 인터뷰하며 골목 다양성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친구처럼 놀며 함께 성장하다

중도입국 청소년들 멘토링 프로젝트

참여 학생

강채원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22학번

김서현 골프산업학과 22학번

손영준 중국어학과 22학번

이태용 기계공학과 22학번

최지운 우주과학과 22학번

어린 나이에 연고 없는 타지 입국한 몽골 청소년들 어려움에 공감 딱딱한 멘토링 대신 어울려 놀며 자연스러운 문화 교류 유도

어느 날 갑자기 언어도 문화도 다른 국가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어떨까. 새로운 일자리와 터전을 찾아 타국으로 떠나는 부모를 따라 자녀들도 덩달아 낯선 환경에 내던져지게 되었다. 이러한 삶의 변화는 어린아이들, 특히 청소년에게 쉽지 않은 일이다. 언어적 장벽으로 인해 학업을 따라가기 어려워 뒤처지는가 하면 또래 집단에 자연스레 녹아들지 못하고 겉도는 경우도 왕왕 있다. 생김새도, 언어도, 유행과 취향도 모두 다른 아이들 사이에서 정체성에 혼란을 겪기도 한다.

어른이 되기 전 타국에 온 청소년들이 새로운 환경에 마음을 붙이게 도와줄 수는 없을까. 중도입국 청소년들 멘토링 프로젝트는 이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경희대 학우들은 딱딱한 멘토가 아닌 편안한 친구가 되어 이들과 추억을 쌓기로 했다. 강채원(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과), 김서현(골프산업학과), 손영준(중국어학과), 이태용(기계공학과), 최지운(우주과학과) 학생은 색다른 방식의 멘토멘티 활동을 구상하고 독립연구를 수행했다. 거창하게 접근하기보다는 청소년 눈높이에서 무엇을 하면 즐거워할지를 고민하며 프로그램을 짰고, 멘토도, 멘티도 모두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하며 가까워질 수 있도록 했다.

사전 조사 진행, 한국 적응 어렵게 하는 것은 '편견'

팀원들은 이주청소년을 사회문화적으로 이해해보고자 사전 조사를 진행했다. 1-2주차에는 이주청소년의 범위와 한국에서 살아가며 느낄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주배경 청소년들을 생각할 때 흔히 다문화가정 청소년만을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포함해 외국인근로자 가정 자녀, 중도입국 청소년, 탈북 청소년, 그리고 제3국 출생의 북한 이탈 주민 자녀 모두가 이주배경 청소년들에 해당된다. 이뿐 아니라 국적이 한국이고 이중언어 교육이 이루어진 이들도 있어, 모두가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하거나 언어 장벽을 느끼는 것은 아니었다. 이주배경 청소년들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나 편견이 결국 이들의 한국 적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팀원들은 몽골에서 한국으로 오게 된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도와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에 재한몽골학교 학생실장과의 만남을 통해 몽골과 한국의 문화 차이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농경사회에서 출발한 한국과 달리 유목 사회에서 출발한 몽골은 문화적 유전자가 서로 달랐다. 또한, 몽골 이주 청소년 중에서는 부모님이 한국에 이주 노동자로 오면서 따라오게 된 경우가 있어 성장 배경에서 부모님과 떨어져서 지낸 기간이 있었다. 문화 차이로 인해 적응의 어려움을 겪는 몽골 학생들은 한국인과 가까이 지내며 친구가 되기보다는, 몽골인 커뮤니티와 어울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설명을 들으며 팀원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몽골 이주 청소년들이 한국 사회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몽골 학생들과 똑심 한강공원, 창경궁 찾아

팀원들은 몽골 학생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 똑심 한강공원에서 만나 어색한 분위기를 풀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모두가 빠짐없이 참석해주고 즐기는 모습을 보여서 좋았던 한편, 액티비티 위주가 아닌 대화 위주의 콘텐츠여서 생각했던 것만큼 활기차고 알차다는 느낌이 덜했다. 아쉬웠던 점을 보완해 창경궁 투어 일정을 기획했다. 한국의 전통 문화와 역사를 알려주고, 연극을 관람하기로 했다. 문화교류라는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의미미한 활동이지만, 혹여 학생들이 지루함을 느끼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앞섰다. 걱정과 달리 몽골 학생들은 처음 와보는 창경궁을 흥미로워했고, 연극 또한 감성을 자극하는 내용이라 모두가 즐기는 분위기였다.

함께 에버랜드에 가서 액티비티를 즐겼다. 놀이기구를 기다리면서 많은 이야기도 나눴다. 몽골 학생들은 자신의 고민을 적극적으로 나누는 모습을 보였고, 멘토들을 이전보다 한결 편안하게 대했다. 날이 추워서 체력적으로 힘들었고, 동선이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지만, 진정한 우정을 쌓을 수 있었던 기회였다.

매순간 진심으로 임했지만, 모든 일이 늘 성공적이지만은 않았다. 오히려 어렵고 고민스러운 순간이 더 많았다. 이따금 학생들의 호응이 적거나 시간에 쫓겨 계획했던 활동을 모두 끝마치지 못할 때면 큰 도움을 주는 멘토가 되지 못했다는 생각에 자책하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팀원들은 “아이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좋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다”는 처음의 마음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김서현 학생은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으로 배구와 스케이트를 꼽는다. 몽골 학생들이 원했던 활동이었기 때문이라고.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서로 높임말을 쓰던 아이들이 이제는 언니 오빠라는 편한 호칭으로 불려오고, 함께 살을 맞대며 운동을 하는 사이가 된 것이 놀라우면서도 뿌듯했다고 전했다.

강채원 학생은 “이 경험은 단순히 멘티 친구들이 한국에 적응하게 도와주는 프로젝트로 그치지 않았다”라며 “서로에게 다른 문화권을 가진 친구가 되어주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방법을 배우며 세계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활동 소감을 밝혔다. 일방향적으로 도움을 건네주는 시혜적 관계가 아닌, 서로 가르침을 주고받는 동등한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한 결과다.



팀원들은 몽골 학생들과 똑심 한강공원을 찾아 이야기를 나누고, 에버랜드에 가서 액티비티를 즐기며 우정을 쌓았다.

“불평등은 참아도 불공정은 못 참는 한국사회”

한국의 능력주의와 공정 담론을 파고들다

참여 학생

조영우 경제학과 16학번

조윤재 지리학과 18학번

조형욱 경제학과 16학번

전여진 자율전공학부 19학번

전수민 영어영문학과 20학번

법과 정치, 미디어와 철학, 서로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능력주의 관련 서적 읽고 토론 진행, 다양각색 다채로운 연구논문 작성

“불평등은 참아도 불공정은 못 참는 한국사회”. 작가 박권일이 한국의 능력주의에 대해 남긴 말이다. 과정이 ‘공정’했다면 결과에 따라 차등 대우를 받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는 반면, 출발선이 다르거나 한쪽이 유리한 과정이었다면 크게 반발하는 한국 사회의 모습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능력주의 논쟁에 불을 지핀 사건은 2016년 정유라 이화여자대학교 부정입학 사태였다. 국민들을 더욱 분노케 한 것은 해당 사안이 단일하고 이례적인 경우가 아닌, 사회 전체에 만연한 일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부터였다.

공정 담론을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고 학문적으로 파헤치고 싶었던 학생들이 있다. 조영우, 조윤재, 조형욱, 전여진, 전수민 학생 다섯 명은 능력주의와 공정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관련 서적을 함께 탐독하고, 각자 세부 주제를 정해 소논문을 작성해보기로 하였다. 매주 세미나를 통해 세 권의 사회학 도서를 읽고 토론하며 유사하거나 다른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각자 정한 소논문 주제와 목차를 가져와 상호 피드백을 진행했으며, 매주 모여 소논문의 진행 상황을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하거나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능력주의>, <공정하다는 착각> 등 사회학 분야 고전 탐독

연구보고서 주제 선정에 앞서 이론적 배경과 주요 담론을 공부했다. 팀원들은 능력주의를 다루는 텍스트를 선정했고, 매주 만나 가벼운 독후 후기를 나누고 심층적인 토론을 진행했다. 공동으로 읽어야 하는 책은 마이클 영 『능력주의』, 마이클 샌델 『공정하다는 착각』, 발터 샤이델 『불평등의 역사』. 사회학 분야의 고전으로 알려진 책을 읽으면서 현재 한국 사회에 적용해보기도 하고, 논문 주제를 구체화해나갔다. 관련 논문을 함께 읽기도 했다. 외국 서적을 많이 읽은 만큼 한국에서 발행된 논문을 주로 찾아 읽으며 균형감각을 잃지 않고자 했다. 특히 장은주의 『정치적 능력주의와 민주공화국』(시민과 세계, 2021)을 읽으며 민주주의와 능력주의 관계를 생각해보고 민주주의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명호의 『한국사회의 공정과 능력주의 담론 다시 보기: 사회정의(사회복지 가치)의 관점에서』(사회사상과 문화, 2021)를 읽으며 능력주의를 둘러싼 사람들의 입체적

이고도 복합적인 인식을 확인했다.

팀원들은 각자 능력주의와 연관지어 볼 수 있는 사회 현상 혹은 학문적 이론을 선택했고, 이를 바탕으로 논문 작성 방향을 정했다. 격주로 진행된 교수님과의 미팅에서는 논문 주제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다. 첫 미팅 때 공통적으로 받았던 피드백은 주제가 더욱 예각화되어야 한다는 것. 보다 실효성 있고 유의미한 탐구가 되기 위해서는 넓고 원론적인 이야기보다 좁고 구체적인 문제를 다루어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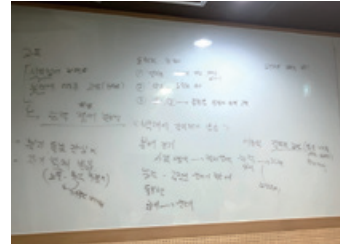
한국 사회의 공정과 미래에 관한 논의 담은 논문 작성

능력주의와 공정담론이라는 큰 키워드에서 출발하되, 서로 다른 분야와 결합하여 여러 각도에서 문제를 바라보고자 했다. 그렇게 12주간의 세미나 과정을 거쳐 다양각색의 논문 다섯 편이 완성되었다. 『위장된 신분제로서의 능력주의』는 일종의 사례연구 보고서다. 한국 사회 속 능력주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난 사례를 살펴보고 능력주의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전개하였다. 그런가 하면 『한국 사회의 교육 속 능력주의: 헌법조항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중심으로』는 교육과 입시, 시험과 공채 등 사람을 교육하고 평가하며 선발하는 일련의 과정과 관련된 법률을 살피고, 판례가 갖는 사회적 함의를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춘다. 특히, 과정이 공평하고 평가가 공정했음에도 출발선이 달라 공교육과 개인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좁힐 수 없는 간극이 무엇인지를 탐구하고, 이와 같은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광고로 살펴보는 능력주의의 공백』은 미디어, 특히 광고에서 능력주의를 직간접적으로 주입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복지’의 영역을 개인의 영역으로 미루고, 현대인의 과도한 ‘자기착취’를 부추기는 대표적인 광고를 소개함으로써 미디어 동향을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동질성 정치』에서 ‘차이의 정치’로: 아이리스 마리온 영의 정의론을 중심으로 본 한국 청년세대의 능력주의 포퓰리즘』은 실질적 사례보다는 이론 사회학을 기반으로 한국의 능력주의 포퓰리즘 양상을 비판하는 논문이다. 한국 정치권이 ‘구조적 차별’에서 ‘차이의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는 미래지향적 제언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능력주의 비판 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를 중심으로』는 구체적인 하나의 사례를 파헤치는 사례연구로, 현재 능력주의 담론이 문제 제기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능력주의에 대한 비판 담론이 규범적 연구에서 나아가 현실밀착적인 원인 분석과 생산적 담론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한국 사회에서 능력주의가 지니는 중요도와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건설적인 논의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데에 팀원들은 의견을 모았다. 지도를 맡은 김윤철 교수는 기존 교과 내용에서 한 단계 나아갔을 뿐 아니라 대학원생에 버금가는 학습 및 연구 역량을 발휘했다며 학생들의 놀라운 성장에 박수를 보냈다. 학생들 스스로 정한 연구 주제가 시의적절했으며, 연구 결과 또한 유의미하여 앞으로 논문 투고 및 언론 기고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아낌없는 격려도 덧붙였다.



<정치의 인문학적 탐색> 수강생을 주축으로 꾸려진 연구팀은 지도교수인 김윤철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와 함께 공정 담론을 다각도로 조명했다.

“왜 이런 일을 하세요?”

커피 팔지 않는 찻집 ‘녹원’의 이야기를 듣다

참여 학생

김수혁 자율전공학부 16학번

오재원 외식경영학과 16학번

이현우 경영학과 17학번

조규영 미디어학과 21학번

김동현 미디어학과 21학번

회기동 로컬 커뮤니티 취재 후 다큐멘터리 제작 무임금으로 운영하는 비영리 찻집의 선한 영향력 조명

“녹원은 여행과 같아요.” 커피를 팔지 않는 찻집 ‘녹원’에서 일 년간 일했던 이지영 씨의 이야기다. 이곳에서 일하는 파트타임 직원들은 무임금으로 차를 만들고 대접한다. 그들에게는 ‘녹원’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 녹원은 단순히 음료를 파는 카페가 아닌 하나의 지역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이곳 녹원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함께 꿈과 미래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며, 자체 프로젝트를 꾸리며 하나의 팀처럼 움직이기도 하고, 차를 판매하고 생긴 수익금을 기부하며 사회에 환원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회기동에 있는 작은 여행지, ‘녹원’만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싶어서 모인 학생들이 있다. 김수혁(자율전공학부 16학번), 오재원(외식경영학과 16학번), 이현우(경영학과 17학번), 조규영(미디어학과 21학번), 김동현(미디어학과 21학번) 다섯 학생은 ‘지역사회 커뮤니티 스토리 탐색 및 다큐멘터리 제작’을 테마로 독립연구를 설계했다. 직접 녹원의 역대 구성원들을 찾아가 인터뷰를 진행하고, 스토리보드를 제작하기로 했다. 완성한 다큐멘터를 배급하는 상영회를 엮으려서 보다 많은 사람에게 녹원의 가치를 전달하는 것을 최종 목적지로 삼았다.

‘WHY’라는 질문으로 시작된 여정

처음 학교 주변에 이와 같은 무임금 비영리 가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떠오른 질문은 ‘왜’였다. 구성원들은 무엇을 추구하며, 무슨 생각으로 ‘녹원’과 함께 하고 있을까. 도대체 왜. 이 질문은 독립연구 프로젝트의 시작점이 됐다. 녹원이 처음부터 지금의 모습이었던 것은 아니다. 한때 대학가에 카페가 우후죽순 생기며,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자취를 감추기도 했다. 2018년, 회기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공간을 다시 일으켜 세워보자는 취지에서 경희대와 한국외대, 시립대 세 학교의 학생들이 나섰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녹원은, 대학생들에 의해 자치적으로 운영 및 유지되고 있다.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부분도 학생 운영진이 회의를 통해 결정하며 개선해나간다.

무임금 운영에 수익금 전액 사회 환원까지, 대학생끼리 꾸려나가기에 금전적 어려움은 없을까? 팀원들은 운영진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녹원의 진짜 이야기를 들

어보기로 했다. <다큐 3일>의 방식을 차용하여 현재 직원 3명 및 졸업생, 사장님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현재 근무중인 구성원의 경우 영상 인터뷰를 진행했고, 졸업생을 대상으로는 구글폼으로 사전 작성한 인터뷰지를 배포 후, 추가 질문을 통해 개별적인 사연과 이야기를 끌어내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1년 7개월간 녹원에 몸담았던 손호지 씨는 “녹원은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말한다. 진실하게 임한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최선의 가치를 찾아 시간과 목소리를 아끼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2년간 일했던 정수연 씨는 “이곳에 몰입하게 된 것은 더 나은 세상과 사회를 위해 움직이는 청년들이 결국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시점”이라며 기억을 되짚었다.

녹원을 거쳐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들이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무임금 활동을 견딜 수 있게 만들었던 이유는 대체로 결과보다 과정을 중심으로 움직였다는 데 있다는 걸 알게 됐다. 물론 어려움도 있었다. 사업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각종 금전적 비용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좋은 재료를 엄선해 고객에 제공하고, 수익금조차도 사회에 환원하기 때문에 늘 매장 유지비의 압박이 뒤따랐다. 그럼에도 이들은 녹원의 일원이 된 것을 후회한 적이 없었다고 했다. 결과 중심적인 사회의 흐름을 거슬러 어떠한 물질적 보상도 없는 이곳을 택한 선택 덕에 이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값진 경험을 품에 안을 수 있었다.

다큐멘터리 촬영과 배급 통해 ‘녹원’만의 매력 알리기 위해 노력

팀원들은 짧고 강렬한 영상 속에 녹원만의 매력을 담기 위해 기획하고 촬영을 이어나갔다. 가장 먼저 녹원의 특징을 잘 보여줄 수 있는 15초 분량의 짧은 숏들과 함께 오디오 인터뷰를 진행한 사람들의 목소리로 영상의 포문을 열었다. 다음으로 경희대 주변 거리를 촬영하고 녹원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모습을 담으며 녹원이란 어떤 곳인지 소개했다. 이곳을 이용해온, 혹은 앞으로 이용하게 될 학생들을 대표해 녹원에 “왜 이런 일을 하세요?”라는 질문을 던졌고, 사장님의 답변을 들려주었다. 녹원이 무임금으로 운영된다는 사실과 더불어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각기 다른 이유로 이곳에 모였다는 내용을 담았다.

뒤이어 <다큐 3일> 방식의 인터뷰 영상을 삽입했다. 직원 3명과 졸업생, 사장님의 인터뷰를 재생해 개개인의 입장과 사연을 세세하게 보여주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이곳에서 배운 가치를 사회에서도 실천하는 녹원 구성원의 모습을 조명하며, 녹원이 또 다른 대학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이렇게 완성된 다큐멘터리는 추가 촬영과 편집, 기술적인 보완을 통해 최종 편집을 거쳐 완성되었으며, 12월 중에 상영회를 열어 더 많은 사람에게 가닿을 수 있도록 했다.

후마니타스칼리지의 우대식 교수는 다큐멘터리 기획부터 편집,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수정 작업 전반에 걸쳐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녹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학생들의 스토리를 담아내어 흥미로운 결과물이 탄생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다큐멘터리 자체의 완성도와 재미를 넘어) 지역 커뮤니티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게 된 유의미한 기회였다”고 지도 소감을 남겼다.



팀원들은 무임금 비영리 카페인 ‘녹원’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제작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녹원의 가치를 알리고자 했다.

‘무더위 쉼터’ 통해 노인들 폭염 노출 막는다

GIS 활용한 폭염 취약지역 파악과 복지시설 개선 프로젝트

참여 학생

- 김완태 지리학과 18학번
- 김준영 지리학과 19학번
- 반준형 지리학과 18학번
- 신지민 지리학과 18학번
- 이현석 지리학과 19학번

GIS 및 공간 빅데이터 활용해 무더위 취약지역 분석 향후 사회복지시설 입지 제안에 큰 도움 될 것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있다. 여름철 폭염은 매년 강도와 빈도가 높아지고, 건강 이상을 호소하는 이들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2060년에는 지금보다 약 3-4°C가량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름철 폭염에 가장 취약한 계층은 고령층이다. 다른 인구집단에 비해 기저질환을 갖고 있거나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폭염 취약 계층인 노인 인구를 위해 ‘무더위 쉼터’를 제공하기도 했다. 2021년에 1,261개소였던 쉼터는 2022년 기준 4,038개소로 무려 3.2배나 늘어났다. 하지만 아직도 모든 노인을 수용할 만큼은 아니다. 이용 범위도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완태, 김준영, 반준형, 신지민, 이현석 다섯 명이 뭉쳤다. 모두 지리학과로만 구성된 연구팀은 위치 기반 분석 프로그램인 GIS를 활용해 열 분포도를 파악하고 무더위 쉼터의 위치뿐 아니라 쉼터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노인 인구의 분포지역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사각지대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보기로 했다.

낙후된 주거 지역 파악 및 열 분포도 제작, 복지 사각지대 찾는다

‘무더위 쉼터’란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장소를 일컫는 말로, 경로당과 주민센터, 병원과 은행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냉방비 지출에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과 단열성이 낮은 노후 주택 거주자들이 잠시 더위를 피해 갈 수 있는 피난처 역할을 한다. 팀원들은 먼저 노년층의 거주 분포를 알아보고, 무더위 쉼터에의 접근성이 양호하거나 부족한지 조사해보기로 했다. 연구는 크게 낙후된 주거 지역 파악과 지역별 여름철 최고 기온을 나타낸 열 분포도 제작으로 이루어졌다. 가장 먼저 낙후된 주거 지역을 찾기 위해 여러 데이터를 결합하는 중첩 분석 방식을 방법론으로 채택했다. 하나의 지도 안에 열 분포도와 노후 주택 분포, 무더위 쉼터로의 접근성을 모두 반영해 복지 사각지대를 찾기 위한 시도였다.

가장 먼저, 공간적 범위를 서울특별시로 한정했다. 공간 분석 단위는 자치

구로 설정했다. 먼저 인구 파악을 위해 국토정보플랫폼을 활용하여 일정 범위(100*100m)별 65세 이상 노인 인구 수를 벡터 데이터의 형태로 취득했다. 이렇게 얻은 데이터를 자치구 단위로 나누어 서울시 지도 안에 표시했다. 다음으로 국가공간정보포털을 활용해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의 분포를 역시 벡터 데이터의 형태로 취득했다. 노인 인구와 노후 주택 각각의 분포 데이터를 중첩하면, 가장 낙후된 지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다. 여름철 무더위 피해가 큰 지역을 살펴 보았다. 열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이용, 지표 온도, 즉 ‘Land Surface Temperature(이하 LST)’를 측정했다. LST값을 보다 정확히 추출하기 위해 Landsat 9 위성 영상을 사용했다. 팀원들은 이렇게 관측한 열 분포도를 알고리즘 모식도 형태로 정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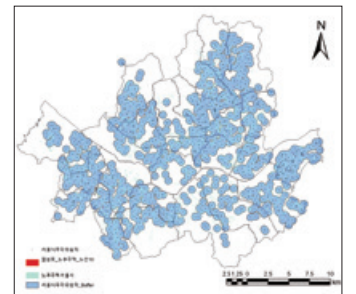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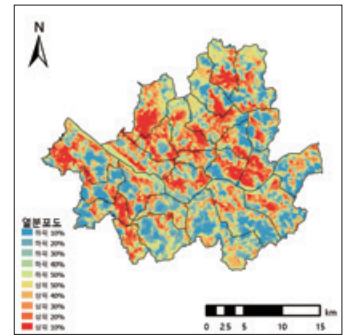
두 데이터를 바탕으로 팀원들은 열 분포가 높고 노후 주택이 많으면서도 주변 쉼터 시설로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선정했다. 노인의 보행 속도를 고려해 집에서 무더위 쉼터 사이의 거리가 440m 이내이면 접근이 용이한 지역으로 보았다. 반대로 쉼터가 해당 범위 밖에 있거나 아예 없는 경우 무더위 쉼터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으로 해석했다. 서울시 무더위 쉼터 취약지역 분석 결과, 은평구 불광동 불광역 남동 450m 부근, 영등포구 도림동 신도림역 동쪽 950m 부근, 도봉구 창동 쌍문역 남동쪽 330m 부근, 그리고 중랑구 상봉동 상봉역 남동쪽 270m 부근이 낙후된 주거 환경과 부족한 복지시설로 인해 신음하고 있었다.

불광·영등포·신도림·쌍문, 무더위 쉼터 추가 증축 필요 지역

취약지역 네 곳은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이 밀집된 노후 주거지역이었다. 특히 불광역 북부 지역은 현재 건물 다수가 불광5구역 재개발 사업에 포함됐을 정도로 무더위 쉼터는 물론 다양한 복지시설이 부족한, 그야말로 복지 사각지대였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차량 두 대가 동시에 통과하기 어려울 정도로 협소한 도로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과거에 조성된 ‘구도심’의 대표적 특성이다. 여름철 폭염 피해와는 큰 관련이 없지만, 온열질환자 발생 시 구급차의 신속한 이송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다른 시설에 비해 유독 노인을 위한 복지 및 편의시설이 적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각 지역에는 초등학교와 근린공원 등의 기반 시설이 어느 정도 구축돼 있는 반면 무더위 쉼터는 설치돼 있지 않다. 폭염에 취약한 고령의 거주민에 대한 배려와 지원이 부족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기존에 있던 공공시설의 개방 시간을 늘리는 것이 있다.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운영 시간 외 탄력적 개방 정책을 시행한다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저녁에도 고온의 주택에서 잠시 벗어나 자유롭게 방문하여 더위를 피할 수 있다.

팀원들은 차후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더위 쉼터의 존재를 알리고, 시설 사용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홍보 활동도 꾸준히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LST를 통해 제작한 서울특별시 열 분포도(그림 위) 무더위 쉼터 버퍼(440m)를 통한 취약지역 분석 지도(그림 아래)

동경은 참 이상해

권규린
경제학과 22학번

● 2022학년도 2학기 <성찰과 표현> 수강생이 '나를 움직인 말 한마디'를 주제로 쓴 글이다.

나는 되게 멋있고, 능력 있고, 똑똑하고, 야망 있는 그런 여자들을 좋아한다. 스무 살 겨울이었나, 아마 두 번째 입시를 실패하고서부터 이런 멋있는 언니들을 향한 막연한 동경이 시작되었던 것 같다. 주어진 하루를 알차게 보내고, 본인 몫의 일을 척척 해내고, 할 일이 끝난 저녁엔 좋아하는 사람들과 멋진 곳에서 저녁을 먹고, 혼자 살기엔 큰 집에서 잠이 드는 그런 평범한 듯 완벽한 삶이 부러웠다. 내가 그러지 못한 현실에 처해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며 자아의탁 비슷한 걸 했는지도 모른다.

그때 내 눈에 멋있었던 언니들을 보면 다들 눈이 빛났다. 눈빛이 살아있는 게 보였다. 꿈을 향한 노력이 보였다. 목표하는 바가 있으면 덤비고 보는 배짱과 원하는 삶에 '기투' 할 줄 아는 자세, 자기 인생을 사랑하고 베풀 줄 아는 마음까지도 모두 보였다. 멋있었다. 그래서 더 좋아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었다. 연속된 실패와 절망에 빠져있던 나에게 그 언니들의 인생을 엿보는 건 거의 구원이었다. 좌절은 잊고 나도 그렇게 반짝이게 살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좋아하던 언니의 변호사 시험 합격 소식이 들렸을 때 처음으로 블로그에 댓글을 남겼다. 축하한다는 말과 더불어 '나도 언니처럼 살고 싶어요.'라고. 댓글을 쓰는데 기분이 이상했다. 갑자기 나도 저 댓글을 받는 주인공이 되고 싶었다. 묘했다. 입시하면서 수백 개의 공부 명언을 봤어도 이런 울림은 없었다. 나는 이 순간부터 새로운 삶을 살게 되겠구나 하고 느꼈다. 그날을 기점으로 다시 수능 공부를 시작했다. 포기하고 싶을 땐 그 말을 되새겼다. 꼭 나도 누군가가 바라는 삶을 살아야지 하고.

그렇게 나를 만족할 만한 대학에 왔다. 스물셋에 입학은 좀 늦지 않았냐는 말도 종종 듣는다. 그럴 때마다 들고 돌아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나만의 영웅을 생각한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또 힘이 난다. 올해 대학에 오니까 좀 구체적인 목표가 생겼다. 꿈꾸던 미래에 도달해 나처럼 좀 늦은 사람들에게 용기가 되는 사람이 되어야지, 늦었지만 우린 아직 젊으니까라며 위로를 건네는 사람이어야지, 혹은 '재도 하는데 내가 왜 안돼?'의 재가 되어야지 하는 목표.

동경이란 감정은 참 이상하다. 일반적인 사랑과는 다르다. 가장 깨끗하고 순수한 형태의 사랑만을 모아놓은 감정 같다. 미움과 질투는 없고 존경, 사랑, 선망 등 예쁜 마음만이 온데 섞인 감정. 상대가 한없이 잘됐으면 좋겠다가도 부러워지고 멋있어보이다가도 또 대단해보이게 한다. 그 마음 덕분에 자꾸만 덩달아 열심히 살고 싶은 마음이 든다.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이고 싶게 만든다. 세상에 나 같은 애들이 또 있다고 하면, 내가 그들의 작은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인생이었으면 한다. 아주 거창한 동경의 대상까진 아니더라도 누군가의 용기가 되고 싶다. 이 마음은 더 잘 살고 싶은 의지를 다지게 한다. 그렇게 문득 떠올린 말은 평생의 다짐이 된다.

할머니의 모순

이동윤
철학과 22학번

● 2022학년도 2학기 <성찰과 표현> 수강생이 '잊을 수 없는 음식'을 주제로 쓴 글이다.

10월 중순, 늦게나마 스미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이맘때쯤 길거리에 봉어빵 트럭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숲길을 거닐다 보면 맛있게 익은 밤도 밭치에 굴러다니고요.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도 가을만 되면 다른 것보다 몹시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된장찌개 그거입니다.

제 일곱 살 시절 우리 가족은 큰집을 그렇게나 드나들었습니다. 고양에서 안산까지 차로 꼬박 한 시간이 넘는 길을 매 주말 오가며... 우리 가족은 꼬박 7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할머니께선 제가 가면 큰 손 한가득 음식을 만들어주셨습니다. 매주 밥상에서 빠지는 법이 없던 갈비찜, 가끔 잊을 만하면 올라오는 잡채, 후식으로 깎아주시던 참외까지. 주말마다 큰집에서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께서 편찮으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끝도 없이 증식하는 끔찍한 덩어리가 할머니의 몸 안에 자리 잡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가 봐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었습니다. 어렸던 전 사촌 형과 놀고 싶은 마음에 빨리 나가자고 자꾸만 어리광을 부렸습니다. 도착한 곳은 난생처음 보는 대학병원이었습니다. 그날은 사촌 형을 만날 수 없었고, 이후 저희는 큰집보다 병원에 더 많이 가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선 차오른 복수를 빼내느라 많이 수척해진 얼굴이셨습니다. 몹시도 빨리 생기를 잃어가셨습니다. 너무나도 빨리 순식간에 아빠와 큰아빠는 이별을 준비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두가 울었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정말이지 세상이 멀리 떠나갈 정도로 평평 울었습니다. 저는 모두를 따라 울다가 잠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해 가을, 저는 할머니를 할머니 집에서 뵈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당신의 삶에 마침표를 찍을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점심시간에 엄마와 단둘이 찾아온 저에게 할머니께선 지금은 마땅히 낼 것이 없다며 된장찌개를 끓이셨습니다. 파를 송송 썰며, 소금을 뿌리며,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라 하기엔 지나치게 생기로운 손짓으로 막 요리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엄마와 저는 식탁에 앉아 할머니의 된장찌개를 다 먹고는 몇 시간 뒤 집에 갔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그날 먹었던 된장찌개의 맛이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맛있었는지, 맛이 없었는지까지도요. 할머니의 갈비찜, 잡채는 무척이나 맛있던 것이 기억나는데도 말입니다. 할머니께서는 된장찌개를 끓이시며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죽어가는 몸을 이끌어 손주 놀 줄 음식을 하시며 할머니께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다 가져가는 사람이 어린것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며, 할머니께선 과연 행복하셨을까요? 아직도 도무지 기억이 나지를 않는 그 음식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할머니의 된장찌개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었을까요?

그래도 다시 한번

염지원
미디어학과 22학번

● 2022년 후마니타스 글쓰기의 날 백일장
대상 수상작

땀이 줄줄 흘렀다. 빨갛게 익어버린 손과 얼굴은 더 이상 선크림을 흡수하지 못하고 그대로 텅겨냈다. 통통 불은 발바닥에는 커다란 물집이 잡혀 있었고, 발등에는 화상 연고가 치덕치덕 발려 붕대로 동여매졌다. 그런데도 정신만은 이상하리만치 맑고 쾌청했다. 해가 짹짹 내리쬐는 7월 제주도의 순례길을 걸으며 이보다 뿌듯할 수가 없었다. 1학기 내내 비대면 수업만을 수강하며 학교의 외딴 섬이 되었던 터라 학교 행사가 있으면 어떻게든 참여하겠다고 버르던 차에 마침 코로나 극복 기원 제주도 순례 프로그램이 열렸다. 면접까지 통과해 가까스로 온 제주도는 고단하고, 아름답고, 무더운 천국이자 지옥이었다.

바다를 굉장히 좋아하는지라 풍경만 둘러보면 이곳은 분명 천국이였다. 그러나 하루에 수십 킬로미터씩을 걷기 시작하니 점차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가 헛갈렸다. 그렇지만 나는 분명 행복했다. 내딛는 모든 걸음이 곧 극복이요, 성취였다. 사실 나는 그리 성실하지 못하다. 다양한 일에 손대기 좋아하는 만큼 포기도 빨랐다. 무작정 뛰어들었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다고 잼나게 도망친 적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다. 포기하기 전문가였던 내가 그만두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주저앉아 울상을 짓고 있으면 조원들이 하나둘 손을 뻗어 일으켜줬다. 그 믿음에 힘입어 아픈 다리가 후들거려도 다시 걷게 됐다. 그래서 배웠다. 중요한 건,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포기했다가도 다시 일어나리란 의지였다. 도저히 못하겠다고 드러누워 울어도 보고, 안 하겠다고 때를 쓰다가도 그래도 해야지, 하며 몸을 일으키는 마음이었다. 무슨 일이든 악착같이 해내겠다고 달려들던 사람들도 한 번쯤은 실패를 겪는다. 그래도 괜찮다. 실컷 속상해하고, 전부 포기하겠노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 뒤에 천연덕스럽게 다시 일어나면 된다.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뚜벅뚜벅 걷다 보면 상쾌한 바람이, 아름다운 바다가, 꼭 잡아주는 친구의 손이 내가 가는 길에 언제나 함께하고 있으니깐. 그렇게 되면 까맣게 타버린 손이나 허물이 일어나는 팔도 물집 잡힌 발도 모두 훈장처럼 느껴진다. 바로 내가 제주도에서 그랬듯이.

지금껏 우리는 포기하지 말라는 말만을 듣고 살아왔다. 그래서 나는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에 말해주고 싶다. 포기하면 좀 어때. 때로는 포기해도 결국에는 다시 일어나 걷기만 하면 된다. 인생이라는 것도 어쨌든 온 생애를 통틀어 걷는 순례길이니 말이다. 가끔 주저앉는 것이 더 잘 걷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대학에 들어와 몸소 체득한 가치였다. 기억해야 하는 것은 다만 잘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기력으로 곧장 잠수하는 것이 아니라, 몇 보의 전진을 위한 일 보 후퇴가 되어야 한다는 것. 힘들어도 다시 한번. 그렇게 걷다 보면 결국 목적지가 보인다. 남은 건 멋진 수료증을 받아드는 일뿐이다.

미래를 기억하는 태도로 이 순간을 살자

손영주
경영학과 19학번

● 2022년 후마니타스 글쓰기의 날
백일장 금상 수상작
● 김연수 소설가의 『이토록 평범한 미래』
(문학동네, 2022)를 읽고 쓴 서평이다.

‘기억하다’는 동사를 미래에 붙인다니, 감히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다. 아니, 오히려 문맥에 맞지 않는 문장이라고 생각했다. 도대체 경험해보지도 못한 미래를 기억하라는 게 무슨 말인지, 그것도 평범한 미래를 기억하라고 외치는 작가의 주장은 처음부터 내게 와닿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에는 내게 그렇게 위로가 되는 문장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책에 실린 8편의 단편에는 동반자살을 하자고 이야기했던 지민과 나의 사랑, 죽은 아들을 향한 엄마의 사랑, 죽은 아내를 향한 사랑, 헤어진 연인에 대한 사랑 등 아픈 과거의 시간과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 죽고 싶을 만큼 힘들고 아픈 과거를 가진, 그렇지만 삶을 포기하지 않은 주인공들이 평범한 미래를 향해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모습이 나온다. 과거에 주인공들이 겪었던 괴로운 기억들은 현재에선 지나간 일로 존재하고 그들은 평범한 미래를 향해 삶을 이어간다.

책의 주인공들을 보고 작가가 던지는 메시지를 깨달았다. 삶이 지치고 힘들어서 절망감, 좌절감, 무기력증에 빠질 때 과거가 아닌 미래를 떠올리자. 특별하고 화려한 미래가 아니라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고, 낮잠을 자고, 친구랑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보내는 그런 평범한 순간, 미래를 말이다. 그리고 ‘평범하다’는 수식어가 결코 보잘것없고 소중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도 느꼈다.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내 삶에 부재한다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허함과 상실감, 그리고 우울이 뒤따라올 것이다. 평범한 미래가 있어야 현재의 내가 존재한다는 생각이 밀려들었다.

미래를 기억하는 행위는 실로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 앞으로의 인생이 영영 내리막길일 것 같은 비판에 휩싸일 때면 더더욱 그렇다. 나는 현재 4학년이다. 지난 학기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휴학계를 냈다. 계속되는 취업난과 해가 갈수록 드는 나이, 늘어나는 책임감, 그리고 취업하는 친구들까지. 이것들은 내 불안을 돋우었다. 나는 휴학을 하고 전문직 시험에 매진했다. 전공과 무관한 시험이라 공부가 좀처럼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 공부했다. 결과는 불합격. 휴학하고 나서 공부만 했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는 생각에 절망했다. 같은 시험을 내년에도 재도전해보고 싶지만 또 다시 실패를 맛볼까 봐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었다. 이 책을 접하기 전까지만 해도 말이다. 나는 이 책을 통해 고비를 넘기면 찾아오는 희망인 ‘세컨드 윈드’를 유념하며 어떤 상황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을 계속해나아가라는 위로를 받았다. 나는 평범한 미래를 기억하며 내년 시험에 다시 도전해보고자 한다.

책의 한 구절을 빌려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달까지 걸어갈 수는 없어도, 달까지 걸어가는 사람인 양 걸어갈 수는 있으니 미래를 기억하는 태도로 지금 이 순간을,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보자.

“함께 읽고 함께 변화한다” 책과 함께 성숙하는 ‘아레테’

학생 제안으로 탄생, 경희 대표 자치기구로 성장
공모전·문화 활동, 다양하게 책을 즐긴다



아레테(Arete)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학습공동체를 결성해 운영하는 경희의 대표적인 자치기구다. 2012년 중핵교과를 수강하며 인간의 존재와 가치 문제에 눈을 뜬 학생의 제안으로 탄생했다. 후마니타스들은 아레테를 통해 강의실 안에 머물지 않는 살아있는 교육을 실현하고, 새로운 사고와 적응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고 있다.

아레테는 고대 그리스어로 탁월성(Excellence)을 의미한다. 구두장이의 아레테는 최고의 구두를 만드는 것, 대장장이의 아레테는 단단한 철을 능숙히 다루는 것이다.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인간이도록 만드는 최고의 아레테를 ‘좋은 것, 즉 선’을 추구하는 능력이라 말했다. 후마니타스칼리지는 이 ‘탁월성’을 교육 목표 중 하나로 삼고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교육을 이어나가고 있다.

“캠퍼스 간 제한 없다” 비대면 장점 살려

아레테는 후마니타스칼리지 산하 기관으로서 1년에 네 차례(1·2학기, 여름·겨울방학) 신입회원을 모집하고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다. 5~10명씩 구성된 팀은 최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토론 스터디를 한다. 방학 때는 학술 기행을 떠난다. 팀 단위를 넘어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감정을 공유하기 위해서다.

비정기적 프로그램으로 북 골든벨, 백일장, 에세이 공모전, 아레테의 밤 등을 진행한다. 학생들이 원하면 교수로 구성된 학습 지원 전문가 그룹이 상담하고 지원한다. 발제문, 리포트 등은 아카이브로 구축해 지식 공유 활성화에 기여한다. 아레테는 독서와 토론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관심이 많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학술 기행 등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워졌지만 학생들의 독서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았다. 2022년에는 비대면으로 아레테 활동을 이어나갔다. 세 가지 주제로 소모임이 결성됐다. ‘타인과 세상과 나’ 소모임은 <사람, 장소, 환대>(김현경, 문학과지성사, 2015), <타인의 고통>(수전 설택, 이후, 2007)을 함께 읽었다. ‘르포르타주’ 소모임은 스페를라나 알렉시예비치가 쓴 <체르노빌의 목소리>(새잎, 2011)와 밀턴 마이어의 <그들은 자신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했다>(갈라파고스, 2014)를 읽었다. ‘과학과 픽션’을 주제로 모인 학생들은 테드 창의 <당신 인생의 이야기>(엘리, 2020), 롤루 밀러의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곰출판, 2021),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소담, 2015)를 함께 읽었다. 비대면 활동의 아쉬움도 존재하지만 장점도 있다. 서울-국제캠퍼스 간 제한이 없어 더 다양한 학우와 의견을 나눌 수 있다.

깊이 읽고, 경청하고, 우정 쌓는다

‘깊이 있는 독서가 가능하다.’ ‘경청하는 방법을 배운다.’ ‘인문학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과 만날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이 말하는 아레테의 정체성이자 장점이다. 아레테에는 조원들 간 우정 어린 멘토·멘티 관계는 있지만 제도로서의 권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레테에서 이뤄지는 활동은 실제 수업 관련 독서와 구별 된다. 어떤 외적 동기가 독서를 강제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레테에서 후마니타스들은 정형화된 권장도서 목록에서 벗어나 다양한 독서 체험을 쌓는다. 순수하고 치열한 사유 행위를 통해 후마니타스들은 교양의 바다로 향한다.

대학과 학생을 잇는 소통 창구 후마 교육 방향 함께 모색

수업 환경부터 강의 방식까지 미비점 개선
공동체 문제 주목, 해결 방안 모색



후마니타스칼리지는 학생들과 함께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교육 방향을 모색한다. 그 중심에 대학생위원회가 있다. 대학생위원회는 학점 평가, 교재 내용, 기자재 등 수업 환경부터 강의 방식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대학에 직접 건의하거나 교수들과 협의해 미비점을 개선해 나간다. 교양수업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 학생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세계시민의 이상에 따라 사회와 공동체의 문제에 주목하고 해결을 시도한다.

경희대학교는 2010년, 대학생위원회를 발족해 후마니타스칼리지 설립 과정에서부터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2012년부터는 후마니타스칼리지 재학생들이 투표를 통해 위원장을 직접 선출하며 학생자치기구로서 명실상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학생주도형 배분·자유이수 창작 공모전 개최

대학생위원회의 대표적인 성과로 꼽히는 것이 ‘배움학점제’ 활성화다. 배움학점제는 학생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도입한 제도다. 학생들로부터 원하는 교양강좌를 신청받아 강사를 섭외하고 대학에 요청, 요건이 충족되면 강의를 개설할 수 있다. ‘자본주의뚝바로알기’, ‘즐거운연애행복한결혼’, ‘반려동물과동물권’ 등이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2022년 제14대 대학생위원회 ‘늘품’은 ‘학생주도형 배분·자유이수 창작 공모전’을 개최했다. 교과과정 구성에 학생이 참여함으로써 주제적이고 역동적인 학문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취지다. 배움학점제 교과와 달리 배분·자유이수 교과는 졸업에 필수적이기에 더욱 학생들의 요구가 반영된 강의가 신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출발했다.

공모전 참가자는 강의 개설의 필요성, 수업 개요, 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늘품은 “공모전 수상작이 실제 강의로 이어지면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며, 실제로 수업을 개설하고 내용을 구성하는 데 교수자가 쏟는 노력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교수진 심사와 학생 투표를 거쳐 ‘생활 속의 계약법’, ‘수어의 이해’, ‘내 손안의 사진학’, ‘무장애 환경에 대한 이해와 실천’, ‘퍼스널브랜딩’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생리대 나눔함 비치, 인권 세미나 등 지속 가능한 공동체 함께 모색

늘품은 성평등 사업의 일환으로 ‘생리대 나눔함 비치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생리대 나눔함을 비치해 생리대가 필요할 때는 가져가고, 여유가 있을 때는 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청운관과 중앙도서관, 호텔관광대학에 설치해 학생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Peace BAR Festival에 퀴즈 부스를 운영하며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하기도 했다. ‘강의실 너머 세계시민의 삶’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도 개최했다. 박진욱, 이지연 교수를 모시고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 인권, 이주민의 삶에 관해 이야기하며 인권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모색했다. 취창업위원회와 함께 연사초청 강연도 개최했다.

2023년에는 제15대 대학생위원회 ‘빈칸’이 후마스러운 교육문화를 이끌어나간다. 대학생위원회는 항상 열려 있다. 관심 있는 사람은 대의원 신청을 통해 대학생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SNS(인스타그램 @khu_hucalwe, 페이스북 페이지 ‘후마니타스칼리지 대학생위원회’)에서 소식을 받아볼 수 있다.

강의실 안의 예술교육 강의실 밖 축제로!

예술교과 학생과 지도교수 공동 기획·연출
공감 능력·관계성 재발견



후마니타스칼리지에서는 매년 특별한 ‘송년 파티’가 열린다. 후마니타스칼리지 예술교과 수강생들이 준비한 ‘Art+ 후마니타스 예술축전’이 그것이다. 예술축전은 음악, 미술, 무용 등 강의실 안의 예술교육을 밖으로 확장해 학습과 축제를 연결한다. 예술 관련 강의 수강생이 같고 닮은 기량을 뽐내며 전공의 경계를 넘어 공동체의 예술적 협업을 독려하고, 감수성을 다독이는 유의미한 장이 펼쳐진다.

공동체의 예술적 경험을 통한 감수성 회복

예술축전은 전시와 공연, 다양한 행사로 구성돼 있다. 학생들이 직접 만든 영화로 영화제를 개최해 호응을 얻기도 한다. 음악 관련 강의 수강생들은 직접 실내악을 연주하거나, 수업시간에 발표한 내용을 발췌해 엮은 영상을 선보이기도 한다. 음악과 영상, 내레이션이 어우러지는 종합 퍼포먼스다. 뿐만 아니라 기타 연주, 클래식, 댄스 음악으로 관객과 소통하는 시간도 가진다.

무용 관련 강의 수강생들은 국립현대무용단 등과 교류하는 내용을 영상으로 제작해 상영하기도 한다. 직접 춤추며 순간의 중요성과 무한경쟁 속 잊고 있던 꿈을 표현한다. 미술 관련 강의 수강생들은 직접 만든 작품을 선보이거나 벽화를 그려나가는 과정을 소개하며 역동적인 활동을 보여주기도 했다. ‘오케스트라의 오늘’, ‘우리 가락으로 만나는 세상’, ‘영화제작기초’, ‘무용예술과 상상력’, ‘공공미술 프로젝트’ 등 다양한 예술교과 수강생들이 참여한다.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아쉽게도 예술축전을 개최하지 못하고 있다. 2023년에는 예술교과 수강생들이 한 학기 동안 준비한 작품을 만날 수 있을 기대한다.

후마니타스칼리지 조은아 교수는 “예술교과는 감성의 성장, 감성의 발견을 중시한다. 후마에서는 당사자 입장에서 직접 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예술축전의 핵심은 전공의 경계를 허무는 공동체의 예술적 경험”이라며 “함께 소리 내어 읊을 맞추고, 몸을 움직여 합을 이룰 때 예술활동을 통한 감수성을 찾을 수 있다”고 후마 예술교과와 예술축전의 특성에 대해 강조했다.

인문·실용을 기반으로 품격 있는 예술교육 구현

예술축전의 의의는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인문과 실용을 기반으로 품격 있는 예술교육을 구현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몸과 마음, 즉 ‘지성’과 ‘감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 진정한 성인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둘째, 교수와 학생 간 교감·소통의 장으로서 교육 효과 및 교수법을 새로운 차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친밀하고 깊이 있는 사제 간의 정도 느낄 수 있다.

셋째, 교수와 학생이 머리를 맞대어 공연을 기획·연출하고, 지역주민을 초대해 모두가 화합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학과 지역사회가 새롭게 소통하는 채널을 구축함으로써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확대한다는 데 또 다른 의의가 있다.

전시와 공연은 기획에서부터 마무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개인이 아니라 참여자 모두가 공감과 협동을 이뤄내야만 가능하다. 학생들은 작품의 완성도를 추구하는 것 못지않게 타인과 함께하는 과정에서 공감 능력과 관계성을 재발견하게 된다. 후마니타스칼리지가 예술 및 체육 교과에 남다른 관심을 갖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경희인과 세계시민 의식 함께 일깨운 축제 세계평화의 날 맞아 평화 위한 교육 실천·활동 다짐

“신기후 체제 달성을 위한 평화적 논의의 장 마련해야”
세계시민부스, 평화 시네마 토크, 학술 대회 등 개최



“우리의 미래, 모두를 위한 길!” 2022년 9월 20일(화) 서울캠퍼스 청운관 앞마당에서 진행된 후마니타스칼리지 세계평화주간 개회식에서 평화를 기원하는 염원이 울려 퍼졌다. 개회식을 시발점으로 다양한 문화 및 학술 행사가 캠퍼스 곳곳에서 열렸다. 미래세대의 주역인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 메시지의 필요성과 인류 문명의 평화로운 미래를 위한 관심을 호소했다.

개회식에서는 ‘경희와 세계평화교육’을 주제로 후마의 교육성과를 되짚고, 세계평화를 위한 교육 실천과 활동을 다짐했다. 세계평화주간 개회식은 세계평화의 날 소개와 기념사, 세계평화주간 선포문 낭독, 오케스트라 동아리 MDOP의 기념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미래세대의 미래를 빼앗는 지금, 개선의 길 찾아야

후마 대학생위원회 홍소정(국제통상·금융투자학부 21학번) 위원장은 “경희가 꿈꾸는 문화세계의 창조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사람을 위한 세상을 의미한다. 이런 노력이 모여 세계평화의 날과 해 제정이라는 열매를 맺었다”라며 “후마는 세계시민을 양성하는 교육과 실천의 장이다. 후마는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정복철 부학장은 전환 문명기 인류의 위기를 소개하며 기념사를 시작했다. 정 부학장은 “어른들이 미래세대의 미래를 빼앗는 지금, 우리는 개선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후마는 고등교육의 책무를 짊어지고 평화적 논의를 위한 장을 열고 있다. 평화에 대한 경희의 노력과 책무를 유지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세계평화주간을 선포한다”며

“모든 경희인과 세계시민의 의식을 일깨우는 축제”라고 그 의미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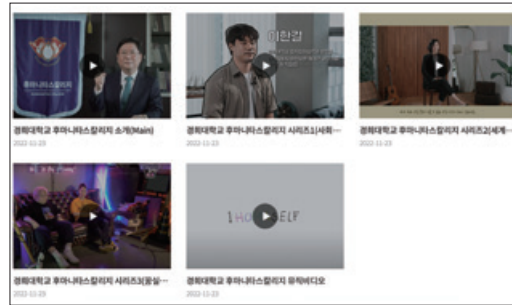
봉건우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은 세계평화주간 선포문을 낭독하며 전 인류가 직면한 위기 상황 속 고등교육의 책무를 강조했다. 그는 고등교육이 평화 역량을 증진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 기술을 가르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세계평화주간은 평화를 화두로 고등교육의 과거와 현재를 반성하고 미래를 모색하는 시간”이라며 “국내외 고등교육 종사자와 토론하고 뜻을 모아, 평화를 갈구하고 고등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이들과 함께 외침 시간이다”라고 말했다.

선포문에서는 현대 문명이 유례없는 위기를 맞이했다고 진단하며, 인류사회가 분열돼 어두운 과거를 미래세대에 물려줄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이어 대학도 개선의 여지를 적극적으로 찾아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은 지성의 산실로 더 나은 미래를 열기 위한 고등교육의 책무를 짊어졌다. 신기후 체제 달성을 위한 평화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경희의 숙명이라 강조했다.

세계평화주간에는 9월 20일(화)~22일(목)까지 사흘간 캠퍼스 곳곳에서 평화를 주제로 한 다양한 행사가 이어졌다. 행동하는 시민이 될 것을 다짐하는 ‘세계시민부스’는 청운관 앞마당에 설치됐다.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제주평화연구원을 비롯해 글로벌봉사팀 학생기획단, 예술·디자인대학 시각디자인학과 등이 참여해 평화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이밖에도 사진전, 평화 시네마 토크, ‘세계시민으로 가는 길’ 라운드테이블, 시민교육 세미나도 열렸다. 국제캠퍼스는 세계평화를 주제로 카드뉴스 공모전을 개최하기도 했다.

집단지성의 인터넷 광장 후마 홈페이지 새 단장

교수와 학생 참여 속에 '열린 인문지식 도서관' 지향
기획 영상, 아카이브 등 다양한 콘텐츠 지원



후마나타스칼리지 홈페이지 <http://hc.khu.ac.kr>

후마나타스칼리지 홈페이지는 살아 있다. 새로운 지식과 학문을 공유하는 인터넷 광장은 학생과 교수의 참여 속에서 만들어지고 끊임없이 변화한다. 학교 행정과 행사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러 여러 기관의 홈페이지를 찾던 학생들도 대학의 홈페이지가 대부분 지루하고 딱딱하다는 편견에서 벗어나 소통의 즐거움을 얻어간다.

후마나타스칼리지 홈페이지의 첫 번째 특징은 교양수업 전반을 보조해주는 교수와 학생들 간의 열린 소통의 창이 되고자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특징은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쉽게 배우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교양인문학의 지식 도서관이 되고자 한다는 것. 후마나타스칼리지 홈페이지는 교양인문학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꾸준히 개발하고 있으며 교양교육의 선도적인 모범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집단지성을 위한 '또 하나의 도서관'

2022년 후마 홈페이지가 새 단장을 마치고 문을 열었다. 메인 페이지에서는 대학생들에 유용한 주요 사이트의 배너와 함께 공지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상단 메뉴바에서는 후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주요 프로그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특히 글쓰기센터 홈페이지와 연결해 글쓰기클리닉을 받을 수 있어 학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가장 즐겨찾을 만한 코너는 '커뮤니티'. 공지사항과 후마의 '핫'한 소식뿐 아니라 자료실도 눈여겨볼 만하다. 자료실에는 장소 사용 신청서, 시설 사용 지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일반적인 자료실과 학습에 도움이 되는 교과 자료실, 다양한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영상 자료실로 구분되어 있다. 영상 자료실에는 후마 교육을 재치있게 소개한 영상과 사회에 진

출한 동문이 말하는 후마에 대한 영상, 후마나타스칼리지 뮤직비디오까지 재미있는 자료가 가득하다.

아카이브에는 후마나타스칼리지의 교수와 학생이 만들어 낸 다양한 인문지식 콘텐츠가 망라되어 있다. 특히 '후마기획 동영상'은 중핵교과와 시민교과의 교수들이 야심차게 제작하는 것으로 인간과 세계, 역사와 문명에 대한 흥미로운 문제제기와 설명을 여럿 담고 있다. 이외에도 '지식광장'은 교과와 관련된 학생들의 이해를 높이고 주제를 심화할 수 있는 자료를 게시하고 있으며, '후마리브로'에서는 인류 정신사의 커다란 업적으로 평가받는 동서양 고전 작품들을 소개하는 '나를 키우는 책', 주목할 만한 신간 도서를 소개하는 '새 책' 코너가 있다.

마지막으로, 홈페이지를 인문지식의 생생한 소통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코너들이다. '시 배달'은 인문교양의 핵심인 문학적 감수성을 채워준다. 또한 '우리가 만드는 인용사전'과 '오늘 이 한 대목'은 자신이 책에서 읽은 감명 깊은 구절이나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집단지성 공간이다. 사전식으로 구성된 인상적인 명구를 찾고 싶을 때도 유용하다. 국내를 비롯한 해외의 지식 동향과 교양인문학과 관련된 사이버상의 최신 정보들을 모아놓은 '링크' 코너는 더 넓은 세계를 탐험해볼 수 있는 흥미로운 공간이다.

인문학의 가치는 혼자만의 독서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에 대한, 인간을 위한 가치 탐색은 타자와의 끊임없는 대화를 필요로 한다. 집단지성의 보고를 꿈꾸는 후마나타스칼리지 홈페이지는 그래서 학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후마'의 추진 동력, 교양교육연구소 세계시민교육 활성화에 주력

학술지 발간, 학술 심포지엄 개최 등 다양한 활동
후마 시민교육 및 실천교육센터, 목련상 수상하기도

'더 나은 인간, 더 나은 세계를 향한 교육'이라는 포부를 앞세워 출범한 후마나타스칼리지는 교양교육을 쇄신하고 교육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끊임없이 강구한다. 그 추진 동력 중 하나가 후마나타스칼리지 교양교육연구소(이하 후마 연구소)다. 후마 연구소는 교양교육의 필요성과 교육내용 및 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그 결과를 국내외 여러 고등교육 기관들과 공유한다. 학술지 발간, 학술 심포지엄 개최, 교수자 워크숍, 사회적 실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국대학의 교양교육 혁신을 선도하고 새로운 전범을 수립하고 있다.

후마 연구소는 학술지 <후마나타스 포럼>을 연2회 발간한다. 후마 교양교육의 철학, 교육내용, 교육방법론 등 새로운 이론과 실제 적용을 학술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다. <후마나타스 포럼>은 후마나타스칼리지를 비롯한 최근 국내외 교양교육의 연구 성과를 심화, 발전시킬 토론의 장을 제공하며 학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국내외 교양교육 연구 성과 심화, 발전

2013년 여름부터 후마 연구소는 매년 두 차례 교양교육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해왔다. 국내외 지성들이 모여 대학 교양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교육현장의 경험에서 나온 지혜를 나눈다. 학술 심포지엄을 통해 발표된 연구논문은 <후마나타스 포럼>에 실린다. 2022년에는 국제학술대회 'Religion and Civic Education in the Era of Ecological Crisis: Theory and Policy'를 개최하고, '포스트 휴먼(post-human)시대 인간다움의 가치와 교양 교육'을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밖에도 후마 자체적으로 교재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수렴해 교재 내용과 편제를 개정하거나 수정, 보완하는 등 교양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개선하는 작업 또한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한국교양기초교육원, 한국연구재단 등에서 공고하는 각종 과제를 수행하기도 한다. 또한 실천교육센터, 범아프리카문화연구센터, 인문정보센터 등과 함께 후마 교양교육을 사회적으로 실천하고 확산시키는 데 힘쓰고 있다. 후마 연구소는 미래 인재들이 폭넓은 식견과 열린 정신으로 세계를 향할 수 있도록, 탁월한 개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들의 정신적 독립과 지적, 정서적 성숙을 돕는다.

대학의 사회적 책무 다하는 실천교육센터

실천교육센터는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배움과 실천을 함께하는 교육을 지향한다. 2008년부터 '희망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실천인문학센터가 전신으로, 교육과 실천 프로그램을 강화해 지난 2014년 재출범했다. 후마나타스 주니어칼리지(초·중·고 학생 대상), 후마나타스 시니어칼리지(기업 및 시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과 그린캠퍼스 사업, 기후변화와 위기의 전환사회 모색을 위한 실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8년도에는 후마나타스칼리지 시민교육 및 실천교육센터가 목련상(실천 부문)을 수상하기도 했다. 목련상은 경희 최고 영예의 상으로 '학문과 평화'로 상징되는 경희의 역사와 전통을 기반으로 학술과 실천의 창조적 결합을 통해 지구공동사회 건설에 기여한 구성원에게 수여된다.

후마 연구소와 실천교육센터는 앞으로도 교양교육의 재도약을 통해 지구적 문제 해결에 나서는 세계시민교육에 주력할 예정이다.



‘경희’에서 지구로 ‘나’와 한반도를 넘어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이어진다

경희의 글로벌봉사팀은 교육·연구·실천을 창조적으로 융합한 새로운 차원의 사회공헌을 전개하는 범대학 차원의 공적 실천기구다. 글로벌봉사팀은 자발성 및 지속성, 상호성, 지구시민성, 연구·교육·실천의 창조적 결합, 전공 연계 및 학제 간 융·복합이라는 5대 원칙 아래 대학다운 사회공헌 활동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NGO, 지자체, 기업 봉사단, 언론, 정부기관과의 사회공헌 네트워크와 UN, KOICA, 국제 NGO, 해외 대학과의 지구적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지구적 실천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후마니타스들은 글로벌봉사팀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지구적 차원에서 인간과 생명의 보편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

글로벌봉사팀은 2011년부터 매년 두 차례(하계, 동계) 도움이 필요한 해외지역으로 봉사팀을 파견해왔다. 2013년에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추진한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국제개발협력사업’에 선정돼 캄보디아 씨엠립주 크 나쁘응 마을에서 지속가능한 지구적 실천 모델 구축을 목표로 ‘피스 빌리지(Peace Village)’ 사업을 펼쳤다. 2015년 성공



글로벌봉사팀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양교육을 수료한 학생들의 역량을 사회공헌과 연결하는 다양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멘토링 등 지역사회와 연대, 교육공동체 구축 지구 환경 문제 해결 위한 다양한 캠페인 벌여

적인 사업 종료 후에도 매년 단기 해외봉사단을 파견해 지속적인 네트워크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학생들은 봉사활동을 통해 배운 것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본인의 미래비전과도 연결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해외봉사를 다녀온 학생들은 ‘내가 좋아하는 일이 어떻게 타인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봉사했다. 그러다 나 자신을 발견했다’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던 인생의 터닝 포인트다’ ‘봉사를 통해 사랑과 사람, 모두를 얻었다’ 등 다양한 소감을 남겼다.

멘토링 활동 참여, 나눔의 가치 실현

2022년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해외봉사단을 파견할 수 없어, 국내에서 교육 봉사자와 지역사회 봉사에 집중했다. 글로벌봉사팀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양교육을 수료한 학생들의 역량을 사회공헌과 연결하는 다양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2022년에도 한국장학재단과 연계해 ‘동대문구 드림스타트센터 Do Dream 멘토링’,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을 진행



했다. 멘토링은 멘토로 참여하는 학생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길러주고 삶의 역량을 강화하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한편, 멘토로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사회에 봉사하는 기회가 된다. 멘토와 멘티가 함께 성장하는 시간을 갖는다.

동대문구 드림스타트센터 Do Dream 멘토링은 동대문구 드림스타트센터와 함께 지역사회 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습을 돕는 활동이다. 드림스타트센터 소속 멘토링 활동 담당자와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아 대상 아동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교육적인 접근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한국장학재단의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과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멘토로 변신한 학생들은 활동 시간에 따라 장학금을 받았다.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은 ‘다문화·탈북 학생의 내일을 위한’ 부제를 갖고 있다. 학생들은 멘토로서 주 1~2회 지정된 학교에 방문해 멘티와 함께 진로 및 고민에 대해 상담하고, 기초 학력 향상을 목표로 학습을 지도한다. 이 프로그램 역시 활동 시간에 따라 근로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많은 학생이 멘토링 활동에 참여해 나눔의 가치를 실현했다.

‘하계 온·오프라인 멘토링 캠프’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6월부터 8월까지 진행됐다. 2022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운영된 하계 멘토링 캠프는 교육 소외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학습 경험과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획됐다.

12명의 학생들은 멘토로 활약하며, 충북 금산군 금산동중학교 재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지구 온난화 게임, 채식 먹방, 다문화 상황극 등 다양한 놀이 활동을 결합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진행해 강의 내용에 대한 흥미를 높였다. 멘토로 참여한 학생들은 소정의 활동비를 받고, 봉사 시간도 인정받았다. 후마니타스들이 발휘한 것이 가장 큰 성과다.

#환경보호 실천하고, 친환경 패키지 받자

글로벌봉사팀은 SNS(인스타그램: @khu_g.volunteer)에서 지구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벌였다. 지난해 진행했던 ‘제로 웨이스트 캠페인 vol. 1’에 이어 지구의 날을 기념해 ‘제로 웨이스트 캠페인 vol. 2 with my friends’를 벌였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경희대학교 학생 및 교직원으로 구성된 2인 이상의 팀이 일회용품을 재활용 또는 재활용하고 인증사진을 찍어 구글폼에 공유하면 된다.

재활용은 업사이클링(upcycling)으로 ‘플라스틱을 활용해 조명 만들기’처럼 폐기물에 디자인적 요소를 더한 활용 방안이다. 재활용은 리사이클링(recycling)으로 천연자원 사용을 최소화하고, 순환자원을 최대화하는 전략이다. 추첨을 통해 참여한 50명에게 친환경 소재 치약, 손소독제, 비누, 빨대 등 친환경 기프트박스를 상품으로 전달했다.

2022학년도 2학기에는 ‘제로-웨이스트, 지구를 부탁해! 챌린지’를 시작했다. 코로나 장기화로 발생한 다양한 환경 문제 및 해결 방안을 알리고 구성원의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번 챌린지는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됐다. 글로벌봉사팀은 경희 구성원이 다양한 방식으로 제로 웨이스트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있다. 페트병을 활용한 재활용 아이디어 3가지가 그 예이다. 페트병을 활용해 빗자루를 만드는 방법, 조명등을 만드는 방법, 꽃병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기도 했다.

아름다운 지구는 사소한 행동에서부터

글로벌봉사팀 GVT 학생기획단은 2022년 세계평화의 날 기념 Peace BAR Festival에 참여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GVT는 Global Volunteer Team의 약자다. GVT 학생기획단은 글로벌봉사팀에 소속돼 정기적인 회의 및 모임을 갖고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있다. 활동비를 전액 지원받으며 봉사시간도 인정된다.

PBF에 참여한 이들은 환경팀, 교육팀으로 나뉘어 세계시민부스를 운영했다. 환경팀은 구성원에게 커피 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에 대한 실태를 안내하고 국산 커피 홍보 및 시음 행사를 진행했다. 교육팀은 참가자들이 노인 체험 안경을 착용 후 노인 시점에서 키오스크를 사용하며 디지털 소외 현상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글로벌봉사팀은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 한 가지 주제를 선택해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공헌 프로그램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했다. 총 상금 300만 원 규모의 공모전으로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대학의 책무 중 하나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연민과 공감, 평화와 공영의 마음을 기르고 나눔과 헌신을 실천하는 것이다. 글로벌봉사팀은 대학만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사회공헌을 지향하며 고등교육기관의 공적 실천 모델을 제시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꿈과 도전 응원하는 '신개념 장학제도'

학생의 미래 지원하는 '특별한 장학금'

경희는 학생의 도전 정신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갖추고 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 중 하나가 2017년 신설된 '경희꿈도전장학'이다. 학생 스스로 인생 목표를 수립하고, 진로를 탐색하면서 자아를 성찰하는 것이 꿈도전장학의 목적 중 하나다. 학생은 목표 실행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결과물을 도출하며 융합설계능력을 키워나간다. 그 과정에서 교수, 학생 간 실질적인 지도가 이루어진다.

경희꿈도전장학은 3학기 이상의 정규학기 재학생 중 꿈을 실현하기 위한 도전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2022학년도 2학기부터 SDGs 분야가 추가돼 창업, 자유주제, 학술연구, SDGs 등 4개 분야에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성적 및 이수학점, 가계 곤란 정도의 제한 없이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고, 등록금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꿈도전장학의 장점이다. 장학금은 100~400만 원까지 도전 주제에 맞게 선택할 수 있으며, 장학생으로 선발될 때 장학 확정 금액의 50%를, 중간·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및 결과 발표회 이후 나머지를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학술연구 분야의 장학생은 반드시 논문 형식의 중간·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학술연구 분야 장학금 규모 확대, SDGs 분야 신설

2022학년도 2학기부터 연구 분야가 학술연구 분야로 바뀌었고, SDGs 분야가 신설됐다. 학술연구 분야는 기존에 꿈도전장학금만 지급했던 연구 분야에서 확대해 학술지(SCI(E), SSCI, A&HCI,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등)에 논문을 게재하거나 국내외 학술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한 경우 추가로 장학금을 지급한다. 추가 지급은 주저자(단독, 제

경희꿈도전장학, 창업·자유주제·학술연구·SDGs 분야, 장학금 100~400만 원 지급 전환21, 인류사적 난제 해결에 도전하는 학술·교육·실천 분야 지원

1저자, 교신저자)에 한하며, 논문게재 유형 중 Conference Paper, Article-in press, Conference Review, Short survey는 제외한다.

A&HCI/SSCI/SCIE에 게재했을 경우 1백만 원, SCOPUS에 게재했을 경우 50만 원,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게재했을 경우 40만 원, 등재후보지에 게재했을 경우 20만 원을 지급한다. 국내 학술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한 경우에는 10~15만 원을, 국외 학술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한 경우는 국가에 따라 25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장학금을 지급한다. 경희정신 구현을 위한 학생활동장학 SDGs 분야도 신설됐다. SDGs 17개 목표에 부합하는 주제를 정해 신청하면 된다.

경희꿈도전장학 신청 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미래혁신원 학생지원센터(장학)에서 답을 보내주었다. 꿈도전장학은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지원할 수 있지만 신청 장학 금액에는 차이가 없다. 경희꿈도전장학 기수혜자는 개인 또는 팀 리더로 신청이 불가하다. 경희꿈도전장학 기수혜자를 팀원으로 포함할 경우, 선발에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 독립연구, 전환21 장학 등에서 경희꿈도전장학 신청 주제로 타 장학금을 수혜하거나 학점을 이수한 경우에도 신청이 불가하다. 팀으로 참여 시 팀장 및 팀원 모두 인포21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을 해야 하며, 면접 전형에 전원이 참가해야 한다. 타 전공 교수를 지도교수로 정할 수 있느냐는 물음도 많다. 전임 및 비전임교원이라면 타 전공교수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선택 주제에 따라 자유롭게 멘토를 정해도 무방하다.

선택 분야와 도전과제는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 지원 분야 매칭이 어려우면 학생지원센터(장학)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분야별 지원 현황에 따라 선발 확률은 달라

지는데, 지원 현황은 매학기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므로 특정 분야의 경쟁률 정보가 되지는 않는다. 장학생 선발 후 부득이하게 휴학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럴 때는 장학금을 반환해야 하지만, 복학 학기에 중간·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결과발표회에 참석해 평가를 통과하는 경우, 총장학금을 재지급받게 된다.

2022년에는 청년 거버넌스 내에 이주민 청년의 참여 현황 분석 및 활성화 방안 모색, 기후과학교실(Ci-fi Novel) 해외 웹진 게재를 통한 출간 프로젝트, 셸프 리추얼과 소셜 미션 달성을 위한 올인원 챌린지 어플리케이션, 독거노인 70인 장수사진 촬영 - 당사자 분들의 소외 및 외로움 극복 프로젝트, 의료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학습을 통한 신종감염질환(코로나19와 원숭이두창)과 건강한 삶 등의 주제가 꿈도전장학에 선발됐다.

전환21,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도전

전환21은 인간과 지구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협하는 위기의 징후를 넘어서 교육·연구·실천 분야의 창의적 과제를 지원하는 제도다. 1만 4,000여 재학생의 꿈과 희망을 수렴한 <미래대학리포트>와 2016년 '대학·정치·문명의 새로운 가능성'을 주제로 실시한 학생·교수·총장 대담 <내 안의 미래>의 후속 사업이다.

응모 분야는 인류사적 난제 해결에 도전하는 학술(연구·교육·실천) 분야로 개인적 창의성, 사회적 혁신성, 지구적 시민성 함양을 위한 미래지향적·학술적·실천적 주제다. 응모 방식은 지원 팀의 역량 및 과제 특성을 고려해 '연구사업형'과 '프로그램형'으로 나뉜다. 공모와 심사를 거쳐 과제가 선정되면 최대 7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선정 과제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독립연구 혹은 후마니타스칼리지 배분·자유이수

영역 '독립연구·전환21' 교과로 학점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 과제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경우, 사회활동 및 사회진출을 위한 총장 추천서가 발급된다.

전환21을 통해 진행된 활동 중 몇 가지를 소개한다. '쿠폰터즈' 팀은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해 온라인 강좌 수강을 돕고, 전공 단어집을 제작하는 등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지도(地圖)교수' 팀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경로를 탐색하고 편리함을 더하며 길 찾기 방식의 혁신을 도모했다. '잇다; EATd' 팀은 농가와 직접 협력하며 버려지는 못난이 농작물을 상품으로 제작해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도시와 농촌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선정된 과제는 인류사회의 지구적 문제 및 지역사회의 소규모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대안 모색 및 활동을 이어나가게 된다. 우수한 연구·실천 결과는 후마니타스칼리지, 미래혁신원, 글로벌봉사팀 등의 교육, 실천, 사회진출 프로그램으로 활용된다.

전환21은 종료 이후에도 학생들의 미래 설계에 도움을 주고 있다. 임소현(의상학과 13학번) 학생은 전환21에 선정돼 마스크를 효과적이고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한지 마스크 파우치'를 개발했다. 임소현 학생이 개발한 친환경 소재의 마스크 파우치는 와디즈에서 1,200만 원이 넘는 펀딩을 받는 등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임소현 학생은 재능기부 형태로 마스크 파우치를 대외협력처로 납품했다.

경희의 교육·연구·실천에 소중한 자산이 될 전환21을 통해 경희는 경희의 학술과 실천 역량이 국가와 사회, 대학을 넘어 지구적 '공진화'를 거듭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 시대 미래학자들은 말한다. "미래는 인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인간이 미래를 절실히 원할 뿐이다"라고. 전환21은 기로에 선 현대사회, 인류문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다.



왼쪽부터 꿈도전장학을 통해 '한복빵'을 개발한 최진미(문화관광산업학과 17학번) 학생과 전환21 프로젝트를 통해 '한지 마스크 파우치'를 개발한 임소현(의상학과 13학번) 학생.

지속가능한 문명 창출하는 젊음의 상상력 발전소

취업과 창업, 문화예술, 새로운 삶의 방식 등 입체적 지원
교양교육에 미래디자인 역량 결합

2017년 출범한 미래혁신원 미래인재센터는 경희를 대표하는 새로운 브랜드로 자리잡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학생들의 미래는 불확실성으로 가득하다.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관점과 유연한 능력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학문과 평화’로 상징되는 경희의 교육철학을 미래지향적, 전 지구적 맥락에서 재정 의하고, 학생 개인의 성취는 물론 인류사회에 기여하는 ‘지구적 실천인’을 길러내기 위해 ‘미래혁신원’이 설립됐다. 미래혁신원은 ‘행복한 삶, 지속가능한 문명을 창출하는 상상력 발전소’의 역할을 맡고 있다.

자기성찰과 미래예측 역량을 기반으로 자기 삶을 스스로 기획하는 동시에 생태·환경, 인권, 빈곤, 에너지, 기후변화 등 지구적 이슈에 대한 대안적 접근도 가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신설, 운영 중이다.

취업박람회 ‘Job Festival’ 메타버스서 개최

취업, 창업, 학계 및 문화·예술·체육 분야 진출, NGO/NPO, 새로운 삶의 방식 등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미래를 최대한 확대하고, 해당 영역이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종합적인 실험·실습 프로그램도 병행한다. 다양한 프로그램은 미래인재센터 SNS(인스타그램 @khu_job)에서 빠르게 만나볼 수 있다.

미래혁신원은 직무 탐색 프로그램, 동문 1:1 취업 상담 및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 상담 등을 포함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설계, 취업교육컨설팅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호응을 얻고 있다. 오픈랩에서 진행되는 시나리오 워크숍 및 코딩 교육, 진로탐색캠프, 오픈랩 공



모전도 인기가 높다.

2022년 5월에는 메타버스 플랫폼 ‘게더타운(Gather Town)’에서 취업박람회 ‘잡 페스티벌(Job Festival)’을 개최했다. 다양한 직무·업종에 종사하는 동문 현직자와 재학생 및 취업 준비 중인 졸업생 등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현직자가 알려ZOOM’을 주제로 한 취업박람회 잡 페스티벌을 통해 동문 선배가 후배에게 취업 노하우를 전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삼성전자, 마이크로소프트, 포스코, 중소기업은행, 한국전력공사, KT, 현대자동차 등에 재직 중인 50여 명의 동문이 참여했다. 동문 멘토는 게더타운 부스 공간에서 1:1 멘토링을 진행했다. 사전 신청한 학생은 예약된 시간에 맞춰 멘토링을 받았으며, 사전에 신청하지 못한 학생도 현장 접수를 통해 멘토링 참여가 가능했다. 멘토링이 진행되는 동시에 취업 트렌드와 학생 관심 분야를 반영한 직무 특강도 열렸다. 특강은 △나에게 맞는 산업군과 직무 △공기업 취뵤 A to Z △화장품 영업 & 마케팅 △현직자가 들려주는 유통 Trend & Story 등을 주제로 했다.

미래혁신원은 이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양교육에 미래디자인 역량을 결합해 미래학, 문명론, 인지과학, 생태학, 도시학, 전환설계 등 보다 큰 시야로 세계와 미래를 전망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전공교육을 사회 진출 프로그램과 연계해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체계적으로 취·창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가 어우러져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오픈랩(Open Lab)을 운영한다. 서울과 국제캠퍼스에 개설된 오픈랩은 스튜디오, 정보 지원, 사회적 기업 인큐베이션, 사회 진출 캠프 등의 용도로 활용된다.

경희의 상징



대학 휘장

경희를 공식 대표하는 상징 요소. 경희의 창학 이념과 미래상을 표현한다. ‘문화세계의 창조’를 지향하는 ‘학문과 평화’의 전당 경희, 교육·연구·실천을 창조적으로 결합해 대학의 지구적 존엄을 구현하는 경희를 의미한다.



워드 마크

역동적으로 교차하고 상승하는 경희의 이미지를 타이포그래피로 형상화했다. 자유로운 소통, 나눔의 실현, 무한한 미래에 대한 도전을 통해 이상적인 인류 사회를 선도하는 창조적·실천적 선구자를 상징한다.



교화 | 목련

경희의 교화는 목련이다. 추운 겨울을 이겨낸 목련은 강인한 생명력을 상징한다. 동시에 아름다움, 너그러움, 하나 됨의 미덕도 지니고 있다. 웃는 사자와 더불어 목련은 경희의 문화적 서사를 표현한다.



상징 동물 | 웃는 사자

당당한 모습이지만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웃는 사자’, 바로 경희를 상징하는 동물이다. 웃는 사자는 강인함과 관용을 의미한다. 사자 캐릭터 마크에는 햇불과 비둘기의 모습도 담겨있다. 창의성과 진취성, 평화의 정신을 담았다.



후마니타스가 말하는 후마니타스

학생들은 후마니타스 교양교육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사회에 나가 뒤돌아본 교양교육은 자신에게 무엇이었는가?
출범 12년, 후마니타스칼리지가 본격적으로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
‘인간의 가치 탐색’, ‘빅뱅에서 문명으로’, 세계시민교육, 글쓰기, 독립연구, 그리고 다양한 배분 및 자유이수 교과를 이수한 학생들이 우리 사회 곳곳으로 진출하고 있다.

‘따라 짓는 개’가 되지 맙시다

‘따라 짓는 개’는 미래가 될 수 없습니다.
0도의 관점에서 생각의 근거를 다시 세우는
사람들이 미래가 되어야 합니다.



곽봉재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우크라이나 여성들의 필수 피난 준비물이 피임기구라는 사실을 왜 방송은 보도하지 않을까요? UNICEF도 UNHCR도 알고 있는 사실인데 말입니다. 너무도 처참하여 방송에 부적절해서라기보다 관심이 없어서 아닐까요? 미디어는 자신의 관심사에 대해서 집요하게 파고 들지만 약자나 소수자의 문제는 회피하거나 오히려 다수자의 시선으로 비난을 쏟아낼 때가 더 많습니다. ‘지하철 노동자 파업이 시민들을 불편하게 한다’와 같은 언사가 대표적입니다. 만약 이 언사를 진실인 양 받아들여 다른 사람에게 같은 주장을 한다면 그 사람은 ‘뿌엥 제로point zero’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관점과 말을 자기 것으로 믿는 상태입니다. 대학에 입학했으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누구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있습니까?

고난의 행군 끝에 여러분들은 경희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대학은 언어의 출처를 밝히는 훈련을 하는 곳이자 중국에는 자신의 언어를 발명하는 곳입니다. 덧붙이자면 오롯이 자신과 우리가 서 있는 지점을 찾아가는 곳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발견의 장에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우고 믿어 온 것들이 어떤 것은 그릇되고 어떤 것은 옳은지 구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 당연하다고 여겼던 생각이나 관점이 누구의 것인지 헤아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뜻도 모르고 말하는 ‘따라 짓는 개’가 되지 않으려면 말입니다. 때로는 당파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 때로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생각을 가두려는 언어들을 간파해야 합니다. 자신만의 관점을 갖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어떤 관점이 누구의 이익을 위한 강요인지는 어렵지 않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강의실에서 기후 재앙의 원인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여러 답변 중 나, 우리 즉 인간이 원인이라는 답변이 반드시 나옵니다. 이제 갓 스무 해를 살아온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재앙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까? 지난 3세기 동안 근대 체제와 그 체제의 수혜 속에 기득권을 차지하고 계승해온 권력자들이 원인 아닌가요. 그렇다면 우선 권력을 독점하는 강자와 권력에서 소외된 약자를 구분하고, 나아가 약자이면서도 강자의 논리를 지지하는 주변인은 누구인지 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사여탈권을 빼앗긴 노예가 노예주의 언어를 배우고 취향과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길 강요받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강자는 자신의 논리를 약자에게 강요합니다. 그러니 자신과 사회의 문제를 볼 때 석연치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권력관계에 대입해 보기를 권합니다. 문제가 된 생각과 논리가 누구에게 가장 큰 이익인지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생활 내내 권력이란 무엇인가를 면밀하게 탐구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아가 강자와 약자가 나누는 불평등의 근거를 파헤쳐야 합니다. 마침내 그 근거들을 파헤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근대문명이 기후재앙의 원인이라면 다른 문명을 발명해야 합니다. 재앙을 일으킨 권력을 용인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디어가, 시장이, 교육이 주장하고 퍼트린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어 온 뿌엥 제로 상태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면 더더욱 정신에 찬물을 끼얹는 말을 하는 글과 사람을 찾길 바랍니다. 권력에 저항하는 말들이 도서관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책 속에서만 찾지 말고 같은 시도를 하는 사람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동지가 될 때 삶에 대한 의지도 솟아납니다. 혼자 공부하지 마십시오. 고립은 모든 생명체에게 죽음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문제의식에 닿아 있는 사람들과 열렬하게 연애하십시오. 니체와 연애하고 피에르 클라스트르와 넬슨 만델라와 파블로 네루다와 백석과 김중철과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와 메르세데스 소사와 마사 누스바움과 사귀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UNHCR과 Peace boat와도 연애하십시오. 같은 뜻을 품은 학우를 포함하여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백 명의 연인을 만나겠다는 각오를 다지십시오. 그런 사람들, 기존의 권력에 저항하고 재앙을 극복하고자 행동하는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사회로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닌 자신만의 말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말은 권력에 치우치지 않는 0도의 관점zero point으로부터 자랍니다.

‘따라 짓는 개’는 미래가 될 수 없습니다. 0도의 관점에서 생각의 근거를 다시 세우는 사람들이 미래가 되어야 합니다. 후마니타스칼리지는 그런 학생들에게 열린 광장이며 조력자임을 명심하고 칼리지의 강의를 수강하기를 당부합니다.

우리에겐 더 많은 분열이 필요해 '평어 쓰기'

모든 규칙은 언제나 미완성이다.

배움은 완성되고 불변할 것처럼 보이는 대상이

실은 불완전하고 미완성임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김진해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그렇다. 대학은 분열을 경험하는 곳이다. 통일감을 배우는 곳이 아니다. 화합보다는 불화와 균열을, 행복보다는 불행과 고통을 배우는 곳이다. 지금까지 내가 믿거나 알고 있던 사실과 새로 내 앞에 나타난 사실이 뒤엉켜 혼란과 갈등 상황에 빠지는 그 순간에 배움은 성립한다. 내적 분열이야말로 진리를 경험하는 순간이다.

평어(評語)는 상대를 이름으로만 부르고 대화는 반말로 하는 새로운 말하기 방식이다. 예컨대, 학생은 선생에게 “진해, 왜 한국인들은 ‘나이를 쌓는다’고 하지 않고 ‘나이를 먹는다’고 하지?”라고 묻고, 선생도 마찬가지로 반말로 답변을 한다. 학생들끼리도 선후배를 따지지 않고, “민혁, 저 질문에 대해 너의 생각은 어때?”라고 하면서 대화를 나눈다.

한국어로 말을 하려면 존대법(정확히는 준비법)을 반드시 써야 한다.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말을 높일지 낮출지 판단하고 높임말과 낮춤말 둘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 ‘밥 먹어.’와 ‘밥 먹어요.’ 사이에 다른 선택지는 없다.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밥 먹.’이라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상대의 나이나 학번을 묻게 된다. 위아래가 정해진 다음에야 말을 ‘시작’할 수 있다. 한국어로 말하는 이상, 이것을 피할 길이 없다.

평어 쓰기는 이렇게 꼼짝없이 써야 하는 존대법 체계를 흔든다. 위아래를 가장 먼저 앞세워야 하는 존대법 체계를 흔들어 다른 말의 방식을 모색한다. 교수와 학생의 대화가 반드시 존댓말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경험해 보는 거다. 평어(반말)를 쓰더라도 예의를 지키고 상대를 존중하면서도 더 활발한 대화가 가능하다는 걸 경험해보는 거다. 인간이 쌓아온 문화와 규칙이 변경 불가능한 만고의 진리가 아님을 경험해보는 거다.

우리는 규칙을 묵묵히 따르며 자랐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규칙을 어기며, 아니 규칙을 바꾸면서 성장해왔다. 어릴 때에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규칙을 새로 만들었다. 골목에서 친구들과 축구를 하는 장면을 떠올려보라. 축구장처럼 넓은 운동장도 아니다. 골라인도 제대로 그어 있지 않다. 골대도 없다. 선수도 열한 명이 안 된다. 전후반 45분씩 재는 시계도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축구를 한다. 골목 이쪽부터 골목 저쪽 끝까지 운동장이라고 하자! 돌맹이 두 개씩 들고 와서 적당한 간격으로 떨어뜨려놓고 그걸 골대라고 하자! 담벼락에 공이 닿으면 아웃이라고 하자! 여섯 명밖에 없으니 세 명씩 편을 먹기로 하자! 친구들끼리 주어진 상황에 맞게 약속을 정한다. 애초의 축구 규칙을 어겼지만, 우리는 (야구가 아닌) 여전히 ‘축구’를 한 것이다. (기존의) 규칙을 어겼지만, (새로운) 규칙을 따른 것이다. 규칙을 어졌다고 누가 뭐라 하지도 않았고, 그럭저럭 재미도 있었다. 규칙을 순순히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놀이를 하면서(그러니까 뭔가를 실천하면서) 규칙을 만들어냈다. 뭔가를 하면서 규칙을 바꿔버린 것이다.

어떤 규칙이든 사람들은 상황에 맞게 그것을 해체하고 재조립해서 다시 쓴다. 모든 규칙은 언제나 미완성이다. 배움은 완성되고 불변할 것처럼 보이는 대상이 실은 불완전하고 미완성임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평어 쓰기는 세 가지를 확인해 준다. 첫째,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걸 내가 갖다 쓰고 있다는 것.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 실은 주어진 (강요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확인해준다. 둘째, 아무리 강고한 규칙이라고 하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그리고 새로운 규칙으로 살아보자고 합의한 사람이 몇 명만 있다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준다. 셋째, 규칙을 바꾸면 새로운 정체성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확인해준다. 새로운 정체성이라는 것은 선생과 학생이 부모와 자식처럼 전혀 다른 무엇으로 뒤바뀐다는 뜻이 아니다. 자기 자신에서 벗어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확보한다는 뜻이다. 평어를 씌으로써 ‘선생’은 ‘마치 선생이 아닌 것처럼’ 애초의 ‘선생’에서 벗어난다. 마찬가지로 평어를 씌으로써 ‘학생’은 ‘마치 학생이 아닌 것처럼’ 기존의 ‘학생’이라는 정체성에서 벗어난다. ‘선생’이면서 ‘선생이 아닌’ 양가적 존재로 재탄생함을 뜻한다. 학생들도 ‘학생’이면서 ‘학생이 아닌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이전의 학생과는 다른 학생이 된다. 고정된 ‘선생-학생’의 분할로 만들어지는 정체성을 안으로부터 흔들어 새로운 주체성을 확보해나간다.

배움은 온전하고 단일해보이던 자기 정체성(동일성)에 균열을 가해 내적 분열을 경험하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평어 쓰기는 교육의 본질 목표에 다가간다. 말도 그러한데, 다른 모든 것도 그러하지 않을까? 우리에게 더 많은 분열이 필요하다.

후마 예술교과: 지구를 생각하는 예술

한 사람의 행동과 세계관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예술은 지니고 있으니까요.
지구를 생각하며 무한한 바다에 대한 그리움으로
후마의 예술현장을 함께 일구어갈
신입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조은아
후마티스칼리지 교수

“배를 만들게 하고 싶다면 배 만드는 법을 가르치는 대신 무한한 바다에 대한 그리움을 갖게 하라.” 생텍쥐페리의 이야기입니다. 후마의 예술교육도 이에 공감합니다. 끊임없이 바다를 상상하며, 그리움의 감정을 북돋고, 공감과 소통을 통해 예술적 감성을 일깨우려 합니다.

후마의 예술교과는 음악, 미술, 영화, 사진, 미디어아트, 패션, 디자인, 연극, 예술치료 등 예술의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예술현장에서 경험과 연륜을 두루 갖춘 교강사가 여러분과 함께 강의 이끌어갑니다. 이론학습뿐만 아니라 창조적인 실천도 적극적으로 연계하면서 타인과 끊임없이 나누는 교감과 촉각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방관자가 아니라 당사자로서 예술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최근 코로나를 겪으면서 감염병에 대한 공포가 곧 접촉에 대한 두려움으로 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술마저 움츠러들 순 없습니다. 무한한 바다에 대한 그리움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예술은 자유로운 상상을 북돋울 수 있어야 하고, 사회통념에서 벗어나는 표준 밖의 태도를 서슴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후마의 예술교과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발칙한 상상을 끊임없이 요청할 것입니다.

후마 예술교과를 상징하는 강의 중 하나는 <지구를 생각하는 예술>입니다. 이 강의가 개설된 데엔 각별한 사연을 갖고 있습니다. 해마다 개최해온 예술축전이 코로나의 위기로 속절없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후, 후마의 예술축전 역시 언제 열린다는 기약도 없이 휘발될 처지였습니다.

열띤 논의를 거쳐 기후 위기를 예술로 각성하자 의기투합했습니다. 후마 예술창작 토대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장르-음악, 미술, 영화, 사

진, 미디어아트, 패션, 디자인, 연극, 예술치료 등-를 망라하며 지구를 지키기 위한 예술의 뜻깊은 행보를 발굴했습니다. 북극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음악가들의 투쟁, 해양오염의 주범인 섬유산업 폐기물을 소재로 한 미술작업, 멸종되는 생태종과 함께 사라져가는 자연의 소리를 담으려는 사운드 아티스트, 방사능 폐기물의 영구처분장을 모티브로 한국 악창작극 등을 만났습니다. 우리 시대의 예술가들은 자연파괴와 오염의 심각성을 몸소 처절하게 소리쳐왔습니다. 이 시대의 예술은 불편한 죄책감을 불협음의 음정 같은 예술의 방법으로 각성시키기도 합니다.

후마의 예술교과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을 도모하는 예술계의 여러 노력을 통해 기후 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예술적’으로 일깨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강의들엔 인간이 누리고 있는 쾌적한 삶이 곧 지구의 고통임을 자각하는 목소리가 생생히 담겨 있습니다.

예술교육의 씨앗은 재난의 시대일수록 소중합니다. 우리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후마의 예술교육은 상대방의 고통을 내 것으로 이해하는 감성에서 출발합니다. 돌봄의 예술은 사람과 사람, 자연과 사람을 이어주는 굳건한 연결을 북돋우며 다양한 생명의 공존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예술의 뿌리는 자연입니다. 예술가들은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인간과 자연, 예술과 자연의 공존을 늘 꿈꿔왔습니다. 자연을 닮은 예술은 인간끼리만 더 나은 삶에 매몰되지 않았고, 대신 순환과 순응의 미덕으로 생태계 모두와 관계 맺는 삶을 추구해왔습니다. 자연과의 조화로운 공존을 도모하며 인간과 지구를 연결할 수 있는 적극적 행동을 촉발시켜온 것이지요. 이렇듯 예술을 통해 생태적 사고의 전환을 이끌고 자연을 돌보는 삶으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후마 예술교과의 절실한 지향이라 하겠습니다.

지난 몇 년 우리는 예술의 근본에 대해 질문하며 이제껏 고착시켜온 관성을 새롭게 돌아보는 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재난의 시대, 지구의 아픔에 공감하고 전 지구적 위기를 깨닫는 생태적 감각을 북돋기 위해선, 지탱 가능한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예술교육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자연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예술을 전달할 선순환 구조를 탐색하고, 고정된 틀과 기존의 관행을 과감히 되돌아보려 합니다.

비록 예술이 혹은 예술교육이 이 시대의 재난을 물리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해도,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유의미한 실천을 이끌어 내리란 믿음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예술적 영감은 때로 과학자의 분석이나 정치인의 선동, 언론의 보도보다 큰 울림을 일으키기 때문이지요. 한 사람의 행동과 세계관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예술은 지니고 있으니까요. 지구를 생각하며 무한한 바다에 대한 그리움으로 후마의 예술현장을 함께 일구어갈 신입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내가 못 본 꽃

“제 생각에, 젊은 시절에 소중한 것을 보지 못하면
늙어서도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젊지만, 주변의 소중한 것들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전호근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지난 학기에도 학생들과 함께 시를 읽었다. 내
가 담당한 과목은 시 창작이나 글쓰기가 아니지만
한 학기 동안 모든 학생이 각자 시 한 수를 마음에
들여놓는다는 목표를 세워놓았다. 그래서 매 학
기 한 주는 시를 읽고 낭송하는 데 할애한다. 비록
2년 반 동안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시 낭송 시간
을 가지지 못했지만, 지난 학기에 대면 강의를 시
작하면서 다시 시를 읽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학생들은 마음에 드는 시를 한 편씩 손글씨로
써왔다. 정성껏, 한 자 한 자, 또박또박 쓴 시를 친
구들과 함께 읽는다. 시를 한 편씩 읽을 때마다 잠
깐씩 시간이 멈춰 선다.

첫 번째 시 낭송 시간이었다. 한 학생이 낭송하
는데 중간중간 숨을 몰아쉬며 떨었다.

듣고 있던 다른 학생도,
보고 있던 나도,
같이 떨었다.
오랜만에 보는 장면이었다.

민영규 선생은 말했다.

지난철이 떠는 이유는
올바른 방향을 가리키기 위해서라고
떨지 않는 지난철은

버려야 한다고.

손이 떨린다.

목소리가 떨린다.

그렇지.

떨림은 진실의 몸짓이니까.

이렇게 그 시간의 떨림은 모두에게 잊지 못할 기
억으로 남았다. 이렇게 잡아두지 않으면 우리의 삶
은 덧없이 지워져버리고 말 것이다.

두 번째 시 낭송 시간이었다. 한 학생이 고은 선
생의 시를 골랐다. 왜 그 시를 골랐는지 물었더니
학생은 이렇게 대답했다.

“짧아서 골랐습니다.”

뜻밖의 대답에 나는 버럭 호통을 치고 말았다.

“짧아서 골랐다고? 자네가 시를 고르는 기준이
고작 분량인가? 상품 고를 때조차도 그렇게 하지
는 않겠지. 자네가 시를 고르는 정성이 상품 고르
는 정성에 미치지 못하다니, 이젠 자네가 고른 시
에 대한 모독이 아닌가?”

하지만 학생의 표정은 진지했다.

“교수님,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
에 말씀드린 겁니다.”

“아, 그래? 그렇다면 내가 오해했을 수도 있겠구

나. 아무렴 비난도 진심이라면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한번 말해보거라.”

“예, 저는 시를 고르기 전에 다른 시를 많이 읽어
보았지만 별다른 감흥이 없었는데 이 시는 짧지만
강렬한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골랐습니다.”

학생의 진심을 알아차린 나는 내가 오해해서 성
급하게 화를 내었으니 미안하다 사과했다. 이어 시
를 낭송하고 어떤 감흥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달라
고 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낭송을 마친 학생은 이야기를 시작했다.

“처음 이 시를 읽었을 때 저는, 정상만 보며 산을
오를 때는 미처 보지 못했던 꽃을 내려올 때 비로소
보게 되는 것은, 마치 젊은 시절 성공을 향한 야망을
불태울 때는 미처 보지 못한 소중한 것들을, 나이가
들고 많은 것들을 내려놓은 뒤에 비로소 알아차리게
되었다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듣고 있던 나는 학생에게 시를 잘 이해했다며 칭

찬했다. 그런데 이어진 학생의 이야기가 나를 놀라게
했다.

“하지만 저는 이 시를 여러 차례 읽은 뒤 다르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 젊은 시절에 소중
한 것을 보지 못하면 늙어서도 보지 못할 것 같습니
다. 그래서 저는 아직 젊지만, 주변의 소중한 것들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감탄했다. 성급하게 화를 낸 나야
말로 꽃을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이 아닌가. 학생의
말은 참으로 옳다. 30년간 책을 읽어야 다음 30년간
읽을 책이 있게 되고 30년간 음악을 들어야 다음 30
년간 들을 음악이 있게 되는 것처럼 젊어서부터 소
중한 것들을 놓치지 않아야 늙어서도 소중한 것들
의 가치를 알고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성
공한 다음에 하고 싶은 것들을 하겠다고 다짐하지
만, 성공을 기약하며 소중한 것들을 허비해버린 사
람에게 소중한 것들이 눈에 보일 리 없다. 나는 학생
에게, 늙은 시인이 쓴 시를 젊게 읽어냈다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더불어 하마터면 곧 태어날 위대한
시인을 죽일 뻔한 나의 잘못을 반성하며 가슴을 쓸
어내렸다.

내 삶의 가치를 찾는 여정, 후마니타스

한 아이가 길가에서 꺾어 건넌 꽃송이 하나가
제 인생을 이끌 열정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최승지 동문은 유엔 세계식량계획(UNWFP) 네팔 사무소 Knowledge Management Associate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최승지

정치외교학과 14학번
현재 유엔 세계식량계획(UNWFP) 아프가니스탄
사무소 Information Management Officer 근무

경희대학교에 입학했던 2014년의 봄을 돌이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감정은 당혹감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하염없이 오지선다형 답안 사이에서 헤매는 삶을 살아온 스무 살에게 다짜고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을 들이치는 이 대학의 저의를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칸트와 아렌트가 대체 뭐라고 했길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건지, <인간의 가치 탐색> 교재는 왜 이렇게 두껍고 무겁게만 느껴지는 건지. 그럼에도 정교하게 번역된 아름다운 문장에 줄을 쳐가며 되짚어가던 순간, 글쓰기 수업 시간에 학우들과 모여앉아 나누던 이야기, 나의 상실과 열등감을 마주하며 글로 옮기던 과정, 그리고 마침내 완성된 문장을 읽어내려갈 때 잔잔하게 느껴지던 기쁨을 아직도 선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진 직후의 네팔에 가다

1학년을 마치고 휴학 후 배낭 여행을 떠나 있었을 때 네팔에 큰 지진이 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과 지루한 여행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이기적인 욕심이 뒤엉켰던 것 같습니다. 네팔 지진 긴급구호를 위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메일을 본 그 순간부터 여행을 끝내고 네팔행 비행기를 끊을 때까지 수없이 많은 고민을 거듭했지만, 결국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도착한 네팔에는 많은 상실이 있었습니다. 소중한 것을 잃은 사람이 아주 많았습니다. 누군가의 삶의 터전이 산산이 무너져 내린 흔적을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식량을 전달하기 위해 방문한 네팔의 초가옥 마을에는 17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그곳에서 가족과 친구를 잃은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처음 아이들은 제 눈을 잘 마주치지

도 못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린 환경 속에서 갑작스레 찾아온 낯선 외국인 아이들을 긴장하게 만든건지도 모릅니다. 혹은 근심이 가득한 어른들의 한숨 어린 눈빛을 아이들은 이미 눈치채버린 걸지도 모릅니다. 일주일이나 지나자 우리의 어색한 관계에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눈을 마주치고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급속도로 가까워진 우리는 무너진 벽돌 잔해를 넘어 뛰어다니며 숨바꼭질을 하거나 네팔 노래를 부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의 손을 꼭 쥐고 오도카니 서서 한때 아이들의 보금자리였던 잔해들을 불도저가 밀어버리는 장면을 멍하니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만약 사랑에 형태가 있다면 그건 아마도 살짝 시들어버린 들꽃으로 만든 꽃다발, 알알이 흩어지는 달콤 시큼한 나무 열매, 표면이 반들거리는 유리 구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아이들이 자그마한 손맛으로 비벼 내미는 째짤한 라면땅이나 구멍 가게에서 5루피에 파는 커피맛 사탕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사랑을 주는 것도 받는 것도 마냥 서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종일 손에 쥐어 모퉁이가 반들반들하게 녹아내린 초콜릿을 건네는 아이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이들은 종종 손때를 타 표면이 반들반들해진 유리 구슬을 쥐어주거나, 작은 꽃 모형이 달린 분홍색 머리핀을 꽂아주며 해사한 미소를 짓곤 합니다. 그 반짝이는 눈 속에서 따스하게 넘실거리는 사랑을 마주합니다.

사실 UN 이라는 거대한 조직에서 일하면서 개발도상국에 눌러앉은 건 제 인생 계획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어린 날에는 그저 막연히 지나가다 서류관리 감독이 되고 싶다고도 생각했었던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카메라 뷰파인더 너머로 마주한 해사한 미소에 저 또한 그 안으로 들어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싶어졌습니다.

내 삶을 이끈 열정

<인간의 가치 탐색> 교재의 첫 장에 소개된 러셀의 자서전은 이런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단순하지만 매우 강렬한 세 가지 열정이 내 인생을 지배했다. 사랑에 대한 갈망, 지식 추구, 인간의 고통에 대한 견딜 수 없는 연민이 그것이다.' 몇 년 뒤 한 아이가 길가에서 꺾어 건넌 꽃송이 하나가 제 인생을 이끌 열정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람은 아마 스쳐가는 작은 다정도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높은 학점을 받고 싶어 머리 속에 옥여 넣었던 전공 지식은 졸업 후 빠른 속도로 잊혀져갔습니다. 다만 이십대 초반 무수한 감정과 의문들에 어떤 이름을 붙여야 하는지 모르던 시절, 치열하게 고민하던 저를 비추던 도서관의 독서등 불빛과 사락사락 넘어가는 종이의 질감, 꼭꼭 눌러 쓰던 펜을 권 손에서 느낀 감각들은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후마니타스를 마주할 후배님들의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인생 빵봉지 성분표 기입하기

후마니타스칼리지는 레시피 실험실이었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하지만 한 번쯤 궁금했던
재료를 깊이 맛보고 이미 준비된 원료와
마음껏 섞어볼 수 있는 우당탕탕 실험실.



박소민

국어국문학과 17학번
현재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재학

요즘 나는 jtbc 예능 <알쓸인잡>을 즐겨 본다. 법의학자와 작가, 물리학자와 천문학자, 연출가와 뮤지션이 나와 인간이라는 대주제 안에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코너인데, 한 분야에 오래 몸담은 사람만의 언어를 듣는 게 재미있다. 같은 “미래”도 작가에게는 한 서사의 결말처럼 알고 보면 재미없는 것이고, 물리학자에게는 보고 싶어도 결코 볼 수 없는 절대적인 영역이자, 법의학자에게는 과거보다 덜 매력적인 시간대다. 어쩌면 어떤 전공을 한다는 것, 그리고 어떤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세상을 해석하는 고유의 언어체계를 조물조물 만들어가는 과정 아닐까 싶었다. 국문학을 전공하며 소설을 써온 내게 미래는, 글 안에 미처 담을 수 없는 그러나 분명 존재하는 완결 이후의 시간이다. 책임지고 매듭지를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함부로 단정지어서도 안 되는 가능성의 영역. 그러니까 아직 단행본 한 권 없는 나에게도 문학이라는 언어가 내장된 셈인데…….

문제는 다음이다. 언어는 있다. 그런데 그걸로 무슨 말을 할 건데? 언어가 빵 봉지라면 하고 싶은 말은 그 안에 담을 빵이었다. 아무리 근사한 포장지를 둘러도 안에 빵이 질기고 맛이 없으면 결국 별 볼 일 없고 공허해져버릴 것 같았다. 내게 지난 4년은 포장지 안에 어떤 빵을 넣어서 건네면 좋을

것인지, 구성과 성분표에 대한 치열한 고민의 과정이다. 그리고 후마니타스칼리지는 레시피 실험실이었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하지만 한 번쯤 궁금했던 재료를 깊이 맛보고 이미 준비된 원료와 마음껏 섞어볼 수 있는 우당탕탕 실험실.

새내기 시절 수강한 필수 (중핵) 교과인 <빅뱅에서 문명까지>는 과학 기초 지식, 그중에서도 기상·천문과 생명·진화를 넓게 훑는 수업이었다. 사실 듣기 전에는 가장 망설여지는 과목이기도 했는데, 고교 시절의 내게 지구과학이란 다루는 영역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광활한 데다 (별은 눈에 보이지만 별까지의 거리와 별의 실제 밝기는 가늠하기 어렵다) 동시에 상당히 지엽적인 학문이라는 편견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교수님은 우리에게 모두가 제목을 알지만 막상 읽어본 사람은 적다는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권유하셨는데, 호기심에 펼쳐본 책을 나는 앉은 자리에서 빨리 들어가듯 첫 백 페이지를 단숨에 읽었다.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은하부터 지구까지, 그리고 수천억 년 전부터 지금까지 시공을 종횡하며 칼 세이건은 근사한 스토리텔러이자 실감 나는 가이드가 되어 우주 공간을 입체적으로 보여주었던 것이다. 뒤이어 등장하는 진화에 관한 이야기는 지금의 생명이 과거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어떤 원칙과 과정

을 거쳐 지금의 형태를 띠게 되었는지를 훑아볼 수 있는 흥미로운 단서처럼 느껴졌다. 우주에서 생명으로 이어지는 <코스모스>의, 그리고 <빅뱅에서 문명까지> 수업의 흐름은 나에게 지구과학이 결코 우리 삶과 멀리 떨어진 허황된 영역이 아니라, 지금의 삶과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학문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준 최초의 기억으로 남아 있다.

<빅뱅에서 문명까지>에서 과학을 알게나마 파보았던 경험은, 기존에 관심을 두던 국제개발협력이라는 분야와 만나며 첫 직장 경험으로 이어졌다. 3학년을 마치고 휴학한 뒤에 유엔환경계획(UNEP)의 한국위원회에서 일 년간 일하며 유엔리포트와 IPCC 보고서, 해외의 환경뉴스를 국내 독자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번역 저널리스트로서의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과학 교양 수업을 들었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우리나라 그린벨트 지역의 멸종위기종 보호 문제와 맹그로브 식재사업에 대한 기사를 발행할 때는 그간 보아왔던 생물 관련 다큐멘터리와 <시간과 물에 대하여> (안드리 스나이더 마그나손, 북하우스 2020.12)와 같은 책이 보고서를 해석하는 기초 언어로써 든든한 배경 지식이 되어주었다.

이렇게 일 년간 국제기구의 한국위원회에 몸담으며 국내외 사업에 모두 투입되어도 보고, 전에 없던 경험을 실컷 했다고 생각했는데 갈증이 해소되기는 커녕 깊어지기만 했다. 환경과 기후위기는, 안타깝게도 인권과 정책의 영역이라기보다는 과학 기술에 보다 가깝게 닿은 영역이었고, 환경에 대해 제대로 말하기 위해서는 과학을 몰라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나는 환경에 대해 피상적인 말만 내뱉고 싶지 않았다. 기후위기는 전지구적 문제이며 우리는 모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와 같은 말들로 가득한 결의안과 기사들에 불만이 있었다. 그렇게만 이야기해도 되나? 정말? 무얼 보고 책임감을 느껴야 하고, 그렇다면 지금부터 무얼 할 수 있는데? 전문가의 영역은 철저히 전문가끼리 공유되고, 대중은 동어반복만 들어야 하나. 그때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내가 그 역할을 조금이나마 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빅뱅에서 문명까

지> 수업이, 칼 세이건이 나에게 맛보여주었던 근사한 세계처럼, 나는 문학이란 언어를 갖고 있으니 이제 과학이란 언어를 익혀야겠다고. 그래서 그 두 세계 사이를 연결하는 통역사가 되고 싶다고.

이런 (불만 어린) 관심의 연장선상에서 선택하게 되었던 것이 후마니타스칼리지 배분인수 <생명의 그물망>이라는 수업이었다. <빅뱅에서 문명까지>가 너른 영역을 비교적 알게 훑는다면, <생명의 그물망>은 진화와 생태계로 주제를 좁혀 깊이 파고드는 수업이었다. 교양 강의이기에 생물학의 모든 세부 분야를 알기에는 어려웠지만, 진화생물학을 알아가며 깊이 매료되었고, 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생겼다. 아는 만큼 상상할 수 있다는 한 작가의 말처럼, 이렇게 차곡차곡 끌어모은 지식은 상상의 기반이 되어주기도 했다. 이 수업 이후로 지금까지 내가 쓰고 있는 모든 글은 생물학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 이제는 문학과 과학을 융합해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대학원 진학을 앞두고 있기도 하다.

만일 처음부터 전공과목으로 과학을 들으라고 했다면, 혹은 기술 관련 직무에 투입되었더라면 지금처럼 마음을 열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다.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므로 살아남기 위해서 애정을 비대하게 부풀려나갈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잘 헤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훌리듯 매료되지는 못했을 것 같다. 교양 강의들로 만났기에 조금 더 만만히 부딪혀볼 수 있었고, 조금씩 벽을 부숴나갔던 망치질 덕에 비좁았던 세계의 양감도 늘려갈 수 있었다. 내 성분표는 아직도 작성중이다. 이미 적힌 항목은 성분을 0.01%라도 늘려가고, 언제든 낯선 성분이 끼어들 자리를 마련해두는 것이 앞으로 해나가고 싶은 일이다.

모두가 새롭고 두려운 세계를 힘껏 두드리고, 조금 친해졌을 즈음 그 세계의 이름을 빵 봉지에 기입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걱정했던 것보다 향긋하고,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맛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구도 아닌 신입생 여러분만의 생활이 펼쳐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학벌주의에 반대하면서 졸업은 해낸 졸업생이

- 그래도 1,2년 선배보다 더 건설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을거라 믿는 편지

대학에서 했던 현대의 태도와, 삶과 사랑의 본질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기술을 어떻게 일에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제 판단과 기획의 기틀은 대학을 다니며

사유하는 힘과 닮아 있습니다.



박이윤정

경희대학교 미디어학부 16학번
현재 녹색연합 홍보팀 활동가
유튜브 크리에이터 비건면지팀 PD

고등학교 3학년, 수능 탐구 속 문제 출제 의도를 고민하며 이 세계에 대해 능력이 아닌 순응하는 과정이 아닌가 무서워했습니다. 담임선생님을 찾아가 평평 울었습니다. 입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정신과에서 두통약과 안정제를 받아올 때도 야자를 빼주지 않던 담임선생님은 그날 저를 집에 보냈습니다. 아플 때 하교하면 교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나왔던 제가 그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집 가는 길, 눈물이 그치지 않고 평평 흘러내렸습니다. 어찌어찌 그 시간을 넘겨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는데, 기쁘지 않았습니다. 제가 동의하지 않았던 한국의 교육 체계 속에서 그만큼 순응하고 살아갔던 것에 대한 죄수 표식 같았습니다.

그렇게 대학에 왔습니다. 대학에서는 제가 기대했던 토론수업과 학문의 장이 펼쳐지길 바랐습니다. <인간의 가치 탐색>, <우리가 사는 세계>가 수업으로 있는 학교라니. 설렌 가슴을 안고 수업에 들어갔지만 그건 저만 그랬던 것 같았습니다. 매번 답변하는 학우들만 얘기할 뿐 대부분이 조용한 강의실. 12년 내내 지겹도록 본 친구들의 뒤통수를 대학 강의실에서도 똑같이 바라보고 있어야 했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노트북 화면에 카톡창을 켜고 마음껏 탄질을 할 수 있다는 것. 그 길로 인가담 교수님께 면담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기대한 교육은, 바란 대학 수업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며 눈물을 똑똑 흘렸습니다.

그러나 개운한 마음으로 대학을 졸업한 미소가 보이시죠? 게다가 여전히 학교가 드러나는 학교 이메일을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괜히 입만 학벌주의를 반대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희극인 김신영 씨가 목욕탕 아주머니를 따라 하는 걸 본 적 있으신가요? (없다면 이 글까지는 다 읽고 유튜브에서 보기를 강권합니다.) 때밀이 순서를 어기며 돈을 더블로 준다는 상황극에서 김신영은 극구 거절

하다 해초 마사지 더블이 아니면 안 된다며 거절하는데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저는 친구에게 "김신영은 미디어에서 조명되지 않았던 여성 주체들을 호명해. 선과 악이 명확하지 않게 흔들리는 순간들, 그들이 삶을 통해 터득한 악착스러운 의상과 해악을 잘 묘사해서" 좋다고, 대단하다고 제 최대의 주제를 떨었습니다. 친구는 "너는 생긴 건 대안학교 나오게 생겨서는 정규 교과과정의 언어를 쓴다"고 했습니다. 아, 이런 게 어쩔 수 없는 미디어 학부생의 덕질인가 보구나 싶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대학 교육 냄새 나는 사람

일찍 학교를 떠났다면 김신영을 좋아하는 이유를 아마 이렇게까지는 설명할 수 없었을 테죠. 당시에는 고통스러웠지만, 그 시간이 제 삶 속에 없다 하면 지금 제 세계는 꽤나 잿빛 세상일 거예요. 성평등의 관점에서 미디어를 해석하고 무엇이 좋은지에 대해서 저만의 언어를 가진 건 청운관의 여성주의 교양 수업과 미디어학과 비평 수업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철학자 이름들과 이론들은 졸업한 지 얼마나 됐다고 입 밖으로 절대 바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홍지아 교수님, 죄송해요, 존경해요.) 그러나 미디어학을 통해서 세상을 사유하는 관점과 틀은 없어지지 않은 채 제 몸 안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후마니타스라는 교양 단과대학을 유지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생각 해봅니다. 학교도 기업이기 때문에 시간강사를 대량으로 해고하기도 했고, 학내 성폭력 사건을 쉬쉬했던 모습들도 기억합니다. 후마의 교육과 배치되는 학교의 모습이라며 싫어도 했지만, 후마를 만난 여러분들은 사회에 나가서 지금 기성세대들이 하지 못한 것들을 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키워내고 싶은 것이겠지요.

세상의 기술들은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고, 그 기술들은 아마 평생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학에서 했던 현대의 태도와, 삶과 사랑의 본질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기술을 어떻게 일에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제 판단과 기획의 기틀은 대학을 다니며 사유하는 힘과 닮아 있습니다. 고전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변하지 않는 것들을 알려줄 것입니다.

벚꽃이 예쁘겠지만, 강의시간이 끝나도 그 벚꽃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2023년 1학기의 당신이 마주한 교수님과 학우들과의 논의는 그때뿐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비싼 등록금도 냈잖아요. 그 시간을 본인의 것으로 잘 흡수해서 아깝지 않게 보냈으면 합니다. 많은 이들이 대학에서 연애하고, 많이 보고 경험하라고 하는데, 수업도 경험에 좀 포함하는 걸 고려해주세요. 후마가 경희에 있는 귀한 시기에 학교를 다닐 수 있어서 기쁩니다. 다행히 그 소중한 교육의 본질을 지키려고 한 분들이 여전히 잘 지켜내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그 귀한 시기를 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HAPPY 새내기!

후마에서 만난 창업, 창업에서 만난 후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을 때
다시 만난 후마에서 희망을 발견했다.



민환기

사회기반시스템공학과 14학번
현재 마인드그라운드 주식회사 대표이사

경희대학교에 입학했던 신입생 시절, 인생에서 처음으로 ‘인간’에 대해 탐구하고, 세계 속의 ‘시민’이라는 인식을 하게 해준, 생소하지만 흥미로웠던 후마니타스칼리지를 만났다. 인간의 가치 탐색, 우리가 사는 세계, 시민교육. 인간의 본질과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이치에 대해 근본적으로 탐구했던 선조들의 관점을 들여다보는 재미있는 경험, 고교시절 접했던 만들어진 체계 속에서 답을 찾아가는 방식과는 다른, 색다른 방식의 학습 경험이었다.

후마에서 발견한 ‘도전하는 나’

후마니타스칼리지의 영향 덕분인지, ‘도전적인 것’을 좋아하는 스타일을 발견하고, 자연스럽게 창업수업을 통해 창업과 친해졌다. 4년의 학교 생활 끝에, 내가 선택한 전공의 길이 아닌, ‘창업’이라는 모험을 선택했다. ‘모험’이라는 표현에 걸맞게, 직장경험과 전문지식이 부재한 나에게 서비스개발, 인사관리, 재무관리, 영업관리를 비롯한 하나하나의 회사 체계를 갖추어가는 모든 과정은 낯설고 어려웠다. 정확히는 고난이고 역경이었다.

‘회사가 커지면 모험에서 마주하는 어려움의 강도는 좀 더 나아지려나’ 했던 나의 기대는 회사가 커지면서 마주하는 더 큰 어려운 상황들에 무참히 짓밟혔다.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역경, 고통의 정도는 점차 가중되었다. 비슷한 시기, 함께 창업의 길로 나섰던 동기 창업가들이 비슷한 고민과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정신병원을 다니고 있다는 소식, 창업을 포기하고 직장으로 취업했다는 소식을 종종 듣곤 하며 내가 마주하고 있는 고통의 정도를 실감했다. 다만, 병원에 갈 시간조차 충분치 않았기에 고통 속에서 벗어날 다른 해결책을 모색해야 했다. 매일 아침 명상을 하고, 조용한 숲속을 걷고, 아무 생각없이 멍때리는 시간을 갖기



민환기 동문은 다문화 교육콘텐츠 및 영상 제작을 하는 마인드그라운드(주)를 창업해 매출 10억 이상의 기업으로 성장했다. 최근 후배들의 창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부에 동참하기도 했다.



도 했다. 그 행위에 집중하는 동안에는 잠시 평온함이 다가오는 듯했으나, 일시적인 것에 불과했다.

고통의 순간에 마주한 두 번째 후마니타스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해답을 찾기에 한창인 때, 앞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3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회사가 한순간에 파산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으로 좁혀지던 때, 알 수 없는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니체의 ‘고통’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 이야기해주었다. 모든 것을 포기하려면 시점에서 마주한 니체의 ‘고통’에 대한 관점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가왔다.

“고통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며, 성장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뉘앙스의 말은, 당시 내 감정을 평온하게 만들었다. 나에게 필요한 말이었지만, 누구도 해주지 못하고 있었던 말이었다. 인간의 본질에 대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이치에 대해 근본적으로 탐구했던 선조들의 관점으로 현 상황을 해석하는 새로운 경험, 후마니타스칼리지를 처음 만났을 때와 동일한 경험이었다.

후마니타스칼리지에서 마주했던 이들을 찾아나서기 시작했다. ‘공정성’의 기준을 언급한 존 롤스에게 인사관리의 지혜를 찾고, ‘판단’의 기준을 언급했던 칸트에게 의사결정의 전략을 배워나갔다. 지속가능한 경영 전략의 차별화 전략으로, ‘철학’을 더하기 시작했다. 경영진들과 주 2회, 새벽에 모여 철학자들의 관점을 공유하고,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을 해석해보곤 했다. 창업의 과정에서 다시 만난 두 번째 후마니타스칼리지였다.

신입생 시절 인연이 되었던 ‘인간’의 가치를 탐색하던 경험이 내 삶의 가치실현의 도구인 ‘창업’을 휘두르는 데 다시 인연이 되어 엄청난 무기가 되었고, 덕분에 많은 어려움을 뒤로하고, 희망적인 경영인으로 성장하고 있다. 각자의 삶에서, 직장에서 마주하는 어려움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을 경험인들, 인생의 두 번째 후마니타스칼리지를 찾아 나서보는 것은 어떨까?

포스트 휴먼 시대 인간의 가치와 교양교육 생태 위기 시대, 시민교육의 지향점 모색

후마니타스 교양교육연구소가 연 2회 발간하는 학술지 <후마니타스 포럼>은 지난해 '포스트 휴먼(post-human)시대 인간다움의 가치와 교양교육', 'Religion and Civic Education in the Era of Ecological Crisis: Theory and Policy'를 주제로 교양교육의 역할을 점검하고 미래를 모색했다.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 코로나 이후, 대학생 인성 함양을 위한 탐색: 성찰적 판단과 사회 변동

이숙희 아주대학교

대학생 인성 '교육'의 타당성은 무엇에 근거하는가? <인성교육 진흥법>에서는 인성 교육의 목표를 핵심 가치의 내재화에 둔다. 가치 교육이라는 것이 청소년이라면 몰라도 성인인 대학생에게 적절할까? 본고는 이 질문에서 시작했다.

인성은 가치와 등치되는 개념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한 인격 안에 선하거나 악한 상반되는 특성이 공존한다. 다층적이고 복잡한 상태가 인성이다. 그런 점에서 인성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타고난 본성이 이상적인 상태로 변화해간다는 것이다. 인성은 형성 중이다. 대학의 인성 교육은 인성의 변화를 인도하는 데에 있다. 그것은 인성의 내적 조건과 외부의 상황을 고려할 때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인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 조건을 발달 이론과 로너건의 네 단계 인지과정에 의거해 설명했고, 외적 조건 곧 사회적 문화적 맥락과 변화에 대한 것을 21세기

한국 사회와 전지구적 변화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대학 인성 교육의 타당성은 대학생이 스스로 가치를 선택하고 판단하기까지 성찰적 의식의 메카니즘과 사회적 문화적 변동 이해에 도움이 되는 지적 자산을 제공하는 데에서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 포스트휴먼의 인문학: 인간과 기술의 감응

오현숙 한성대학교

본고는 팬데믹 이후 인간과 기술의 관계가 새롭게 변역되고 배치되는 방식들을 탐색하여 포스트휴먼 인문학의 가능성을 논의한다. 인문학은 근대 인간의 개념과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인간중심적이고 배타적인 담론을 생산해왔지만 인간과 기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기술혁명의 시대에 급격하게 쇠락해가고 있다. 이런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문학은 무엇보다 인간학이라는 고유의 영역에서 벗어나 인간과 기술(혹은 비인간)이 서로 감응하는 존재 방식들을 탐색하고 과학기술과의 관계에서 생성되는 변역

과 정화작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결과, 인간은 근대적 인간 개념에서 벗어나 포스트휴먼, 즉 인간과 기술(비인간)이 끊임없이 엮이고 겹쳐져 있는 혼성물로 변신하게 된다. 더 나아가, 포스트휴먼의 인문학은 바이러스와 기술이 발생시키는 사건들을 과학과 인문학의 어느 한 영역으로 환원시키지 않고 두 영역의 경계에서 끊임없이 생성되는 혼성물들을 탐색한다.

● 21세기의 대학교육과 퇴계의 교육철학

안유경 경북대학교

본 논문은 조선의 16세기를 살았던 퇴계(이황, 1501~1570)의 교육철학을 재조명함으로써, 오늘날 교육현실의 다양한 문제를 진단하고 미래 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모색한 것이다.

퇴계가 지향한 교육의 목적은 五倫에 기초하는 인륜을 밝히는 데 있으며, 또한 그 교육방법의 중심에는 敬이 있다. '경'의 교육방법은 일상 속에서 용모·말씨·행동거지 등 자신의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몸 공부는 그대로 마음을 하나로 집중하여 한 생각의 잡념도 없게 하는 마음공부로 이어진다. 결국 마음이 분산되지 않고 집중됨으로써 현실 속에 일어나는 온갖 일에 대처함에 조금도 잘못됨이 없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인육을 억제하고 천리를 보존함으로써 인간에게 본성으로 내재된 리의 실현이 가능해진다.

● 20·21학번 대학생의 온라인 비대면 수업 인식조사를 통해 본 수업 설계 개선 연구

김성일 경희대학교

본 연구는 2020~2021년 <세계와 시민> 교과를 수강한 경희대학교 20·21학번 대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비대

면 수업에 대한 인식조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업 설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조사 결과, 온라인 비대면 수업에 대해 21학번 수강생의 만족도가 높게 나왔는데, 이는 온라인 비대면 수업을 둘러싼 주변 상황이 2020년과 2021년이 달랐기 때문이다. 또한 교수자와 학생, 학생 간 의사소통에 대해 20·21학번 수강생 모두 부정적 응답이 높았는데, 이 문제는 2년째 접어든 온라인 비대면 수업에서 먼저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LMS 이용 편리성은 21학번 수강생에게서 만족도가 높게 나왔는데, 이는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보완의 결과이다. 앞으로 온라인 비대면 수업은 교수자의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 온라인 상황에 맞는 수업 설계를 통해 '정상 수업'의 새로운 질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 기후위기와 생태사회주의: 사이토 고헤이와 안드레아스 말름의 논의를 중심으로

고봉준 경희대학교

기후위기가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기후위기의 핵심은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 문제이다. 이 사태를 막기 위해 유엔과 각 국가들은 오래전부터 해결책을 모색해왔다. 2016년 체결된 '파리기후협정(Paris Climate Agreement)' 또한 그 대책의 하나이다. 문제는 파리협정 이후에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 그것은 자본주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제학자 사이토 고헤이와 스웨덴의 생태학자 안드레아스 말름은 생태사회주의(Ecosocialism)가 기후위기의 유력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한다. 사이토 고헤이는 "SDGs는 현대의 아편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현재의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①올리히 브란트가 '제국적 생활양식'이라고 명명한 생활양식에서 벗어나야 하며, ②자연에 대한 근대적 인식에서 벗어나야 하며, ③궁극적으로는 '탈성장'에 기초한 '풍요'를 중요한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 외에도 사이토 코헤이

는 GDP 중심의 자본주의적 '성장' 대신 생태주의적 '탈성장(degrowth)'을 개인과 사회의 원리로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가 주장하는 생태사회주의적 '탈성장'은 청교도주의적인 과거의 탈성장론과 달리 '커먼'의 재건이 핵심이다.

한편 안드레아스 말름은 국가 또는 정부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현재의 기후위기가 극복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말름의 이러한 생각의 배경에는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국가의 방역이라는 경험이 존재한다. 특히 말름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물자생산법'을 발동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가 이 법안을 발동하자 GM과 포드는 생산라인의 일부를 인공호흡기를 생산하는 데 활용하려고 했다. 또한 이 시기에 프라다, 아르마니, 이브생 로랑, H&M 등의 패션업계는 제조 역량의 일부를 의료용 작업복, 마스크, 방호복 등을 생산하는데 사용했고, 일부 증류주 업체들은 보드카와 위스키 생산라인을 개조해 손 소독제를 공급했다. 말름은 기후위기에 대해서도 국가가 이처럼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해결이 불가능하지 않을 것임을 주장하면서 그것의 모델을 레닌이 주도한 '전시공산주의'에서 가져온다.

즉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하는데, 그것은 점진적인 방식으로는 결코 성취될 수 없다는 것이다.

● 힐데가르트 폰 빙엔의 생태학적 의미와 오늘의 도시 빙엔

심은주 Philipps Universität Marburg

이 논문에서 저자는 중세 베네딕트 수도원의 원장이자 독일의 신비주의 신학자이며 영성가, 설교자였던 힐데가르트 폰 빙엔(Hildegard von Bingen, 1098-1179)의 사상을 그녀의 창조적인 영성을 통해 살펴보고, 어떻게 900년을 넘는 세월 동안 그녀의 생태학적 사상이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하고 있다. 또 그녀가 살았던 독일의 도시 빙엔에서 오늘날 어떻게 그녀의 생태학적 메시지가 전달 보존되고 있는지를 살피고 있다.

먼저 이 논문에서는 힐데가르트의 생애와 저서를 살펴보고 그녀의 창조세계관을 환시 저서 "세계와 인간(신의 업적)"에서 중요한 개념인 "비리디타스"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비리디타스는 라틴어에서 "녹색", 혹은 "정력"을 뜻하며 활력, 번식력, 왕성함 또는 성장을 의미하는 단어로 힐데가르트는 이 개념을 그녀의 저서에서 영적, 육체적 건강을 언급하는 상징으로 사용했으며 신의 말씀을 반영하거나 신의 신성한 본성의 한 측면으로 사용했다.

이 논문에서 저자는 중요한 개념인 비리디타스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면에서 고찰하고 있다. 즉, 1. 하느님과 비리디타스의 관계, 2. 비리디타스와 인간의 영혼과 육체의 관계, 3. 비리디타스와 자연의 관계이다.

다음으로 힐데가르트의 도시 빙엔의 장소와 기관들을 알아보고 어떻게 빙엔에서 힐데가르트가 전달되고 가르쳐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힐데가르트 빙엔이 오늘날 생태위기 속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기술하고 있다.

● What does religion have to do with nature conservation?

: Conflicts, cooperation and competing conceptualizations of religion and nature conservation in the German Religions for Biological Diversity project

종교가 자연 보존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 독일 생물 다양성을 위한 종교 및 자연 보존에 대한 갈등, 협력 및 경쟁적 개념화

Carrie Dohe University of Toronto, Canada

독일연방자연보전청의 생물다양성을 위한 종교 프로젝트는 종교공동체를 통해 자연보전을 촉진하고 종교 간 협력을 통해 더 큰 사회적 화합을 촉진한다. 이 논문은 자연, 자연 보존 및 종교 간 협력이 이 프로젝트의 종교 간 자연 보존 주간 참가자들에 의해 어떻게 이해되었는지 탐구한다. 참여 관찰, 반구조적 인터뷰, 행동 연구를 통해, 연구

자는 자연보호를 위한 종교 간 주간 행사가 좀 더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자연보호와 단지 상징적인 것 사이의 범위에 걸쳐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종교 참여자들은 종종 전통적인 종교적 가치(평화, 사랑, 통일)를 통해 자연의 보존을 인식하여 자연을 인간화하고 자연 보존을 그들의 종교적 실천과 더 관련되게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종교 행위자들 사이에 기존의 갈등을 바탕으로 긴장이 고조된 반면, 가장 큰 긴장감은 종교 행위자들이 자연 보존에 참여하는 것에 회의적인 자연 보호론자들로부터 비롯되었다.

● Pentecostals, Civic Education, and Eco-Integrated Farming

: The Case of Four Eco-Farming Institutions in Northern Luzon, Philippines

펜테코스트파, 시민교육 및 친환경 통합농업

: 필리핀 북부 루손의 4대 생태농업기관 사례

Joel Tejedo Asia Pacific Theological Seminary

농민의 생명과 생계를 악화시킨 생태적 위기의 부정적 영향으로 이제 필리핀 국민에게는 농민이 '죽어가는 품종'이 됐다. 필리핀 농민들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농가 투입물가 상승으로 농사를 계속 짓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펜테코스트파는 책임감 있는 생태 농업을 위해 그들의 태도와 행동을 밑받침하는 그들의 종교의식으로서 무엇을 하는가? 펜테코스타 신도들은 환경 악화, 생태 재해, 그리고 종 멸종 문제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펜테코스트파는 어떻게 지역 농부들이 농작물, 가축, 어업, 과일나무들을 통합하고 늘릴 수 있도록 기여하는가? 그들은 어떻게 소규모 지역 농부들에게 소득을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온/오프 농장 및 농업 경영 일자리 기회를 창출하는가?

본 연구는 성서 자료를 이용하여 펜테코스타 정신이 지배하는 종교에 기초한 생태 농업의 신학적 주제를 조사한다. 카가얀 밸리 지역의 펜테코스타 친환경 농업 기관 모델을 제시하여 친환경 농업의 접근 방식과 모범 사례들을 살

펴본다. 이 연구는 미래의 농업에 종사하는 농부들이 줄어들면 식량 불안을 악화시켜 식량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한다. 따라서 필리핀의 통합 농업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종교 및 시민교육의 과제를 추구하는 것은 가치가 있으며 글로벌 농업 산업에의 시민적 요구이다.

● 직업적성 개념에서 주목해야 할 측면: 철학적 접근

백충용 성균관대학교

이 연구의 목적은 정교회의 충실화 작업을 통해 이론적·실천적 지지력을 갖춘 직업적성 개념의 조건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연구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측면(직무의 내용 변화, 직무와 직업적성의 상호작용, 직업적성의 주체적 계발과 형성, 직업적성의 직업관 의존성)을 집중 조명한다.

첫째, 직무의 기술적·사회적 내용 변화에 대한 다각적 분석을 전제하거나 병행해야 비로소 직업적성의 균형적·심층적·역동적 이해가 가능해진다. 직무 내용의 변화는 직업적성 자체의 가변성뿐만 아니라 그 발현 조건의 변화를 함축하기 때문이다. 둘째, 직무가 직업적성에 미치는 영향 만큼이나 후자 역시 전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관적, 통일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양자의 상관적 변화를 포착할 수 있다. 셋째, 직업적성 계발 및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적 요인에 주목해야, 역동적이고 성숙한 직업적성 개념에 도달할 수 있다. 넷째, 사고와 행위의 가치 지향성은 인간의 본래적 특성이기에, 직업관은 직업적성 개념 및 직업적성 형성 과정과 양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론적, 실천적 지지력을 갖춘 직업적성 개념은 직무 중심 논리 강화, 주목받았던 측면과 주목받지 못했던 측면의 균형 회복, 구성 요인들의 복합적 상호관계를 드러낼 수 있는 접근법을 전제해야 한다.



경이로운 경희 대학의 미래 인류의 미래

지난해에도 경희의 도전과 성취는 멈추지 않았다.
경희는 국내외 대학평가에서 국내 종합대학
5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국제화는 국내 1위다.
특히 연구 영역에서 탁월한 성취를 보이고 있다.
인공지능융합혁신인재양성 사업 등
연구지원 사업도 꾸준히 수주하고 있다.
21세기 들어 대학의 존재 이유를 재확인하고
핵심가치를 강화해온 결과다.
경희의 학술 역량은 교육으로,
사회공헌으로 이어진다.

‘학문과 평화’ 두 축으로 ‘대학다운 미래대학’ 열어가다

QS 세계대학평가·THE 세계대학평가 역대 최고 백분위 경신
글로벌 백신 기술 선도 사업단장, AI융합혁신인재양성 사업 선정 등
국책사업 잇달아 수주

THE 세계대학평가 피인용·연구 실적 국내 종합대 5위

2022년 경희는 영국의 대학평가 기관인 QS(Quacquarelli Symonds)에서 주관하는 세계대학평가에서 270위를 기록했다. 백분위 기준으로 살펴보면 평가대상 중 상위 19%에 오르며 역대 최고 백분위를 달성했다. 아시아대학평가에서는 42위에 이름을 올렸다. 평가 대상 중 상위 5.5%에 오르며 역대 최고 백분위를 나타냈다. 국내 종합대 순위는 세계와 아시아대학평가 모두 6위를 유지했다. 타임스 고등교육(Times Higher Education; THE)이 주관하는 세계대학평가에서는 283위(국내 종합대 6위), 아시아대학평가에서는 31위(국내 종합대 5위)를 기록했는데, 평가 대상 중 각각 상위 15.7%, 3.7%를 차지해 역시 역대 최고 백분위를 경신했다.

경희는 연구 영역에서 국내 상위권 대학으로 평가받고 있다. 연구 분석 프로그램인 SciVal로 분석한 논문 생산성에서 QS 평가 기준 전년 대비 국내 종합대 2위의 상승률(4.82%)을 달성했으며, 연구의 질적 수준을 반영하는 정규화 피인용 지수(FWCI)는 국내 종합대 3위에 올랐다. THE 세계대학평가에서도 올해 피인용과 연구 실적 순위는 국내 종합대 5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성과는 융복합 연구를 독려하고, 연구의 질적 개선을 통해 도출한 결과로 풀이된다. 논문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에서 국내 5위권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은 물론, 원천기술 개발과 기술 사업화의 고도화를 통해 특허출원과 산학협력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

최근 발표된 '2022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는 종합 8위에 올랐다. 교수연구 영역에서는 전년 대비 2계단 상승한 7위를 달성했다. 특히 인문사회 국내 논문당 피인용 3위, 국제학술지 논문당 피인용 4위, 과학기술교수당 기술이전 수입액 6위를 차지하며 연구의 질적 탁월성을 반영하는 논문 피인용과

경희대 THE 세계대학 영향력 평가 항목별 순위



경희대 QS·THE 대학평가 결과



기술이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교육여건과 학생성과 영역은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경희는 올해 평가에서 교육여건 25위, 학생성과 17위에 머물렀다.

교육여건 순위 하락은 2021년 학부생 등록이 역대 최고 수준을 보이며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졌고, 국제캠퍼스 우정원 기숙사 일부를 교수 연구실로 전

환하며 기숙사 수용률이 낮아진 데서 주로 기인했다. 2022년 장학금을 작년 대비 20억 원 이상 증액한 데 이어 캡스톤 디자인과 같은 문제해결형 소규모 강의를 확대해 해당 영역을 개선하고 있다. 학생성과 영역에서는 현장실습 학생 파견이 부진했다. 2022년에는 참여기업 수를 대폭 늘리고, 최저임금 부족분을 학교에서 지원하며 2021년 274명에서 크게 향상된 700명을 목표로 신청받았다. 이러한 노력으로 차년도 평가의 지표 개선이 기대된다.

경희는 미래교육·학습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학문의 경계를 넘어서는 융합형 교육·학습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과 데이터 분석 역량 교육을 강화하는 등 미래지향적 학사구조 혁신을 시작했다. 마이크로디그리(Micro Degree)와 학생설계전공 도입이 대표적이다. 미래사회의 대학 경쟁력을 좌우하는 과학기술 학문의 융복합형 역량 강화에도 주력하고 있다.

지역 과학기술 성과 실용화 지원 사업, 공간정보 특성화대학교 선정 등 대외 연구비 수주

대외 연구비 수주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경희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공모한 '글로벌 백신 기술 선도 사업단'의 사업단장에 선정됐다. 경희는 2022년부터 5년간(3+2년) 1,127억 원 규모의 사업을 이끈다. 이번 사업 선정은 대학과 의료기관이 협력해 거둔 쾌거다.

글로벌 백신 기술 선도 사업단(사업단장)은 백신 개발 R&D 기획과 운영 전문성에 중점을 뒀다. 사업단은 세부 사업으로 △신속·범용 백신 개발 △미래 성장 고부가가치 백신 개발 △백신 기반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사업단은 국내 백신 기술개발 동향과 생산기업 수요조사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보건복지부와 함께 신규 과제를 기획한다. 아울러 5년 동안 46개 이상의 신규 과제를 선정·관리하고, 세부 과제의 후속 공동연구와 기술이전 등 연구성과 활용에 필요한 국내외 유관기관, 기업과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또한 신·변종 감염병 mRNA 백신 사업단, 백신 실용화 기술개발 사업단 등과 협력해 성과연계를 추진한다.

경희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지원하는 '인공지능 융합혁신 인재양성 사업'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인 인공지능 융합기술 분야에 실무형 고급인재를 양성한다. 경희대는 '실전적 AI 융합 인재 양성을 통한 세계 50대 AI 교육기관'을 목



신현숙 간호학과 교수팀이 교육부가 추진하는 '국제협력선도대학육성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사업단은 개발도상국인 키르기스 공화국의 보건으로 질적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한다.

표로 사업을 진행한다. 사업 동안 정부 연구비 지원 52.5억 원과 대외 자금 52.5억 원 등 총 105억 원을 투입해 인공지능 인재를 양성한다.

경희는 목표 달성을 위한 두 가지 실천 전략으로 △P.O.W.E.R. AI ConvEdu 4.0 교육 △S.M.A.R.T. 기반 산학 공동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P.O.W.E.R. AI ConvEdu 4.0 교육은 이론·실전적 연구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과 체계다. 학생 개인별 핵심 연구 분야에 따라 교과과정을 제공해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경희는 'S.M.A.R.T. 기반 산학공동 프로젝트'를 실천 전략으로 추진한다. 4대 인공지능 융합연구 분야를 중심으로 미래 고성장성이 기대되는 국내 대표 인공지능 기술 기반 중소·벤처 기업을 선정하고, 이들과 공동으로 공동연구, 기술이전 및 관련 산업 분야 전문가 육성을 수행한다. 또한 인근 지역 산업 특성을 고려해 인공지능 벨트를 구축하고, 인공지능 클리닉 센터를 설립해 산학협력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인공지능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해 인공지능 브레인 허브를 구현한다. 이를 위한 기금 모금 프로그램인 'AI for Humanitas'를 발족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위한 장비 구매 및 운영에 활용한다. 인공지능 융합 교육과 연구를 담당할 세계적인 전문가도 추가로 채용해 역량을 한층 강화한다. 우수 인재에 대한 지원도 계속된다. 박사과정 재학생 전원에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인공지능학과 전용 공간 확보 등의 환경개선 활동을 펼쳐 연구에 매진할 환경을 제공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진행하는 '2022년도 지역 과학기술 성과 실용화 지원 사업'에 경희대가 선정됐다. 첨단공공과학기술 실용화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이 사업은 경희가 주관하고, 고려대와 KIST가 참여한다. 사업단은 6년간 약 79억 원을 지원받아 경희대-고려대-KIST 'K3'가 공동 운영하는 학위과정을 만들 계획이다.



우주과학과가 대한민국 최초의 달 탐사선인 '다누리(KPLO)'에 탑재되는 자기장 측정기를 개발하며 우주 개척 시대의 일원으로 참여했다.

사업단은 '첨단기술비즈니스 학과'를 신설해 석사 180명, 박사 30명, 총 210명의 첨단공공과학기술 실용화 리더를 양성한다. 학과는 기술력을 갖고 직접 창업하는 '창업 전문인력 트랙'과 창업 과정에서 창업가를 돕는 '정책 전문가 트랙'을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기술 중심의 이공계열뿐 아니라, 정책 중심의 인문사회계열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융합 교육의 성격을 띤다. 창업 정책 전문가를 양성하는 경희는 경영대학 교수진이 사업에 대거 투입된다.

경희가 교육부와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공간정보 특성화 대학교'에 선정됐다. '공간정보 특성화대학 사업'은 정부가 미래 신산업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정보 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황철수 지리학과 교수팀(이하 사업단)은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스마트시티, 드론 등의 혁신과제를 통해 인재를 양성한다. 사업단은 3년간 약 45억 원을 지원받는다.

사업단은 21세기 도시가 지향하는 스마트시티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세부 사업명은 '뉴노멀(New Normal) 위기 도시 공간과 도시민을 위한, 스마트공간 의사결정 융합인재 양성'이다. △시공간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데이터 기반 도시관리 전문가 △포용도시·포용 국토 관리 전문가 △도시의 기후환경 데이터 분석 등의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게 목표다.

환경부가 지난해 공고한 '2022년도 환경기술 개발 사업'에 의학과 김진배 교수와 의예과 박은정 교수가 선정됐다. 김진배 교수는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핵심 기술개발 사업'에 '미세

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복합노출에 의한 순환계질환 예방 기술품개발' 과제로 5년간 53억 원을 지원받는다. 박은정 교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기술개발 사업'의 'MoA특성 기반 제품 중 복합혼합물 대상 인체 독성영향평가 기술개발' 과제로 3년간 약 17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공과대학 환경학 및 환경공학과 유가영 교수팀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지원하는 '2022년도 제2차 에너지기술 개발 사업'에 선정됐다. 에너지기술 개발 사업은 탄소중립 시대 실현과 그린뉴딜 사업에 필요한 기술 개발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유가영 교수팀은 인력양성 분야 에너지 융합대학원에 선정됐다. 에너지 융합대학원은 탄소중립 컨설팅 및 갈등관리에 필요한 에너지-사회과학 융합인재를 양성하고, 5년간 약 47.5억 원을 지원받는다.

신현숙 간호학과 교수팀이 교육부가 추진하는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국내 대학의 자원과 역량을 활용해 개발도상국가 대학에 필요한 학과 구축 및 지역사회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교육부의 대표적인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다. 신현숙 교수팀은 경영대학과 함께 'Bright Kyrgyzstan - Leading University Project for International Collaboration 사업단'을 꾸려 사업에 지원했고, 지난해 12월 최종 선정돼 4월부터 7년간 27억 원을 지원받는다. BK-LUPIC 사업단은 개발도상국인 키르기스 공화국(키르기스스탄)의 보건으로 질적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한다. 경희대는 사업 선정에 따라 KSMA의 감염 대응 및 보건으로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간호교육 선진화 사업을 진행한다.

경희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NIA)이 지원하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의 '한국 전통 수목화 화풍별 제작 데이터' 과제에 선정됐다. 미술대학 나형민 교수를 총괄책임자로 서울대 산학협력단과 경희대 출신 스타트업인 ㈜올빅넷, 한국딥러닝(주)가 참여한다. 목표는 △한국전통 수목화 디지털 콘텐츠 제작 활성화 △인공지능 미술시장 확대 △한국전통 수목화 이미지 데이터 세트 구축이다. 사업팀은 실사사진, 일러스트 이미지, 유명 서양화가 포함된 2,334장의 원본 이미지를 3종류의 수목화 작품으로 제작한다. 인공지능 학습에 이 작품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향후에는 새로운 화풍의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변환할 수 있게 돕는다.

학술의 탁월성 추구, 연구력 향상으로 이어져

우주과학과가 대한민국 최초의 달 탐사선인 '다누리(Korea Pathfinder Lunar Orbiter, KPLO)'에 탑재되는 자기장 측정기를 개발하며 우주 개척 시대의 일원으로 참여했다. 우주과학과 진호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자기장 측정기는 달까지 가는 항행 기간과 달 궤도에서 달 주위 공간, 달 표면의 자기 이상 지역의 자기장 분포와 파동을 관측한다. 진호 교수는 "다누리가 달에 도착하기까지 4.5개월의 시간이 남았다. 모든 순간이 긴장의 연속이지만, 이 순간을 이겨내 필요한 자료를 관측해나갈 것"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우주과학과는 '세계 수준의 연구 중심 대학(World Class University, WCU)', 'BK21 Plus' 등의 대형사업을 연달아 수주하며 연구 기반을 구축했고, 기술력을 축적해왔다. 2012년과 2013년에 초소형 인공위성을 발사했고, 2018년에는 천리안 2A호에 탑재된 우주 기상 탑재체를 개발하기도 했다. 이번 달 탐사선 역시 이러한 풍토를 바탕으로 쌓아온 결과물이다. 우주과학과는 다누리 탑재체 개발 이후로도 다양한 우주 탐사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우주과학과 선종호 교수는 미국항공우주국(NASA)이 주관하는 'CLPS(Commercial Lunar Payload Services, 민간 달 착륙선)'에 참여한다.

의예과 김도경 교수가 소변으로 자궁경부암을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김도경 교수는 해당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Sensors and Actuators: B. Chemical>(JCR 상위 4%)에 발표하고, 특허출원도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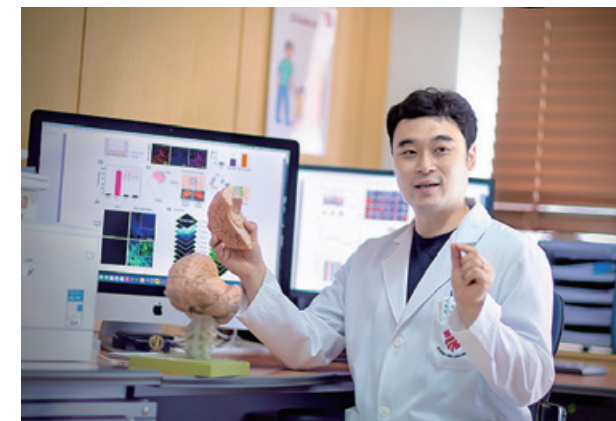
했다. 김도경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 소변 내의 시스테인(cysteine)을 선택적으로 검출해 암을 조기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어 자궁경부암 환자군을 포함한 1,700여 명의 임상 환자군에서 실제 자궁경부암 진단 가능성도 확인했다. 별도의 시료 전처리 과정 없이 소량의 소변으로도 효과적으로 자궁경부암을 진단할 수 있음을 확인해 연구의 임상학적 활용 가능성을 높였다. 개발한 기술의 특허출원도 완료했다. 김도경 교수는 자궁경부암 외에도 기타 암종의 진단 확정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지리학과 이은걸 교수가 미국 국립 직업 안전보건 연구원의 호흡기건강과 박주형 박사와 함께 뇌우와 급성 천식 발작과의 연관성을 밝혔다. 관련 연구성과는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기관인 국립 환경 보건 과학 연구소(NIEHS)에서 발행하는 공식 저널인 <Environmental Health Perspectives, EHP>(IF=11.035)에 게재됐다.

이은걸 교수는 미국 루이지애나주의 기후 데이터와 천식 환자의 급성 천식 발작으로 인한 응급실 방문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2010년부터 2012년 3년 동안의 기후 데이터와 의료 데이터를 활용했고, 분석 결과 뇌우로 비가 많이 오거나 기온이 내려간 상황에서 급성 천식 발작으로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가 늘었다. 연구의 의미는 뇌우천식 조기 경보 시스템의 필요성을 대두시켰다. 뇌우 예보가 뜨면, 기저질환으로 천식이 있는 개인은 천식 의약품을 미리 구비하고 병원은 의약품을 미리 비축하는 등의 대비가 가능하다.

한의과대학 김성광 교수 연구팀이 서울대학교 의과대

의예과 김도경 교수가 소변으로 자궁경부암을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학 김상정 교수 연구팀과 함께 **뉴로이미징-AI 융합기술을 활용해 세계 최초로 생쥐가 느끼는 통증을 실시간 측정하는 데 성공했다.**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진행된 이번 연구는 8월 18일 의학 분야 유수의 저널 중 하나인 <실험 분자의학(Experimental & Molecular Medicine, EMM)>(IF=12.178)의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김선광 교수 연구팀은 최신 현미경 기법인 ‘생체 내 다광자 칼슘 이미징(In Vivo Multi-photon Calcium Imaging)’을 활용해 깨어 있는 생쥐의 대뇌피질에서 수백 개의 신경세포 활동을 동시에 기록하고 딥러닝 알고리즘인 ‘AI-bRNN’ 기술로 분석해 생쥐가 언제, 얼마나 아픈지를 객관적으로 정량화하는 데 성공했다. 이 뇌신경-AI 융합기술을 기존 진통제의 효능평가에 적용한 결과, 임상에서 나타나는 결과와 가장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번 연구 결과는 **항후 만성 통증의 진단 및 진통제 혁신 신약 개발에 광범위하게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계공학과 김두호 교수 연구팀이 나트륨 이차전지의 한계 극복을 위해 양극재의 산소 산화환원 반응을 주제로 고려대 화공생명공학과 유승호 교수 연구팀과 공동 연구했다. 김두호 교수 연구팀은 현재 고착돼 있는 **나트륨 이차전지 양극재의 산소(음이온) 산화반응 한계 극복 방법을 제시하고, 그 원인을 규명했다.**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학술지 <어드밴스드 에너지 머티리얼즈(Advanced Energy Materials, IF=29.368)>에 최근 게재됐다. 김두호 교수는 “이번 연구로 나트륨 이차전지 개발의 맹점으로 작용한 산소 산화환원 반

박상희 시각디자인학과 교수 연구팀이 국립익산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의 MI(Museum Identity) 및 캐릭터 디자인을 개발했다. 학생이 디자인에 직접 참여하고, 결과물을 도출해 한층 뜻깊다. 사진 왼쪽부터 시각디자인학과 박재현(17학년) 학생, 박상희 교수, 이서율(석사2기) 학생.



응 열화현상을 해결할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논문 제1저자로 연구에 주도적 역할을 한 구소정 학생(기계공학과 석사 4기)은 “산소 산화반응을 연구한 역사가 짧지만, 국내외 석학이 관심을 가져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며 산소 산화반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상희 시각디자인학과 교수 연구팀이 **국립익산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의 MI(Museum Identity) 및 캐릭터 디자인을 개발했다.** 익산은 삼국시대 백제 문화의 정수가 담겨있는 고도(古都) 중 하나다. 익산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존하는 국립익산박물관 산하 어린이박물관이 지난 1월 11일(화) 개관했다. 박상희 교수 연구팀은 ICT 기술을 활용해 익산과 어린이박물관의 정체성을 강화한 MI와 캐릭터를 만들었다.

학생이 디자인에 직접 참여하고, 결과물을 도출해 한층 뜻깊다. MI 개발에 참여한 박재현(시각디자인학과 17학년) 학생은 “디자인한 결과물이 실제 박물관에 적용되는 만큼 질적인 완성도가 가장 큰 걱정이었다. 교수님을 비롯한 연구팀의 도움으로 프로젝트를 마칠 수 있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조형물 개발을 맡은 이서율(시각정보디자인학과 석사2기) 학생은 “직접 디자인한 결과물이 실제로 구현되는 장면을 보고 감격스러웠다. 익산 최초의 어린이박물관 개관 작업에 참여할 기회를 받아 감사하다”고 말했다.

장대식 약학대학 교수가 기초과학연구원(IBS)과 공동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자생식물인 **별개미취(Aster koraiensis Nakai)와 더덕(Codonopsis lanceolata Trautv)에서 분리한 사포닌들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억제하는 매커니즘을 규명했다.** 별개미취에 함유된 ‘아스터 사포닌 I(Astersaponin I)’과 더덕에 함유된 ‘란세마사이드 A(Lancemaside A)’ 사포닌을 연구했고, 이들이 코로나바이러스의 세포 내 침입의 주요 기작인 세포막 융합을 저해해 세포 내 감염을 억제함을 새롭게 규명했다. 관련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 <항바이러스 연구(Antiviral Research)> 10월 온라인판과 <항균제 및 화학요법(Antimicrobial Agents and Chemotherapy)> 11월 온라인판에 각각 게재됐다.

‘경희 문학’ 위상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이문재(국어국문학과 78학번)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가 시 <혼자의 넓이>로 ‘제33회 정지용 문학상’을 받은 데 이어, 올해는 손보미(국어국문학과 99학번)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가 장편소설 <불장난>으로 ‘제45회 이상 문학상’에서 대상을 받



박상원 스마트관광원 교수와 임종환 식품영양학과 고희명예교수가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가 선정하는 ‘2022년 세계 상위 1% 피인용 우수 연구자(HCR)’에 선정됐다. 2021학년도에 임용된 박 교수는 첫 선정이고, 임 교수는 7년 연속 선정이다.

았다. 임현석(국어국문학과 05학번, 동아일보 기자) 동문은 단편소설 <무료나눔 대화법>으로 ‘2022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등단했다. 경희 문학은 신춘문예에서 꾸준히 문인을 배출하고 있으며, 경희 출신 문인들의 문학상 수상 소식도 이어지고 있다.

과학기술융합 도약장 수어, 세계 상위 1% 연구자(HCR) 선정 등 연구 업적·공로 인정 받아

김우식 (국제)학부부총장이 ‘2022년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기술융합 도약장을 받았다. 과학기술융합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이다. 김우식 부총장은 결정기능화공정기술센터 과제 수행, 결정화 기술 신산업 창출, 국제학술대회 ‘아시아 결정화 기술 심포지엄(Asian Crystallization Technology Symposium, ACTS)’ 창립 등의 공적을 인정받았다.

박상원 스마트관광원 교수와 임종환 식품영양학과 고희명예교수가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Clarivate Analytics, 옛 톰슨로이터)가 선정하는 ‘2022년 세계 상위 1% 피인용 우수 연구자(Highly Cited Researcher, HCR)’에 선정됐다. 박상원 교수는 2021학년도 부임 후 첫 선정이고, 임종환 교수는 7년 연속 선정이다.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는 웹 오브 사이언스(Web of Science)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매년 HCR을 선정한다. 선정 전 10년간 연구 성과를 활용하는데, 올해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발표된 논문과 피인용을 대상으로 했다. 총 22개 분야에서 전 세계 총 7,225명의 연구자를 선정했다.

2021학년도 경희대에 부임한 박상원 교수는 사회과학(Social Science) 분야에서 선정자가 됐다. 박 교수의 주요 연구 분야는 호텔 관광 마케팅, 테크놀로지, 빅데이터 등이다. 영국 경제부와 홍콩 정부 등과 다수의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관광공사, 제주관광공사와 빅데이터 활용 관광 분석 프로젝트를 수행했고, 관련 성과들을 발표하고 있다. 임종환 교수는 농학(Agricultural Science) 분야에 선정됐다.

임 교수는 생분해성-기능성 나노복합지트(nanocomposite) 포장재 개발 등으로 관련 분야를 선도해온 연구자다. 30여 년간 국내외 학술지에 24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2019년에는 관련 성과를 인정받아 제5회 대한한림식품과학상을 수상했고, 2014년 한국식품포장학회 학술대상,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 지식창조대상, 2017년 한국식품과학회 학술대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HCR 선정은 2016년부터 7년째다.

경희대는 **세계 상위 2% 연구자도 45명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 기술, 의학 분야의 학술 연구 출판 및 정보 분석 기업인 엘스비어(Elsevier)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2개 학문 분야 174개 세부 주제 분야별 세계 상위 2% 연구자에 경희대 연구자 45명이 포함됐다. 세계 최대 논문 인용 데이터베이스인 스코퍼스(Scopus)를 기준으로 2021년까지의 논문 피인용도에 따른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다.

잔 라크만상은 롬 메모리(ROM Memory)를 처음으로 고안한 라크만 박사를 기념해 1993년 제정된 상으로 국제정보 디스플레이 학회(Society for Information Display)에서 평판 디스플레이 기술이나 과학 발전에 뛰어난 업적을 이룬 사람에게 수여한다. 정보디스플레이학과 장진 고희명예교수가 박막트랜지스터(TFT)-디스플레이(Display) 분야의 업적을 인정받아 **잔 라크만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장진 교수는 박막 트랜지스터와 관련해 많은 업적을 쌓았다. 그는 박막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플렉시블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시제품과 고성능 평판 디스플레이를 세계 최초로 구현하며 연구 탁월성을 입증했다.

중앙실험동물센터 개소, AI 서버실-X-Space 구축

‘중앙실험동물센터’가 개소했다. 중앙실험동물센터는 동물 실험 구역 140평, 기계실 구역 14평 등 총 154평으로 이뤄졌고, 서울캠퍼스 스페이스21 한의학관 10층에 자리 잡았다. 중앙실험동물센터는 국제실험동물관리평가인증협회



중앙실험동물센터가 개소했다. 이 센터는 동물 실험 구역 140평, 기계실 구역 14평 등 총 154평으로 이뤄졌다. 사진은 이 센터의 모습으로, 실험동물별 케이지와 소독 장비 등을 갖췄다.

(AAALAC-International)의 인증기관 자격 획득을 추진 중이다. 중앙실험동물센터는 특정병원체무재동물(Specific Pathogen Free, SPF) 설치류 사육구역, 일반 설치류 사육 구역, 감염 설치류 사육구역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바이러스와 같은 오염물질의 발생을 막는 고압멸균기(Autoclave), 공기처리장치(IVC Air Handling Unit), 특수 개별 환기 사육 장치(ISO CAGE-PTM Unit Cages per Rack) 등을 설치했다. 개별 통로에도 에어샤워, UV샤워 시스템을 설치해 외부균의 유입을 막았다. 연구자와 동물, 소지 물품은 각각 다른 통로에서 소독 후 실험 공간으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실험동물의 관리에는 온도와 습도, 기압 관리가 중요한데, 실험동물 공간에 모두 조절 시스템을 설치했다. 이 시스템의 조정실은 중앙실험동물센터 옆에 위치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투자의 일환으로, 인공지능 실습을 위한 'AI 서버실'과 메타버스(Metaverse) 기반 실습 공간인 'X-Space'를 마련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지원으로 구축된 AI 서버실은 실전적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 시설이다.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의 기술은 단순 반복 연산이 많아 병렬 연산 능력이 뛰어난 GPU(Graphics Processing Unit)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부품으로 손꼽히는데, AI 서버실에는 GPU 서버 60대를 설치해 연구를 뒷받침한다. 서버실 설치로 실험실별로 분산돼 관리에 어려움을 겪던 서버를 통합해 효율성을 높였다. 대규모 서버실은 고성능 서버를 안정적으로 제공해 인공지능 연구와 교육·실습이 탄력받을 전망이다.

PBF, '평화 혹은 붕괴, 지구정치의 새 지평을 찾아서' 주제로 개최

경희학원이 2022년 9월 21일(수) '제41회 유엔 세계평화의 날 기념 Peace BAR Festival·미원 서거 10주기 기념식'을 주최했다. 행사는 경희학원 미원평화학술원,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경희사이버대학교 미래문명원, 경희대학교의료원 의과학문명원이 주관했다.

9월 21(수)에는 세계평화의 날·미원 서거 10주기 기념식과 기념 대담, 미원 서거 10주기 기념 심포지엄, 세계평화의 날 기념 라운드테이블이 이어졌다. 행사는 PBF 홈페이지(pbf.

khu.ac.kr)에서 실시간 중계했다. 20일(화)부터 22일(목)에는 경희대학교 캠퍼스 곳곳에서 세계평화주간 축제를 열었다.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 메시지의 필요성과 인류문명의 평화로운 미래를 위한 관심을 호소했다. 10월 14일(금)까지 서울캠퍼스 중앙박물관 중앙홀(중앙도서관 4층)과 국제캠퍼스 중앙도서관 로비에서 미원 서거 10주기 추모 전시회 '메시지, 미원의 삶을 담다'도 개최했다.

경희학원은 1981년 유엔이 제정·선포한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해 매년 Peace BAR Festival을 개최하고 있다. 2022년에는 세계평화의 날 제정을 최초로 제안한 경희학원 설립자 미원(美源) 조영식 박사의 서거 10주기를 기념하는 행사를 함께 진행했다. '평화 혹은 붕괴, 지구정치의 새 지평을 찾아서'라는 대주제 아래 전례 없는 복합위기에 처한 인류가 촉발한 환경·생태 해악을 바로잡고 미래의 지속성, 새로운 가능성을 향한 가치의 새 지평을 찾아나섰다.

경희학원은 인간이 파괴한 지구 행성에서 우리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물었다. 우리 모두가 마주한 문명사적 위기에 주목하며 새로운 문명의 지평을 열어가길 시민의식의 확장을 촉구했다. 경희학원 설립 정신에 깃든 우주와 인간, 자연과 세계, 거시와 미시를 함께 바라보는 전일적 사유에서 현 위기를 넘어 실마리를 모색했다.

기념식에서는 미원 서거 10주기 기념 영상 에세이 《전환의 시대, 평화의 책무》를 상영하고, 설립자 연설문 선집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땅을 보라』를 봉정했다. '실존의 순간, 전일사관(全一事觀)의 새 물결'을 주제로 조인원 경희학원 이사장이 대담자로 참여하는 기념 대담도 진행했다. 미원 서거 10주기 기념 심포지엄에서는 설립자의 평화사상을 조명했다. '평화는 개선(凱旋)보다 귀하다'를 주제로 설립자가 제시한 새로운 인간의 길, 지구문명의 길이 유례없는 문명사적 위기에 처한 오늘의 인류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를 탐색했다.

출판문화원, 2022년 세종도서 3종 선정

출판문화원이 발간한 도서 3종이 '2022년 세종도서'에 선정됐다. 학술 부문에 1종, 교양 부문에 2종이 선정됐다. 학술 부문의 『란다의 유가만 견문록』(송영복 외국어대학교 교수)과 교양 부문 『햇빛도 때로는 독이다』(박은정 의과대학 교수), 『동해 명칭의 국제적 확산』(동해연구회 회장, 주성재 이과대학 교수)이 그 주인공이다.

세종도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해 선정한다. 우수 도서의 출간을 독려하고, 국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사업이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초판 발행된 도서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올해는 학술과 교양 부문에 각각 2,427종과 8,698종이 접수돼 400종과 550종이 선정됐다. 선정된 책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권별로 8백만 원 이내로 구입해, 11월부터 전국 공공도서관을 포함한 2,500여 곳에 보급한다.

UN 세계평화의 날 제정을 처음 제안한 경희학원 설립자 미원(美源) 조영식 박사 서거 10주기를 맞아 양 캠퍼스 중앙도서관에서 서거 10주기 추모 전시회 '메시지, 미원의 삶을 담다'를 열었다.



마음껏 배우고, 마음껏 꿈꾸다 경이로운 목련과 웃는 사자들

전공 역량 강화로 각종 대회 수상 잇달아
“선후배 교류, 동아리 활동도 성과에 큰 보탬”

학생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상상력과 창의력, 실천력을 키워나가는 ‘마음껏 배우고 마음껏 꿈꾸는 대학’. 이것이 경희대가 추구해온 대학의 참모습이다. 경희는 ‘교육에서 학습으로, 학습에서 실천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학생과 교수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교학상장(敎學相長)의 새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2022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학생들은 지속가능한 삶을 탐색하며 더 많은 미래를 열어갔다. 경희를 빛낸 학생들을 소개한다.

한약사·한의사 국시 수석 배출

강다현(한약학과 18학번 졸업, 대학원 1기 재학) 학생이 ‘제23회 한약사 국가시험(이하 국시)’에서 수석을 차지했다. 약학대학에서 한약사 국시 수석 배출은 10년 만이다. 강다현 학생은 250점 만점에 225점을 취득하면서 수석합격의 영광을 누렸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따르면 이번 회차 한약사 국시 합격률은 82.6%인 가운데 경희대 한약학과 2월 졸업생 기준 합격률은 85.36%다. 경희대 한약학과는 경희대

학교한방병원 실습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실무 중심 교육을 제공한다. 강다현 학생은 “한방병원에서 한약재를 실제로 만져보면서 이론을 실습했던 게 우수한 성적을 거둔 비결”이라고 전했다.

한약사 국가시험 수석 발표에 이어 한의사 국가시험에서도 수석합격자가 나왔다. 이주엽 한의학과 16학번 졸업생이 ‘제77회 한의사 국가시험(이하 국시)’에서 340점 만점에 316점으로 공동 수석합격을 차지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따르면, 서울 등 전국 7개 지역에서 시행된 이번 국시 합격률은 97.1%이고, 경희대 한의과대학 국시 합격률은 2월 졸업생 기준 98.27%로 나타났다. 경희 한의과대학은 최근 20년간 치러진 한의사 국시에서 가장 많은 수석합격자를 배출했다. 이주엽 졸업생은 “국시 과목이 학부 과목에 모두 포함돼 있다”며 “경희대 한의과대학 정규 교육과정만 잘 따라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규 교육과정에 충실했던 그는 2021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에서 한의대 차석으로 졸업했다.

제23회 한약사 국가시험에서 수석을 차지한 강다현(한약학과 18학번 졸업, 대학원 1기 재학) 학생. (사진 왼쪽)
제77회 한의사 국가시험에서 수석 합격한 이주엽(한의학과 16학번) 동문. (사진 오른쪽)



제59회 전국신인무용경연대회에서 금상을 차지한 강승현(무용학부 19학번) 학생. (사진 왼쪽)
제14회 대한민국 도시숲 설계공모에서 최우수상을 거머쥔 환경조경디자인학과 재학생 팀이 제출한 도시숲 설계 패널. (사진 오른쪽)

무대에서 가장 나다운 순간, 무용학부 각종 콩쿠르 수상

강승현(무용학부 19학번) 학생이 ‘제59회 전국신인무용경연대회’에서 금상을 받았다. 강승현 학생은 <어웨이크닝 오브 플로라(The Awakening of Flora)>에서 청춘의 여신 ‘헤베(Hebe)’를 연기했다. 그는 경희대가 다른 대학과 비교해 이론 수업의 질이 높고 연습 공간과 시설이 매우 좋다고 평가하며, “전공 강의인 김지영 교수님의 <발레작품실습>에서 매주 다른 작품의 한 장면을 배운다. 주인공의 상황, 성격, 마임, 테크닉 등을 통해 캐릭터를 연구했던 부분이 대회를 준비할 때 가장 많이 도움 됐다”고 강조했다.

무용학부 현대무용 전공에서도 두 차례 수상 소식을 전해왔다. 박준영 학생(무용학부 19학번)이 ‘제40회 전국대학무용경연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데 이어 이유진 학생(무용학부 19학번)이 ‘제52회 동아무용콩쿠르’ 일반부에서 은상을 받았다. 박준영 학생이 대상을 받은 ‘전국대학무용경연대회’는 전국 대학생이 한자리에 모여 경연하는 전국 유일의 대회로, 매년 충북무용협회에서 개최하고 있다. 무용인 사이에서는 대학 무용 인재를 키우는 관문으로도 통한다. 박준영 학생은 “전체 대상이라는 큰 상은 처음 받아본다”며 “교수님들 덕분에 좋은 결과를 남길 수 있었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박준영 학생은 “작품 제작과 창작 관련 실기 전공 수업을 들으면서 나만의 작품을 만드는 역량을 쌓았다”고 전했다.

이유진 학생은 춤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는 작품인 ‘그 바람이 시작이었다’를 창작해 호평을 받았다. 이유진 학생도 무용학부 실기 전공 강의를 기반으로 이번 콩쿠르를 준비했다. 그는 “실기 강의를 기본기를 잡아주고, 다양한 방법으로 창작의 폭을 넓히게 해주는 등 부족했던 부분을 섬세히 채워줬다”

며 “경희대 무용학부에 우수한 교강사가 많아서 발전의 폭이 넓다는 것을 직접 배우며 많이 느낀다”고 말했다.

사람과 문화, 자연이 어울리는 도시숲을 그린다

‘제14회 대한민국 도시숲 설계공모’에서 환경조경디자인학과 재학생 팀이 최우수상을 거머쥘었다. 환경조경디자인학과 18학번 박성은, 이주영, 이현승 학생은 졸업 전 공모전에서 수상하는 것이 목표였다고 입을 모아 얘기했다. 이주영 학생은 “이번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이라는 큰 상을 받았다. 팀이 지난 해보다 발전해 기쁘고, 입상이라는 목표를 이뤄 너무 기쁜 마음”이라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학생들은 경북 영양군을 대상으로 도시숲 설계에 나섰다. 설계한 도시숲의 전체적인 콘셉트는 사람과 문화, 자연의 ‘어울림’이었다. 이주영 학생은 “자연을 생각하는 생태적 측면과 소외된 농촌에서 사람이 즐길 거리가 어려워 활성화를 꾀했다”고 말했다. 이현승 학생은 “전공 수업뿐만 아니라 선후배 교류, 동아리 활동도 큰 도움이 됐다. 또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방향을 잡아주시는 지도교수님께 감사드린다”고 언급했다.

건축공학과 재학생 팀, 전국대학생CM 경진대회 대상 수상

건축공학과 17학번 염태수, 19학번 박지선, 장은세, 정수현 등 재학생 4명이 뭉쳐 제7회 전국대학생CM(건설사업관리, Construction Management) 경진대회에 출전해 대상을 받았다. 이들은 ‘송파구 아파트 리모델링’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박지선 학생은 “리모델링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려면 사업성이 확보돼야 한다. 이를 기준으로 사업지를 검토했고, 대상 지역을 선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수현 학생은 “해



국도교통부 주관 한국건축문화대상 학생 설계 공모전 부문 대상을 수상한 이주현(건축학과 17학번) 학생. (사진 왼쪽)
GTEP 사업단 16기 중 한 팀이 베트남의 뷰티-육아용품 박람회 참여해 1천만 원 이상의 수출성과를 달성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재영, 임지혜, 박소현, 박희수, 손지훈, 신지윤, 김승준 학생. (사진 오른쪽)



당 지역에 노후화된 아파트가 많아,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점도 부합했다"고 덧붙였다. 학생들은 경진대회 수상에 이르기까지 건축공학과 수업이 큰 보탬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장은세 학생은 "사업관리 기초부터, 건설관리 일반, 건설사업 관리 등의 과목을 수강하며 건설사업 관리에 관한 이론적 토대와 전문 지식을 체계적으로 쌓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한국건축문화대상 학생 설계 공모전 대상 수상

건축학과 이주현 학생(17학번)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한국건축문화대상' 학생 설계 공모전 부문 대상을 받았다. 한국건축문화대상은 건축인의 창작 의욕을 높이고, 신진 건축가를 등용하는 무대로 한국 건축의 미래를 열어가는 권위 높은 대회다. 이번 대회에서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도시'가 주제였다. 이주현 학생은 도심항공모빌리티(Urban Air Mobility) 상용화에 따른 도시구조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교통체증을 해결할 방안을 고민하다 도심항공모빌리티를 해결책으로 뽑았다. 실제로 세계 각국에서 도심항공모빌리티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역시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도입 계획을 수립했다. 대회 심사위원은 '친환경 기술, 시스템 등 기술적 부분이 구체적으로 설계돼 눈에 띈다'는 평을 남겼다. 이주현 학생은 "실무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수님이 많아 현실적인 부분을 고민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세밀한 접근이 가능했다. 또한 원론 단위부터 도시계획까지 작은 단위부터 큰 단위까지 단계적으로 설계된 교육과정으로 졸업을 앞둔 지금 다양한 범위에 맞춰 설계할 수 있다"며 건축학과의 강점을 소개했다.

GTEP 사업단 참여 학생들, 1천7백만 원 수출성과 달성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이하 GTEP)'은 글로벌 무역 인재를 양성하는 실천적 산학협력 프로그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아카데미가 운영·관리하는 사업인데, 경희는 2021년 'GTEP 15~17기 사업'에 선정됐다. 김학민 무역학과 교수가 단장을 맡아 양 캠퍼스 재학생과 교수, 미래혁신단 미래인재센터, 협력기업으로 사업단을 구성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경희는 '기업의 해외 진출'을 목표로 삼고 국경 간 전자상거래, 수출마케팅, 전시회 참여, 해외시장조사, 바이오헬스 및 친환경 무역 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2021년에는 38명의 학생이 참여했고, 2022년 1월부터 38명의 학생이 16기로 활동 중이다. 이들은 6개 팀으로 나눠 정규과정으로 협력기업들의 해외 진출 전략, 해외 마케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 중 무역학과 박희수 학생(18학번) 팀이 최근 수출성과를 올렸다.

박희수 학생 팀은 무역학과 손지훈, 임지혜, 신지윤 학생(이상 19학번), 같은 학과 이재영 학생, 사회학과 박소현 학생, 러시아어학과 김승준 학생(이상 20학번)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지난 2022년 8월과 9월 두 차례 베트남을 방문했다. 뷰티 박람회와 육아용품 박람회였는데, 이들이 담당하는 '머머코리아(Murmur Korea)'의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했다. 아이를 위한 목욕 및 피부 관리 제품 등을 판매하는 기업이다. 뷰티 박람회에서는 시장의 확장 가능성을 확인했고, 육아용품 박람회에서는 계약도 따냈다. 박람회에서도 완판의 성과를 얻었고, 현장에서 진행한 바이어 상담으로 1천만 원 이상의 계약을 달성했다.

사업단 단장인 김학민 교수는 "사업단 참여 학생들이 강의



2021년 마리 퀴리 장학생으로 선발된 김소윤(원자력공학과 석사2기) 학생. (사진 왼쪽)
인공지능 분야 국제학회에서 대학원생 분야 최우수 논문을 수상한 컴퓨터공학부 박성배 교수 연구실 김봉민(컴퓨터공학과 석사 4기) 학생. (사진 오른쪽)



실에서 수학한 이론을 기반으로 실천적인 경험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 이론을 배우면서 실제 무역 현장에 대한 궁금증이 크다는 점을 반증하는 예"라면서 "사업의 성과는 산학협력, 수출실적, 교육성과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참여하는 학생들이 졸업 후 산업계에 진출하면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다. 사업단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학생들이 보다 국제 기업을 정신을 보유했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제원자력기구 마리 퀴리 장학생 선정

UN 산하 국제원자력기구(이하 IAEA)는 마리 퀴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2020년부터 마리 퀴리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마리 퀴리 장학생은 원자력 분야에 전 세계적으로 부족한 여성 과학자 양성을 위한 장학 제도다. 2021년 마리 퀴리 장학생으로 김소윤(원자력공학과 석사2기) 학생이 선발됐다. 김소윤 학생은 "학부생 시절부터 석사 과정까지 원자력공학과와의 탄탄한 교육과정이 큰 도움이 됐다"며 선정 비결을 밝혔다.

학생이 제안한 개정안, 행정법 정책 추진 기초자료로 활용

함형준(법학전문대학원 13기) 학생이 법무부가 주최한 '제8회 법령경연 학술대회'에서 동아대 학생과 연합팀으로 대학원부 1등인 최우수상을 받았다. 총 573명의 대학·대학원생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법무부의관실 소관 대통령령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하는 대회다. 함형준 학생은 6개 주제 중 '행정법 관련' 주제를 선택했다. 과태료 재판 과정에서 국민 부담을 낮추고 과태료 징수 절차 개선을 제안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

행령 개정안'을 제시했다. 검사가 재판절차에 직접 참여하기 보다는 서면 의견제출을 원칙으로 해 국민의 부담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함형준 학생은 "법전원 진학을 준비하면서 같이 공부했던 친구와 대회에 나갔다. 다양한 법 관련 대회에 여러 차례 나갔는데, 수상은 이번이 처음이라 뜻깊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제 인공지능 학회 대학원생 최우수 논문상 수상

컴퓨터공학부 박성배 교수 연구실 김봉민 학생(컴퓨터공학과 석사 4기)이 인공지능 분야 국제학회인 'IEA/AIE 2022'에서 대학원생 분야 최우수 논문을 받았다. IEA/AIE는 과학, 산업, 자동화 및 로봇 공학, 비즈니스 및 금융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실생활 질의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 시스템 적용을 강조하는 학술대회다. 단순히 이론뿐만 아니라 응용 기술까지 아울러 매년 세계 각국에서 저명한 연사와 청중이 참여한다. 일본 후쿠오카에서 진행된 IEA/AIE 2022에 논문 80여 편이 통과됐고, 김봉민 학생의 논문이 최우수 논문상 중 하나로 선정됐다.

김봉민 학생은 "컴퓨팅 자원을 많이 요구하는 연구 주제임에도 연구실이 보유한 훌륭한 자원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연구할 수 있었다"며 수상 소감을 남겼다. 이어 "기존 질의 난이도 분석은 자연어 데이터만을 활용해 딥러닝 학습을 시켰다면 이번에는 자연어를 넘어 이미지, 영상 및 데이터 간 융합까지 범위를 확장했다"며 연구 의의를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과제인 'WiseKB : 빅데이터 이해 기반 자가 학습형 지식베이스 및 추론 기술 개발'의 한 부분으로 수행됐다.

경희에서 이룬 꿈과 희망 나눈다 학생, 교수, 동문 기부 행렬

구성원 기부, 코로나19 역경 극복의 밑거름
기부 프로젝트, 다양한 기부 잇달아

‘경희 가족’의 기부 행렬이 이어지며 경희가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역경을 슬기롭게 극복해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후배 사랑과 모교 발전을 실천하는 동문의 기부가 대표적이다. 전병익 동문(환경조경디자인학과 76학번)은 2006년부터 10여 년간 후배를 위한 장학금을 꾸준히 지원했고, 현재까지 누적 금액은 2억 3천여만 원에 달한다. 대외협력처는 2022년 10월 전 동문을 ‘매그놀리아 아너스클럽’ 회원으로 위촉했다. 아너스클럽은 발전기금 1억 원 이상을 기부해 경희 발전 및 위상 제고에 이바지한 기부자 예우를 위해 마련된 제도다. 아너스클럽 위촉식 이후 예술·디자인대학 505호는 전병익 강의실로 재탄생했다.

경희를 추억하기 위한 기부 이어져

박신광 동문(국어국문학과 63학번, ㈜한독모터스 회장)은 2021년 초 모교에 거액을 기부했고, 아너스클럽의 가입자가 됐다. 2022년 7월 아너스클럽 위촉식이 열렸다. 박신광 동문은 “경희는 제 꿈과 희망을 이룬 곳”이라며 “사랑하는 후배들도 이 꿈, 도전정신, 희망을 품었으면 좋겠다”라고 후배들을 응원했다. 박신광 동문의 기부와 해봉장학금 조성을 기념하며 문과대학 305호를 ‘해봉강의실’로 지정했다.

2022년 6월, 서울캠퍼스 본관에서 ‘음악대학 발전기금 전달식’이 열렸다. 91년 대학 졸업 후 미국으로 건너가 뉴욕과 뉴저지 등에서 슈퍼마켓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이희종 동문이 2억 원을 기부한 것. 이희종 동문은 “한국도 미국처럼 기부문화가 정착돼 교육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고, 경희가 지금까지의 발전을 넘어 세계에서 우뚝 서면 좋겠다”라며 모교의 발전을 응원했다.

컴퓨터공학과 故 이종민 동문(O2학번)의 아버지 이옥규 씨

가 경희대를 찾았다. 유족은 자녀가 졸업한 모교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경희대 미래과학관 건축기금으로 3억 원을 기부했다. 경희대는 이에 보답하기 위해 2022년 4월 발전기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옥규 씨는 “경희대 덕분에 자녀가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었다. 자녀의 추억이 담긴 모교에, 자녀의 이름이 기억되길 희망한다”며 기부를 결심한 배경을 설명했다.

故 정문석 동문(건축공학과 05학번)은 건축공학과 학생회장으로 공과대학 부학생회장까지 역임하는 등 모교와 학과에 자부심이 있었다. 굴지의 건축기업에 취업해 꿈을 펼치던 중 2014년 뇌종양이 발병했고, 지난 2020년 젊은 나이에 작고했다.故 정문석 동문의 어머니인 주덕자 여사는 고인의 장례를 마친 이후 빈소를 찾아준 건축공학과 친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소정의 금액을 전달했다. 이를 기반으로 동기들이 후배를 위한 장학기금을 모아 기부하기로 했다. SNS로 홍보해 장학기금 천만 원이 모였고, 2022년 9월 장학기금 전달식이 열렸다. 주덕자 여사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학교 발전을 위해 돕겠다”며 장학기금 1백만 원을 추가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신문방송대학원(현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故 이규종 명예교수의 부인 김인선 여사가 경희대학교 발전에 평생을 향한 부군의 의지를 되새기면서 기부 의사를 밝혔다. 김인선 여사는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20억 원을 기부했다. 이 장학기금은 故 이규종 명예교수의 아호를 따 ‘운연(雲淵) 장학기금’으로 명명했다.故 이규종 명예교수는 정치외교학과 54학번으로, 1961년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부임하며 30여 년의 세월을 경희와 함께했다. 재임 중 신문방송국장, 사무처장, 출판국장, 신문방송대학원장 등을 역임하며 대학 발전을 위해 헌신했다. 운연(雲淵) 장학기금은 힘든 환경 속에서도 우수



한 성적을 거둔 학생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정년 퇴임 이후 한 노(老)교수는 매일 용돈 만 원을 저축했다. 그는 저축한 돈을 들고 퇴임한 학교를 찾아 기부했다. 퇴임 이후 기부를 시작한 지 12년이 지났고 누적 기부금액은 4천만 원에 이르렀다. 2000년 퇴임한 일본어학과 이희돈 교수의 이야기다. 경희대는 최근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한 이희돈 교수에 감사를 표하기 위한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희돈 교수는 “오랜만에 학교에 오니 재직하던 시절보다 많이 발전해 뿌듯하다. 여생을 학교를 그리워하며 살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후배 사랑, 모교 발전 위한 다양한 기부 프로젝트

대외협력처(서울)가 개교 73주년을 맞아 ‘경희 벚꽃길 함께 걸어요’ 행사를 진행했다. 2022년 4월 11일부터 일주일간 열린 벚꽃길 행사는 벚꽃길 코스를 완주하고 스탬프를 찍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약 3천 5백여 명의 행사 참여자 중 100여 명이 매일 1만 원 기부로 경희 사랑을 실천하는 ‘라이언클럽’에 참여, 약 1억 원의 기부금이 약정됐다. 이 기금은 코로나19로 취업이 힘들어진 취업준비생을 위한 프로그램 추진 및 가계 곤란 학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치과대학 교정과 동문회(이하 경교회)가 경희학원 박영국 사무총장의 정년을 기리고 교정학교실 설립 50주년을 맞이해 2억 2,400만 원의 발전기금을 모아 2022년 2월 모교에 전달했다. 발전기금 전달식에 이어 ‘치과대학 201호 국시설 현판식’도 진행됐다. 경교회는 뜻깊은 의미를 담아 후학들의 치의학 교육을 위한 기금 모금을 진행했고, 불과 한 달여 만에 2억 2,400만 원이 모였다.

한국 원자력 산업 발전을 이끌어온 원자력공학과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원자력공학과 동문회가 발전기금 전달의



뜻을 밝힌 것. 원자력공학과 동문회는 지난 2008년부터 13년간 기부를 이어오며 1억 2천여만 원을 원자력공학과 발전기금으로 기부했다. 기금은 원자력공학과 인재 양성을 위해 활용됐다. 대외협력처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2021년 11월 국제캠퍼스 중앙도서관 대회의실에서 발전기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안철호 동문회장은 “한대에 감사드립니다. 학교에서 보내준 귀중한 마음을 여러 동문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2022년 5월, 의과대학 동문회가 ‘의과대학 건축기금’ 3억 원을 기부했다. 의과대학 동문회는 2018년 6월부터 ‘3-3-1운동’을 추진 중이다. 이승 의과대학 동문회장이 처음 동문회장을 맡은 2015년부터 기획한 모교 캠페인으로, 졸업 동문 모두가 한 달에 3만 원씩 3년을 모금해 약 백만 원을 모금하자는 취지를 담았다. 약 3백 명의 의과대학 동문이 참여했다.

한균태 총장이 2022년 8월 인천지역 치과대학 동문회를 방문했다. 한 총장은 이정우 동문(치의학과 90학번)과 김학찬 동문(치의학과 75학번)이 운영하는 병원에 방문해, 그간 꾸준히 기부를 해온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정우 동문은 누적 기부액이 6천 8백만 원, 김학찬 동문은 청원치과그룹을 통한 누적 기부액이 1억 6천여만 원에 이른다. 치과대학 발전기금은 물론 장학기금까지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극복을 지원하는 평화의 섬 순례가 2022년 7월 14일(목)부터 21일(목)까지 7박8일 동안 이뤄졌다. 학생순례단 80여 명, 학생 기획단 10여 명과 교직원들이 함께했다. 바쁜 순례 여정 와중에도 환경보호를 위한 봉사활동도 빼놓지 않았다. 이어진 해단식에서는 한균태 총장을 비롯해 대학 관계자와 제주 지역 동문이 참석해 완주를 축하했다. 특히 제주 지역 동문은 후배들의 순례 소식을 접하고 물품을 지원하는 등 물심양면 도왔다.



1949 ~ 2023 학문과 평화의 74년

2023년 개교 74주년을 맞이한 경희는
창학 초기부터 한반도를 넘어 지구촌의
더 나은 미래를 모색하는 원대한 비전을 수립하고
학술과 실천을 창조적으로 결합해왔다.
1965년 세계대학총장회(IAUP) 창설을 주도했고
1981년에는 UN으로 하여금 세계평화의 날·해를
제정하도록 했다. 이후 고등교육과
세계평화 운동을 긴밀하게 연결하며
‘학문과 평화’의 전당으로 뿌리를 내렸다.
경희는 개교 70주년 이후 아시아를 넘어
세계 정상으로 도약하기 위해
담대한 도전을 계속하고 있다.

‘문화세계의 창조’와 ‘학문과 평화’ 전통

경희에서 배우고 가르치고 연구하고 생활하는 모든 행위의 궁극적 목표는 ‘문화세계’를 ‘창조’하는 것이다



경희의 장학정신 : 문화세계의 창조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정문인 ‘등용문’에 들어서면 잘 가꾸어진 숲을 배경으로 하얗게 빛나는 교시탑이 눈에 들어온다. 교시(校是)는 학교를 세운 근본 정신, 다시 말해 장학정신이다. 20미터 높이의 교시탑에는 ‘문화세계의 창조’라는 글귀가 적혀 있다. 경희에서 배우고 가르치고 연구하고 생활하는 모든 행위의 궁극적 목표와 가치는 ‘문화세계’를 ‘창조’하는 것이다.

‘문화세계의 창조’는 경희학원 설립자인 미원(美源) 조영식 박사(1921-2012)가 1951년에 출간한 두 번째 저서의 제목이기도 하다. 이 책에서 조영식 박사는 “인간은 약육강식의 힘의 논리에 지배되는 동물도 아니고 신과 같은 완벽한 존재도 아니지만, 문화와 가치의 창조자로서 독자성을 지닌 존재”라고 정의했다.

모든 인간은 정신과 육체를 가진 인격체로서 본능과 이성을 통제하고, 적자생존의 ‘자연 규범’이 아니라 정신과 물질이 조화된 ‘문화 규범’을 지키며 인간적이며 풍요롭고, 가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보편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평화로운 지구공동사회(GCS: Global Common Society)를 이룩해야 한다. 이것이 ‘문화세계 창조론’의 핵심 내용이다.

경희학풍과 전통 : 학문과 평화

창학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경희대학교는 1949년 개교한 이래 학술과 실천을 창조적으로 결합하며 ‘학문과 평화’의 학풍과 전통을 이어왔다.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의 근본 사명은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탁월한 연구를 통해 진리를 탐구하며 학문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화세계 창조’를 위해서는 그것만으로 충분치 않다. 학술적 성과를 토대로 인류 사회에 공헌하는 실천적 노력이 필요하다.

경희는 창학 초기인 1950년대 중반부터 농촌계몽운동, 문맹퇴치운동, 잘살기

운동 등 다양한 사회운동을 솔선하고 선도했다. 경희의 잘살기운동은 뒷날 정부가 추진한 새마을운동의 이념적·실천적 원리를 제공했다.

1970년대 들어서는 지구적 차원으로 시야를 확장해 물질문명에 병든 인류사회를 재건하기 위한 글로벌 캠페인을 전개했다. 경희가 주도하고 국제사회가 참여한 ‘밝은사회운동’이 그것이다. 이는 조영식 박사가 1975년에 펴낸 저서 <인류사회의 재건>에 사상적 뿌리를 두고 있다.

경희는 세계평화운동에도 앞장섰다. 1981년 11월 30일, 경희의 제안에 따라 유엔총회에서 ‘세계평화의 날’(매년 9월 21일)이 사상 최초로 제정된 일은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

경희대학교 교훈과 교육 방침 :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

미원(美源) 조영식 박사가 피란지 부산에서 신홍초급대학을 인수한 때는 1951년 5월 18일이다. 신홍초급대학은 1949년 배영대학관과 신홍전문학관을 합병해서 세운 2년제 초급대학이었다. 이 같은 역사적 배경에서 경희는 1949년 5월 18일을 대학 설립일로 정했다. 경희대학교는 올해 개교 74주년을 맞는다.

1951년 8월 20일, 부산에서 새롭게 신입생을 맞이하며 경희는 교육 목표와 교훈, 교육 방침을 발표했다.

“민주주의적 사고방식과 민주주의적 처리 능력을 가진 선량한 국민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를 교훈으로 삼고, ‘전인교육, 정서교육, 과학교육, 민주교육’을 교육 방침으로 정한다.”

경희정신과 경희의 상징물 :

창의적인 노력, 진취적인 기상, 건설적인 협동

‘문화세계의 창조’라는 창학정신과 ‘학문과 평화’의 전통 위에서 ‘더 나은 나, 더 나은 세계, 더 나은 인류의 미래’를 건설하는 것이 경희 구성원의 사명이다.

이를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가 배려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경희정신’이 필요하다. 경희정신은 ‘창의적인 노력, 진취적인 기상, 건설적인 협동’으로 요약된다. 이 경희정신은 교화(校花)인 목련, 교수(校獸)인 웃는 사자로 상징된다.

‘웃는 사자’를 경희의 상징으로 택한 이유를 설립자 조영식 박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사자가 오직 그 힘과 용맹만을 내세운다면 그것은 단지 무서운 존재가 될 뿐이다. 그 용맹한 사자가 웃는 사자일 때 그의 기상은 인자함과 덕이 조화된 외유내강의 참다운 만수의 왕이 될 것이다.”

‘목련’을 경희의 교화로 제정한 날은 1970년 개교기념일(5월 18일)이다. 목련은 매서운 추위가 아직 물러가지 않은 때 가장 먼저 희고 소담한 꽃을 피워 다가올 봄소식을 전한다. 역경을 이겨내는 진취적이고 선구자적인 이미지를 표상하는 꽃이다. 또한 ‘함께 피고 함께 지는’ 목련의 특성은 경희의 공동체 정신과 닮아 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온 '경이로운 경희'

1949년 2년제 초급대학에서 출발한 경희대학교는 1955년 종합대학교로 승격 개교 60주년을 계기로 세계적 명문대학으로 도약 발전

1949~1953 : 경희의 탄생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5월 18일, 경희학원 설립자 미원(美源) 조영식 박사(1921~2012)가 피란지 수도 부산에서 신홍초급대학을 인수한 것을 계기로 '경이로운 경희'의 역사가 시작됐다. 경희의 모태가 된 신홍초급대학은 1949년 배영대학관과 신홍전문학관이 합병해서 세운 2년제 초급대학이었다. 당시 신홍초급대학은 문교부의 정식 인가를 얻지 못한 가인가 상태였다. 강의실조차 없는 '천막학교'에 불과했다.

조영식 박사는 부산역 앞 동광동에 본부 건물 1동, 5개의 강의실을 갖춘 교사 2동을 신축하고 1951년 8월 20일 신입생을 맞이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교수와 학생 모두가 열심히 배우고 가르치며 성공적으로 첫 학기를 마쳤다. 이듬해인 1952년 2월 3일 문교부로부터 정식 초급대학 인가를 취득했다.

대학 재정이 안정되고 교육 내용이 훌륭하다는 평판을 얻게 되자 입학 지원하는 학생이 몰려들었다. 3개 학과, 150명 정원으로서 출발했으나 6개월 만에 학생 수가 200여 명으로 늘어났다. 1952년 12월 9일 신홍초급대학은 2년제에서 정규 4년제 대학으로 승격했다. 학교를 인수한 지 1년 7개월 만의 빠른 성장이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큰 위기가 닥쳤다. 1953년 1월 9일 예기치 못한 화재 사건으로 공들여 지은 동광동 교사가 잿더미로 변했다. "이제 신홍대학과 조영식 씨는 망했다"는 소문이 퍼졌으나, 설립자는 이에 좌절하지 않고 재기했다. 부산 동대신동 산기슭에 더 넓은 교지를 마련하고 착공 2개월 만에 새 교사를 건립했다.

동대신동 교사에는 대강의실과 일반강의실 7개실, 도서관 1동, 본부 건물 1동이 들어섰다. 400평 크기의 운동장과 아름답게 꾸며진 화단도 조성됐다. 당시 피란지 부산에서 독립된 도서관 건물과 운동장을 갖춘 대학은 경희가 유일했다.

1953년 3월 30일 동대신동 교사에서 첫 학위수여식이 거행됐다. 이날

경희의 1회 졸업생 45명이 배출됐다. 그로부터 70여 년이 지난 현재 경희의 '등용문'을 나선 동문은 30만 명에 이른다.

1954~1959 : 경희의 성장

3년에 걸친 6·25전쟁이 휴전되자 조영식 박사는 대학을 서울로 이전하기로 결심하고 고향산 기슭에 30만 평의 교지를 확보했다. 한 달간 서울에 머물며 날마다 산중턱에 올라 경희의 미래를 내다보며 캠퍼스 마스터플랜을 구상했다.

서울캠퍼스는 국내 대학 최초로 마스터플랜에 의해 건설된 캠퍼스다. 각 건물의 크기와 배치, 건축 양식, 녹지 공간 조성 등 모든 계획이 '100년 후 경희'를 내다보는 원대한 비전 아래 이뤄졌다. 서울캠퍼스는 국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캠퍼스로 꼽힌다.

경희의 제1기 마스터플랜은 10여 년에 걸쳐 추진됐다(괄호 안은 완공 연도). 코린트 양식의 본관 석조전(1956), 높이 12미터 폭 14미터의 아치형 정문 '등용문'(1955), 당시 동양 최대 규모의 중앙도서관(1968), 학술 경희의 산실 문리대학관(1958), 국제 규모의 400미터 트랙을 갖춘 종합운동장(1962), 수많은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를 배출해 한국 스포츠의 요람으로 자리 잡은 체육대학관(1957), 최대 2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연무대 노천극장(1959) 등이 주요 건축물이었다.

캠퍼스 건설이 한창이던 1955년 2월 28일, 경희는 종합대학교 승격이라는 큰 경사를 맞았다. 이를 계기로 경희는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대



서울캠퍼스는 국내 대학 최초로 마스터플랜에 의해 건설된 캠퍼스다. 각 건물의 크기와 배치, 건축 양식, 녹지 공간 조성 등 모든 계획이 '100년 후 경희'를 내다보는 원대한 비전 아래 이뤄졌다.



학으로 도약 발전하겠다”는 담대한 비전을 대내외에 선언했다. 경희는 외적인 성장과 함께 대학문화 창달에도 선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지금은 국내 모든 대학이 해마다 대학축제를 개최하고 있지만, 그 효시는 1956년 10월 23일 열린 경희의 제1회 대학제(학원제)이다. 또한 학내 언론을 활성화하기 위해 1955년 5월 대학신문(현재의 대학주보)을 창간했으며, 1957년 10월 대학의 소리(VOU, Voice of University) 방송국을 개국했다. 교내 학술잡지 <고황>은 1957년 5월에 창간됐다.

1968년 6월 18일 경희대 중앙도서관에서 개막한 세계대학총장회(IAUP) 제2차 대회는 경희가 이룩해낸 가장 큰 성과 중 하나이자 경희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린 국제행사였다.

1960~1969 : 경희의 발전

1960년 3월 1일 경희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했다. ‘경희’라는 이름은 조선 후기 문예부흥을 이끌었던 영·정조 시대의 정궁(正宮) 경희궁에서 따온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경희(慶熙)’는 행복, 형상, 객체, 양(陽)을 뜻하는 경(慶)과 맑음, 올바름, 지성, 주체, 음(陰)을 뜻하는 희(熙)를 결합한 것으로 음양의 조화, 즉 일원론적 우주관을 함축한다. ‘문화세계의 창조’라는 교시에 걸맞은 선택이었다.

이듬해인 1961년 유치원에서 대학원까지 일관된 교육체계를 갖춘 ‘경희학원’이 설립됐다. 경희의 장학정신을 구현하려면 어릴 때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각급 학교 현장에서 경희의 교육철학과 교육정신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일관된 시스템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1960년대 중반부터 경희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특히 1965년의 동양외과대학 인수·합병은 경희대학교가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등 의학계열의 모든 단과대학을 갖춘 세계 유일의 종합대학으로 성장하는 기폭제가 됐다. 이 시기, 단과대학과 학과 증설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음악대학(1964), 사범대학(1965), 의과대학(1966), 약학대학(1966), 산업대학(1968), 공과대학(1969) 등이 신설됐다.

1968년 6월 18일 경희대 중앙도서관에서 개막한 세계대학총장회(IAUP) 제2차 대회는 경희가 이룩해낸 가장 큰 성과 중 하나이자 경희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린 국제행사였다. 이날 개막식에는 35개국의 대학 총장 105명을 비롯해, 박정희 대통령과 주한 외교사절, 국내외 언론사 기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IAUP는 조영식 박사가 주도해 창설한 세계 지식의 모임으로, 1965년 6월 영국 옥스포드대학에서 창립대회를 가졌다. 고등교육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목표로 설립됐다.

IAUP 서울대회의 성공적 개최는 구성원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했을 뿐 아니라 경희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 이듬해인 1969년 전 세계 20개국 253개 대학의 총장으로부터 개교 20주년을 축하하는 메시지가 도착했다. ‘한국의 경희’에서 ‘세계의 경희’로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

1970~1979 : 경희의 성숙

1971년 10월 5일 경희의료원 개원과 함께 경희대학교는 ‘의과학 경희’의 새 전통을 쌓아올렸다. 경희의 의료기관 설립은 질병을 퇴치해 보다 나은 인류사회 건설에 기여한다는 목적이 있었다. 경희의료원은 당시 동양 최대인 1,000병상 규모로 지어졌다. 당시 국내의 대학병원들은 350~500병상 수준이었다. 경희는 인구 증가와 경제성장에 따라 의료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현재가 아닌 미래의 기준에 적합한 병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경희의료원 개원은 국내 한의학의 과학화를 선도하며 한의학 수준을 한 차원 끌어올렸다. 동양의학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신시대 한의학자’를 적극 육성하는 한편, 서양학과 한의학을 접목한 ‘제3의학’을 창출했다.

1972년 9월 9일 경희 의료진은 동서양 의학 협진으로 침술 마취에 의한 맹장 수술에 성공했다. 침술 마취 수술은 중국, 일본, 미국에 이은 네 번째 사례였지만, 약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개복수술에 성공한 것은 경희가 처음이었다. 제3의학에 대한 경희의 의지는 뒷날 세계 최대의 <동양의학대사전>(전12권) 발간으로 이어졌다. <동양의학대사전>은 편찬 작업에 착수한 지 7년 만인 1999년, 개교 50주년을 기념해 출간됐다.

1970년대 한국 대학사회의 최대 화두는 질적 성장을 위한 교육개혁이었다. 제1기 마스터플랜을 성공적으로 끝마친 경희는 타 대학에 비해 안정된 인프라를 갖추고 있었다. 이를 기반으로 경희는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질적인 성숙과 도약을 이뤄냈다. ‘마음껏 배우고 마음껏 가르치는’ 창의적 학술문화가 경희에 정착된 것도 이때부터다.

1979년 10월 20일, 경희는 개교 3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21세기의 전망과 문제점’을 주제로 로마클럽과 합동으로 진행했다. 로마클럽은 1968년 세계 최고의 지식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민간단체로, 1972년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최초로 제시한 보고서 <성장의 한계>를 발표한 바 있다. 나흘간 열린 국제학술회의에는 노벨상 수상자들을 비롯한 300여 명의 국내외 석학이 참석해 경희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을 보여줬다.

1980~1989 : 경희의 도약

1979년 국제캠페스 설립은 경희가 세계적 대학으로 도약하는 큰 전환점이었다. 1970년대 내내 경희는 단과대학 및 학과 증설이 거의 불가능했다. 경희가 급속하게 성장하고 조영식 박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자 정치권을 비롯한 외부의 압력이 가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정부의 수도권 인구 분산 정책과 지방대학 육성 정책이 맞물려 캠퍼스



1979년 국제캠퍼스 설립은 경희가 세계적 대학으로 도약하는 큰 전환점이었다. 서울캠퍼스와 국제캠퍼스는 학문 간 융복합 및 교류 확대를 통해 교육·연구·실천 역량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여나가고 있다.

신설이 가능해졌다. 조영식 박사의 원래 구상은 ‘경희’라는 하나의 이름 아래 서울캠퍼스와 국제캠퍼스가 각기 특성화된 종합대학으로 발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법규에 의해 당분간 ‘분교’ 형태를 유지해야 했다.

1980년대 이후 경희는 ‘하나의 경희’를 위한 편제 개편을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서울캠퍼스는 인문·사회, 의학, 기초과학, 예술 등 순수학문 중심으로, 국제캠퍼스는 공학, 응용과학, 국제학, 현대예술, 체육 등 응용학문 중심으로 독자적인 발전을 이뤄왔다.

‘하나의 경희’에 대한 30년간의 꿈과 노력은 2011년 8월 24일 결실을 맺었다. 이날 교육부는 양 캠퍼스의 통합을 승인했다. 서울캠퍼스와 국제캠퍼스는 학문 간 융복합 및 교류 확대를 통해 교육·연구·실천 역량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여나가고 있다.

1990~1999 : 경희의 세계화

1993년 8월 27일, 조영식 박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제자들의 집단 유급을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총장직을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6개월간 전국을 뒤흔든 ‘한약 분쟁’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살신성인이었다.

그해 3월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돼 일반 약국에서도 한약품을 조제·판매할 수 있게 되자 전국의 한의과대 학생이 수업 거부에

들어갔다. 사태가 장기화되자 3,000여 명의 학생이 제적 또는 유급의 위기를 맞았다. 교육자의 양심에 따른 조영식 박사의 총장직 자진 사퇴는 학생들을 구제하는 길을 열었다.

1999년 10월 10일, 경희는 개교 50주년을 맞아 ‘1999서울NGO 세계대회’를 개최했다. 그에 앞서 조영식 박사는 1997년 10월 유엔총회 초청 연설에서 “세계평화운동은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할 때 지속적인 전개가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NGO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 후 부트로스-갈리, 코피 아난 등 역대 유엔사무총장을 직접 만나 “유엔 승인 아래 세계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1999서울NGO세계대회는 107개국 1,360개의 NGO 활동가와 시민이 참가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NGO 대회였다. “뜻을 세우고, 힘을 모아, 행동하자!”라는 구호 아래 6일간 토론하며 세계평화를 위한 시민단체의 지구적 실천 방안을 모색했다. 전 세계 시민사회는 경희의 제안에 따라 ‘서울 밀레니엄 선언문’을 채택했다. 서울NGO세계대회는 경희의 평화정신을 세계시민사회가 함께 실천할 것을 다짐하는 평화의 제전이였다.

지구적 존엄 구현하는 21세기 경희의 미래

경희대학교는 21세기로 접어들어 개교 60주년을 새로운 전환점으로 삼았다. 개교 60주년을 준비하며 경희는 ‘대학다운 미래대학’의 길이 무엇인지에 관해 고민했다. 대학은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또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구적 존엄의 구현(Towards Global Eminence)’ 오랜 성찰 끝에 경희는 고등교육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지구적 차원에서 구현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는 ‘문화세계 창조’의 창학정신, ‘학문과 평화’의 경희 전통을 21세기적 맥락에서 재해석하고, 인류의 미래를 위한 보편 가치와 방법론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었다.

2009년 5월 18일, 경희는 개교 60주년 기념식에서 ‘새로운 60년’을 향한 미래비전과 목표를 대내외에 밝혔다. 그간의 경이로운 성과를 토대로, 개교 80주년 이전까지 ‘세계적 명문대학’으로 도약 발전한다는 것이 경희의 새로운 비전과 목표다.

이를 위해 2011년 경희는 후마니타스칼리지(Humanitas College)를 설립해 교양교육 혁신을 주도해나가고 있다. 또한 대학과 의료기관, 행정조직 전체를 아우르는 사회공헌 통괄기구 글로벌봉사팀(GVT, Global Volunteer Team)을 결성해 사회공헌의 새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경희의 미래는 대학의 미래인 동시에 인류의 미래이다.



개교 60주년을 맞아 경희는 ‘지구적 존엄 구현과 ‘대학다운 미래대학’을 21세기 비전과 목표로 설정했다. ‘학문과 평화’의 경희 전통을 21세기적 맥락에서 재해석하고, 미래지향의 가치와 방법론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었다.



UN 세계평화의 날 경희의 제안으로 제정됐다

매년 9월 21일 전 세계에서 평화 염원하는 축제 거행
매년 9월 지구적 난제 해결 위한 국제학술회의
'Peace BAR Festival(PBF)' 개최

매년 9월 21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평화의 날'이다.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이날을 기념하는 평화의 축제가 거행된다. 그러나 이 뜻깊은 기념일이 경희의 제안과 노력에 의해 제정됐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1981년 7월 3일, 코스타리카의 수도 산호세에서 열린 세계대학총장회(IAUP) 제6차 대회 마지막 날. 연단에 오른 조영식 박사가 담대한 제안을 했다. "유엔으로 하여금 세계평화의 날과 세계평화의 해를 제정하도록 촉구하자."

'세계평화의 날' 최초로 제안

1980년대 들어 미국과 소련의 군비경쟁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세계의 지성들은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에 의한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경우 인류가 멸망할 것이라고 크게 우려했다. 그런 위기 상황에서 조영식 박사가 세계평화의 날 제정을 사상 최초로 제안한 것이다.

세계대학총장회는 이를 받아들여 '코스타리카 선언문'을 채택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은 유엔 회원국이 아니어서 의안을 제출할 권한이 없었다. 조영식 박사는 코스타리카의 로드리고 카라조 대통령의 도움으로 유엔에 안건을 제출했다.

당시 세계는 동·서 양 진영으로 갈라져 대립하고 있었다. 그 탓에 안건 통과 여부가 매우 불확실했다. 조영식 박사는 뉴욕에 머물며 유엔 대표들을 직접 만나 설득했다. 각국 대통령과 총리, 외무장관, 언론사 발행인, 노벨상 수상자, 로마 교황 등 전 세계 지도급 인사에게 협조를 당부하는 '편지 캠페인'도 펼쳤다. 그때 발송한 편지는 무려 2,000통이 넘었다.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

1981년 11월 27일, 세계평화의 날과 해 제정안이 유엔총회에 상정됐다. 그러나 이스마일 키타니 의장은 표결을 사흘 뒤로 미뤘다. 몇몇 국가가 안건 자체에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조영식 박사도 다수결 통과를 원치 않았다. "세계평화를 이루려고 해도 한 나라가 반대하면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법"이라면서 만장일치를 주장했다. 표결이 미뤄진 사흘 동안 조영식 박사는 반대 의사를 밝힌 대표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끈질기게 호소했다.

'30년보다 더 길었던 3일'이 지나고, 마침내 11월 30일. 개회를 선언한 유엔총회 키타니 의장이 입을 열었다. "세계평화의 날과 해 제정 안건을 다시 상정하겠다. 이 평화안에 반대하는 나라가 있는가?" 회의장은 잠시 침묵에 빠졌다. 키타니 의장은 사회봉을 세 번 두드리고 만장일치 통과를 선언했다.

총회가 끝난 뒤 키타니 의장이 조영식 박사에게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줬다. "그동안 세계 최고의 지도자와 석학들로부터 '세계평화의 날 제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무수히 받았다. 놀랍게도 그것은 1,000통이 넘었다. 어떻게 한 사람의 힘이 그토록 큰 힘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다."

세계평화의 해 맞아 미국과 소련, 평화의 메시지 전달

유엔총회는 9월 셋째 주 화요일을 세계평화의 날로 정하고 전 세계가 이날을 기념하도록 권했다(세계평화의 해는 1986년으로 정해졌고, 세계평화의 날은 2001년부터 9월 21일로 고정됐다). 경희대학교는 1982년부터 매년 '세계평화의 날 기념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해왔다. 현재는 'Peace BAR Festival' 프로그램의 하나로 국제학술회의가 열리고 있다.

유엔에 의해 '세계평화의 해'로 지정된 1986년 1월 1일,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소련의 고르바초프 공산당 서기장이 서로 상대국 국민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다. 핵전쟁 위기가 최고조에 달해 있던 때 벌어진 기념비적 '평화 이벤트'는 그해 11월 양국이 핵무기 폐기에 원칙적으로 합의하는 결과를 끌어냈다. 그 후 양국 간의 군비경쟁이 완화됐으며, 동·서 냉전의 상징이던 베를린 장벽이 1989년 11월 9일 무너져 내렸다.

평화복지대학원, 유네스코 평화교육상 수상

세계평화를 위한 경희의 의지는 평화복지대학원(광릉캠퍼스) 설립으로 이어졌다. 1984년 9월 25일 열린 개원식 겸 입학식에는 하비에르 페레스 데 케야르 유엔사무총장,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등 국제사회 지도자와 평화 관련 기관들의 축하 메시지가 전해졌다.

평화복지대학원의 설립 목적은 평화에 대한 학술적 깊이와 실천역량을 갖춘 국제적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었다. 모든 학생에게 학비 전액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장학제도를 실시하고, 교수 1명당 학생 3~4명의 비율로 엘리트 교육을 강화했다. 매 학기 세계 석학을 초빙해 교육의 질을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1994년 경희대를 방문한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은 "만일 세계평화의 날과 해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로운 세계는 없었을 것이다"라며 경희가 주도해온 세계평화운동에 찬사를 보냈다.



1981년 7월 3일, 코스타리카에서 열린 세계대학총장회(IAUP) 제6차 대회에서 조영식 박사는 "유엔으로 하여금 세계평화의 날을 제정하도록 촉구하자"고 제안했다.



1993년, 평화복지대학원은 세계평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평화교육상을 수상했다. 개인이 아닌 교육기관이 이 상을 받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또한 학술과 실천을 결합한 인턴십을 의무화하고 국내는 물론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에 학생들을 파견해 경험을 쌓게 했다. 현재 졸업생 3명이 유엔의 정직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1993년, 평화복지대학원은 세계 평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평화교육상을 수상했다. 개인이 아닌 교육기관이 이 상을 받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세계평화대백과사전> 편찬

평화복지대학원 설립을 준비하던 중 조영식 박사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평화학을 공부하기 위한 사전이 세계 어느 도서관에도 없었던 것이다. 곧바로 <세계평화대백과사전>(영문판) 간행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노벨 화학상과 평화상 수상자인 라이너스 폴링 박사를 명예편집장으로 초빙하고, 40개국의 세계적 석학 350여 명 등으로 집필진을 구성했다.

<세계평화대백과사전>(전4권) 초판은 1987년에 간행됐다. 개정·증보판은 개교 50주년인 1999년에 완간됐다. 전8권, 총 3,800면에 달하는 방대한 사전 편찬 작업이었다.

세계평화의 날 30주년 기념, UNAI-경희 국제회의

2011년, 세계평화의 날 제정 30주년을 맞아 경희대학교는 유엔과 공동으로 특별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UNAI의 제안으로 성사된 국제회의는 그해 9월 15일 경희대 평화의 전당과 뉴욕 유엔본부에서 동시에 개최됐다. UNAI는 '고등교육을 통한 세계평화 구현'을 목표로 설립한 유엔공보처(UNDPI) 산하 기구다. 국제회의의 주제는 '평화의 미래, 대학의 미래(Give Peace Another Chance)'였다. 경희대 조인원 총장은 기조연설에서 '학문과 평화'의 전통 위에서 지구적 존엄(Global Eminence)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희의 모습을 소개했다.

학생, 시민도 참여하는 지구촌 평화축제, Peace BAR Festival(PBF)

경희는 개교 60주년(2009년) 이후 매년 9월 21일 UN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해 개최해온 Peace BAR Festival(PBF)의 성격을 보다 구체화했다. 세계적 싱크탱크, 국내외 석학, 시민사회와 연계해 기후위기를 비롯한 지구적 난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자며 목표를 새로이 했다.

예컨대 2018년 9월에 개최된 PBF는 '전환문명 시대의 한반도: 그 가치와 철학'을 주제로, 세계예술과학아카데미(World Academy of Art and Science, WAAS), 세계시민사회단체연합(Conference of NGOs in Consultative Relationship with UN, CoNGO)과 함께 그해 4월 판문점 선언이 불려온 한반도의 봄을 '문명 전환'의 맥락에서 접근하면서

지속가능한 지구공동사회를 구현하는 철학과 가치를 모색했다.

첫날에는 '사라지는 빙하: 기후변화와 세계평화(A Farewell to Ice: Climate Change and Global Peace)'를 주제로 세계평화의 날 기념 국제학술회의가 열렸다. 피터 와담스 케임브리지대학 교수의 강연에 이어 이리나 보코바 경희대 미원석좌교수의 사회로 패널 토의가 진행됐다. 와담스 교수는 지구 온난화 문제를 경고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 온 기후변화 분야 석학이다. 그는 이번 학술회의에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특별강연 및 원탁회의에서는 한반도의 새로운 변화를 인류 평화라는 보다 큰 차원에서 조명했다. 폴란드에서 온 아담 미치니크(Adam Michinik) <가제타 비보르차(Gazeta Wyborcza)> 편집장과 환완상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이 특별 강연을 했으며, 조인원 총장과 피터 와담스(Peter Wadhams) 케임브리지대학 교수, 아담 미치니크 편집장이 원탁회의를 가졌다.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자 131명 '기후행동' 촉구 성명서 발표

UN 세계평화의날 제정 40주년을 맞은 지난해에는 '전환문명의 전위,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주제로 PBF 2021을 개최했다. 기후변화, 자원 고갈, 바이러스 창궐, 생명 위기,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등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전환문명을 모색해보자는 취지였다. PBF 2021에는 어빈 라즐로 부다페스트클럽 회장, 폴 R. 엘리히 스탠퍼드대 교수, 아비 로브 하버드대 천문학과 교수, 한스 요하임 쉐른후버 포츠담기후영향연구소 소장, 조인원 경희학원 이사장 등이 참석해 경희 구성원 모두와 함께 지구 문명이 나아갈 길을 고민했다.

후마니타스칼리지는 2015년 이후 매년 9월 PBF가 열리는 한 주를 '세계평화주간'으로 선포하고 다양한 행사를 펼치고 있다. 특히 2019년에는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자 131명이 '기후행동'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해 큰 관심을 모았다. 국내 대학에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물론 교육계가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뜻을 모은 것은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가 처음이었다. 후마니타스 세계평화주간은 기념식 외에 기념 공연, 세계시민교육 및 평화교육 전시회, 경희 피스 로드(Peace Road) 탐방, 치유 프로그램 체험 행사, 평화 주제 설치미술 전시, 평화의 날 기념 백일장 등 다채롭게 진행된다.

2022년에는 지구적 위기의식에서 출현하는 전환문명의 향방을 탐색했다. '평화 혹은 붕괴, 지구정치의 새 지평을 찾아서'를 중심 의제로, 현대문명 패러다임의 문제점을 의식, 정치, 지식, 일상의 위기로 읽고 전환을 향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했다.



2019년에는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자 131명이 '기후행동'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해 큰 관심을 모았다. 국내 대학에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물론 교육계가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뜻을 모은 것은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가 처음이었다.



세계평화의 날 제정 30주년 기념 'UNAI-경희 국제회의'에서 조인원 총장은 "전 세계 고등교육기관의 시민교육과 지구봉사를 지원하기 위한 세계기금 창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해 국제적 관심을 끌었다.



국제캠퍼스

경희는 1980년대 경기도 용인 신갈호수 일대에 제2 캠퍼스를 건설하면서 '국제화 경희'의 기반을 다졌다. 50만 평에 달하는 녹지 위에 중앙도서관, 네오르네상스문을 비롯해 외국어, 예술·체육, 이공 계열, 국제대학원 등이 들어섰다. 2017년 Space 21 1단계 사업의 첫 결실로 종합체육관 '선승관'을 개관한 국제캠퍼스는 Space 21 2단계 사업과 더불어 새로운 시대로 진입한다.

●
서울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학장실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경희대학교 청운관 2층
TEL 02-961-9311, 9339~40
FAX 02-961-9305
khsa0036@khu.ac.kr

●
국제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학장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경희대학교 멀티미디어교육관 5층
TEL 031-201-3401~4
FAX 031-201-3409
khwc5871@khu.ac.kr

●
후마니타스칼리지 홈페이지
<http://hc.khu.ac.kr>

●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양교육연구소
서울캠퍼스 네오르네상스관 401호
연구소 TEL 02-961-2398
소장실 TEL 02-961-2397
실천교육센터
범아프리카문화연구센터
인문정보센터

●
글쓰기센터
서울캠퍼스 청운관 206B호
TEL 02-961-0991

●
글로벌봉사팀
서울캠퍼스 TEL 02-961-2213
국제캠퍼스 TEL 031-201-3581



“교육에서 학습으로, 학습에서 실천으로!”